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1/13

근로자

4 호 2월28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4호 (26) 1949년 2월28일

내용

쏘베트동맹은 견고한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있다

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은 독일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를 격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쏘베트동맹은 전쟁을 시급히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인민에게 가져온 헤아릴수 없는 비참과 고난을 축소시키며 될수 있는대로 속히 평화를 전취하기 위하여 영웅적 노력을 다하였다。「만일 우리가 적의 격멸을 시급히 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지 않는다면 조국에 대하여 또한 일시적으로 팟쇼적 질곡하에 빠졌던 쏘베트사람들에게 대하여 또한 독일압박하에 신음하고 있는 구라파의 인민들에게 대하여 죄를 짓게될것이다」라고 쓰딸린대원수는 一九四三년十一월六일에 말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지배층은 이와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배반하고 구라파에서 제二전선의 개설기한을 지연시키었다。 히틀러독일을 반대하는 제二전선의 개설기한에 관한 문제는 또한 전쟁의 종말기한에 관한 문제이다。 三년동안이나 쏘베트동맹은 영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구라파에서 제二전선을 시급히 개설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쏘베트동맹이 자기자신의 힘으로 동맹국들의 원조가 없이도 능히 독일을 격멸할수 있으며 구라파인민들을 팟쇼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하여진 때에야 비로소 제二전선이 개설되었다。

서쪽에서 팟쇼독일을 반대하는 특히 곤난한 전쟁이 끝난후 쏘베트동맹은 동방에서 군국주의일본을 반대하는데로 자기의 군사력을 전진(轉進)시키었다。 이것은 가장 짧은 기한내에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구

라파에 제二전선을 개설하는 사업에 있어서 서구라파동맹국들이 표시한 완만성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던 세계인민들은 쏘베트동맹이 제국주의일본에 대한 파멸적타격을 그렇게도 급속히 준비하였으며 실현한데 대하여 감격하였다. 쏘베트동맹은 제二차세계대전을 가장 급속히 종결시키며 전체인민들의 평화를 가장 시급히 전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였다.

「지금 우리는 전세계에서 평화에 필요한 조건들이 이미 전취되었다는것을 능히 말할수있다」고 쓰딸린대원수는 제二차세계대전의 종결일인 一九四五년九월二일에 성명하였다.

* * *

제二차세계대전이 종결된후 三개년 이상이나 쏘베트동맹은 견고한 민주주의적평화를 위하여 꾸준히 싸우고있다. 전쟁기간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은 팟쇼침략자들을 격멸하며 전쟁을 가장 시급히 종결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논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또한 견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놀고 있다.

쏘베트평화정책은 모든 인민들의 사활적 리해에 대답하고 있다. 전세계의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정기적으로 조발하는 파괴적이며 류혈적인 전쟁의 반복을 원치않는다. 전세계의 근로자들은 견고한 민주주의적 평화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혈연적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모든 인민들의 시선은 평화와 안전보장의 튼튼한 요색인 쏘베트동맹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쏘베트동맹이 모든 자유 애호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있는 이때에 침략세력 특히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사업을 파탄시키며 국제문제에 있어서 긴박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 영 지배층은 쏘베트동맹과 협력할 온갖 가능성을 파탄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사업에 대하여 적의를 표시하고 있다. 왜 그러나하면 지금에 있어서는 쏘베트동맹과의 협력이 없이는 어떠한 중요한 국제적 문제들이라도 결정될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토대위에서 견고한 평화가 보장될수 없기 때문이다.

쓰딸린대원수는 미 영 지배층들이 어째서 쏘베트동맹과 협력하기를 원치않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은 해설을 주었다. 즉

「문제는 미국과 영국에서 침략정책의 선동자들이 쏘련과 타협하며 협력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있다. 그들에게는 타협을 파탄시키며 쏘베트동맹에게 죄를 전가시키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쏘베트동맹과의 협력의 불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협과 협력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타협과 협력에 파탄한 담판이 필요한것이다. 새 전쟁을 방화하려는 전쟁방화자들은 쏘련과의 타협 및 협력을 가장 두려워한다. 왜 그러나하면 쏘련과의 타협정책은 전쟁방화자들의 진지를 붕괴시키며 이러한 량반들의 침략정책으로 하여금 아무대상도 없는것으로 되게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성립된 타협을 파탄시키며 쏘베트동맹과 함께 그러한 타협을 작성한 자기들의 대표를 부인하며 또한 유엔규약을 위반하면서 문제를 안전보장리사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보장된 다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유리한것을 전부 「증명」할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쏘베트동맹과의 협력의 불가능성을 「립증하며」 새 전쟁의 필요성을 「립증하며」 그리하여 전쟁조발의 제 조건을 준비하기 위한것이다. 미 영의 현하 지도자들의 정책은 침략정책이며 새 전쟁방화정책이다.」

제二차세계대전의 종말후 미국과 영국의 지도층은 다른나라들에 대하여 자기의 제국주의적 지배권을 강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세계반동의 요색으로 되었다. 미국의 지배층은 지금 새 세계전쟁을 준비하는 선두에 나서고 있으며 군비확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각처에 군사기지를 건축하고 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마샬안」의 도움을 입어 서구라파제국을 노예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은 독일을 두 국가로 분할하며 백림을 두 도시로 분할할것을 욕구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및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파탄시키고 있다. 그들은 련합국지구를 붕괴시키며 그것을 자기의 제국주의정책의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른 어떠한 국가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 영의 지배층은 실지에 있어서는 침략목적을 가지면서도 마치 방위를 위하는듯이 서구라파국가들의 각종의 「동맹」 및 「뿔럭」을 만들고있다. 방위선언(防衛宣言)으로써 가장되어 있는 이 모든 「서구라파동맹」 「북대서양동맹」 및 「지중해뿔럭」은 실지에 있어서는 순전히 새전쟁을 준비하며 조발하기 위한것이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희랍 중국 및 인도네시아등에 반동제도를 부식하며 이를 후원하면서 각처에서 민주운동을 탄압하며 다른 나라들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새전쟁의 방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협소한 독점자본가층 및 미 영금융자본 거두들의 리익에 복무하고 있는 제국주의진영의 정책은, 견고하며 정당한 평화를 욕망하고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동경 및 희망과 근본적으로 적대되는것이다.

* * *

쏘베트동맹은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쏘련의 대외정책의 주요한 내용은 인민들의 견고한 평화와 주권을 위한 투쟁이다. 쏘베트국가는 자기의 모든 력사를 통하여 그의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철저함을 시위하였다.

쏘베트동맹은 닥쳐오는 제二차세계대전의 위협을 앞두고 집단적 안전보장의 체계를 조직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웠던것이며 또한 영 불의 지배층이 히틀러독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었던 「조정」 정책을 폭로하였던것이다. 쏘베트동맹은 만주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서반아에 대한 독이(獨伊)의 무장간섭과 결부하여 「불간섭」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히틀러독일의 아프리카 강점을 반대하였으며, 영불의 지도자와 팟쇼침략자들 사이의 음모를 폭로하였으며, 히틀러의 체코쓸로바키아 강점을 반대하여 싸웠다. 쏘베트동맹은 팟쇼침략자들에 대한 공박을 위하여, 항상 모든 민주력량의 단결을 쟁취하여왔다.

부르죠아국가들과 달라 쏘베트동맹은 반 히틀러련맹에 가입하면서도 자기의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

었다. 즉 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쏘베트동맹의 대외정책은 쏘베트정부가 제二차세계대전 전까지 실시하여온 그 정책의 필연적인 계속이었다.

로골화하여진 미 영제국주의가 평화사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하의 조건하에서 쏘베트정부는 쏘베트인민과 국제안전보장의 리해를 지침으로 삼으면서 여전히 꾸준하게 또한 철저하게 자기의 자주적인 쓰딸린적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쏘베트정부의 쓰딸린적 대외정책이 철저하다는 것과 또한 그 대외정책이 국제안전보장의 리해와 완전히 부합된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브·모·몰로또브)

쏘베트동맹은 견고한 평화와 모든 인민들의 안전을 지망하면서 이미 제二차세계대전시기에 일련의 국제적 협약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러한것으로써는 련합국기구규약의 토대로된 대 렬강사이의 협약이며 또한 독일문제에 관하여 얄타와 포츠담에서 채택된 쏘 미 영간의 협약이며 또한 일본에 대한 포츠담 특별선언이다. 그런데 이 선언은 카이로선언 및 얄타협약과 함께 원동에서 평화를 조정하기 위한 토대로 반드시 되어야하는것이다. 쏘베트동맹은 이 협약들에 의한 의무가 틀림없이 준수되며 실지로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수행될것을 주장하고 있다.

쏘베트동맹은 단지 얄타와 포츠담의 제결정을 수행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이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 영의 정책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들은 독일제국주의를 재생시키는 길에서 구라파에 새로운 불안의 책원지를 조성하며 독일의 린국(隣國)들에 대하여 새로운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영 미제국주의는 독일에 대한 그의 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히틀러주의의 지주로 되어있던 독일독점자본에 의거하고 있다. 서부독일 점령지대에서는 히틀러정체의 남은 활동가들이 산업과 행정의 지도적 부서에 또다시 등용되고 있다. 미 영의 정책은 독일의 서부지대를 구라파 침략의기지로 전환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 영때문에 독일 및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쏘베트동맹은 독일과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시급히 작성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들의 작성은 독일과 일본이 침략국으로 재

활(再活)되는 것을 용허치 않으며 이 나라들의 비군국주의화 및 민주화에 협조할 목적을 반드시 가져야한다. 쏘베트정부는 독일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독일군수산업의 가장 주요할 책원지인 루루산업지대에 대한 국제적 통제안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쏘베트정부는 일본의 군수산업의 완전한 방지를 주장하며 또한 일본에서의 군수산업재생을 용허치 않기위하여 적당한 국제적통제를 설정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쏘베트동맹은 독일과 일본인민들에게 자기의 평화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지어 줄것과 또한 독일과 일본에서 평화산업을 탄압하고있는 미 영의 정책을 반대할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쏘베트동맹은 민주화와 국제적 협력의 정신으로써 독일과 일본문제—전후평화건설의 중심문제들이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쏘베트동맹은 군비축소와 원자무기금지를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있다. 一九四六년에 련합국기구총회전원회의에서 쏘베트대표단수석 브·므·몰로또브동지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또한 련합국기구의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총회가 전반적 군비축소와 원자무기 금지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을 자기연설에서 제의하였다.

전세계의 인민들은 이 제안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제국의 대표단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할수 없었다 一九四六년十二월에 련합국기구총회는 가장서급히 전반적으로 군비를 축소시킬 필요성에 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때부터 二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정은 실현되지못하고 종이위에 남아있을 따름이다—이것은 우선 총회의 결정을 배반하고 로골적으로 자기나라를 일층 군국주의화하며 군비를 확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태도 때문인것이다.

一九四七년에 쏘베트동맹은 새 전쟁의 선전과 방화자들을 반대할 대책들에 관한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一九四八년에 쏘베트동맹은 군비축소에 관한 련합국기구의 결정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제의를 하였다—一년동안에 五대강국의 현존하는 무장력과 무장을 三분의一 축소시키며,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또한 이러한 대책들의 실천을 감시하며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통제기관을 안전보장리사회의 범위내에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쏘베트동맹의 이러한 제안들은 련합국기구의 영 미 다수파측으로부터 완고한 반대를 받았다 련합국기구의 영 미 다수파의 대표자들은 쏘베트동맹의 제안을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자기가 군비확장의 지지자이며 새 침략과 새 전쟁의 소격수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쏘베트동맹은 련합국기구를 파탄시키려는 미 영제국주의의 시도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 쏘베트동맹은 미국과 영국측에서 련합국 기구규약의 기본원칙을 깨뜨려버리며 안전보장리사회내에서의 대강국들의 일치가결원칙을 깨뜨려버리려고 시도하는 온갖 침해로부터 련합국기구규약을 옹호하고 있다.

파리에서 개최된 련합국기구총회 제三차회의는 미 영의 지배층과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의 앞잡이들이 평화의 원수이라는 것과 또한 그들은 실지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실현하기를 원치않으며 국제생활의 중요한 문제들의 정당하며 민주주의적인 해결을 반대한다는 것을 또한번 표시하였다.

* * *

국제정책에 있어서의 두 방향 및 두방침—평화와 인민들의 협력으로 향하는 쏘베트적 방침. 그리고 침략과 국제적 협력의 파괴로 향하는 제국주의적 방침의 투쟁은 전후의 모든 국제[illegible]에 집중되고 있다. 국제정책에 있어서의 두 방침의 이 차이는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원칙적으로 반대되는 본성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제도는 전쟁이 없이는 또한 타국령토의 강점과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압박이 없이는 발전할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체계의 발전은 공황과 군사적 파국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며 또 [illegible] 지적한바와 같이 「자본주의국가들의 발전의 불균형성은 보통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계적 체계내에 심각한 균형파탄을 초래하게되는 것이며 또한 자기에게는 원료와 판매시장이 덜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국가들의 그루빠가 보통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세를 [illegible]

하려는 시도를 무장력을 행사하는 방도로써 실시하게되는 것이다. 그 결과에 자본주의 세계가 두개의 적대되는 진영으로 분렬되며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독점자본은 자국내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만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또한 세계의 다른 나라 인민들을 노예화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독점자본을 위하여는 전쟁은 리익이 많은 사업이며 새 원료원천 판매시장 및 자본투자시장을 강점하는 수단이며 자기들의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도구로 되어있다.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는 전쟁이 가장 수입 많은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새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놀라울것이 없다」고 쓰딸린대원수는 말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가 청산되었고 확고부동한 토대로써 사회주의적 소유가 확립되었고 또한 공황과 실업자가 없으며 적대적 모순이 없는 쏘베트국가에서는 대외정치적 강점과 군국주의에대한 지망(志望) 및 전쟁 조발을 원래부터 알지못한다.

쏘베트동맹에서는 타인의 로력이 없이는 또한 대외적침략이 없이는 존재할수 없는 그러한 착취계급들이 청산되었다. 쏘베트사회는 레닌—쓰딸린당의 지도하에서 쏘련에 공산주의를 건설할 목적을 내세운 로동자 농민 및 인테리겐차들로써 구성되어 있다. 쏘베트동맹은 인민들의 형제적협력을 토대로하는 다민족사회주의국가이며 그는 배타적 대국주의를 알지못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압박 및 노예화를 알지 못한다.

쏘베트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는 그의 본성에 있어서 자유의 소지자이며 온갖 노예화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에게 속하여 있다. 쏘련에서 로동계급은 국제주의의 기빨밑에서 출연하고 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근로자들의 옳게 리해된 민족적 리해가 그들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적 리해와 부합된다는것을 항상 가르치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민족적 리기주의 및 정체 없는 세계주의와 아무러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않다. 국제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쏘베트동맹은 인민들의 민족적 리해와 그들의, 독립을 결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볼쉐위끼당은 제국주의적 강탈자들을 용서치않는 정신과 인민들의 평등 및 친선의 정신과 또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깊은 충성및 사랑의 정신으로써 인민대중을 일상적으로 교양하였으며 또 교양하고 있다. 쏘베트국가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지도적이며 인도적인 역할을 놀고 있는 레닌—쓰딸린당의 위대한 공적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쏘베트정책의 철저정과 불변성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쓰딸린동지가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평화정책을 실시할 능력이 있으며 실지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책을 위선적(偽善的)으로가 아니라 정직하게 공공연하게 결정적으로 철저히 실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쓰딸린선집 六권 二三九페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쏘베트인민들은 견고한 민주주의적 평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다. 「쏘베트동맹의 평화애호정책은 여떠한 잠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 정책은 우리인민의 근본적인 리해관계 및 긴요한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며 자기의 물질적 복리의 급속한 향상에 대한 그의 지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자기의 새롭고 문화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생활을 창조하는데 있어서의 쏘베트인민들의 거대한 요구로부터 나온것이며 또한 만일 침략자 도당들이 결박되어 있기만 한다면 쏘베트동맹이 이 모든 괴업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데 대한 우리인민의 깊은 확신으로부터 나온것이다.」(브·므·몰로또브「대외정책의 제문제」一九四八년판 二九페지)

* *

쏘베트동맹은 인민들이 견고한 전후평화를 지망하는데 있어서 그들 앞에 나서게될 제 곤난을 전견하였으며 평화를 위하여 꾸준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전후시기의 제 과업을 규정하면서 이미 전쟁시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것은 위대한 력사적사업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아직도 미래에 대한 견고한 평화와 유망한 안전보장을 인민들에게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제는 단지 전쟁을 승리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새 침략과 새 전쟁의 발생을 비록 영구히는 되지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장구한 사업

동안 불가능케 하는데 있다。」

민주진영의 선두에서 있는 쏘베트동맹은 이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 있다。쏘베트동맹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의도를 전세계 앞에 폭로하며 모든 진정한 평화애호자들을 단결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을 일방으로하며 전반적 평화의 강화를 옹호하는 세력을 타방으로하는 두력량 사이에 분렬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평화와 민주의 력량이 나날이 장성하며 강화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전쟁방화자 즉 군비확장과 원자무기를 지지하는 자들의 고립화가 강화되고 있다。

「새전쟁방화자들이 전세계에서 수백만의 소박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떨어져 나가며 또한 이 량반들의 국제적 고립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면 될수록 이 량반들은 더욱 더 소란을 일으키게 될것이다。이와 동시에 평화와 민주를 지지하는 진영 즉 그의 선두에 쏘베트동맹이 서 있는 국제진영은 위대한 불패의 력량으로 되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브·몰로또브)

전후시기는 민주진영의 장성과 강화의 시기이다。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이 얻은 전세계사적 승리와 전후 인민경제의 새로운 강력한 향상은 쏘베트동맹의 국제적 위신을 높이 향상시키었으며 국제문제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높이 향상시키었다。

쏘베트동맹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인민의 일층 높은 계단으로 향상된 사상 정치적 통일위에 의거하고 있다。그런데 내부적인 계급적 대립으로써 분렬되여 있는 자본주의 제국은 이러한 사상 정치적통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가질수없는 것이다。쏘베트애국주의로써 무장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쓰딸린적 지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써 [illegible]되여 있는 쏘련인민들의 친목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쏘베트국가는 가일층 장성하는 국가의 경제력에 의거하고 있다。전쟁후 쏘련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국가가 지도하는 인민경제의 전반적이며 부단한 향상과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인 쏘베트인민들의 문화가 나날이 장성 진전되고 있다。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쏘베트동맹으로 하여금 불패의 성새로 되게하고 있다。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쏘베트동맹의 한량 없이 장성된 비중과 또한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선 인민민주주의 제국과 쏘베트동맹을 련결하는 민접한 고리는 견고한 민주주의적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평화를 옹호하는 사업은 전세계에서의 민주력량의 장성과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인민대중의 열성에 의거하고 있다。

전쟁후 예속국과 식민지들에서 인민해방운동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전세계인구 二十二억 五천만중 十二억을 차지하는 아세아의 인민들이 움직이게 된것이다。

자본주의국가들의 민주력량은 테로와 탄압을 반대하여 제 곤난을 극복하면서 반동력량과의 투쟁속에서 장성하며 강화되고 있다。구라파제국에서 근로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있는 공산당들이 장성하였으며 강화되었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 공산당은 평화와 인민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민족적주권의 옹호에로 대중을 더욱더 동원하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을 반대하는 투쟁의 가장 중요한 과업중 하나는 불란서의 부름, 영국의 애트리 및 배빈, 독일의 슈마헬, 오지리의 렌넬, 이태리의 싸라가트와 같은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배신적 정책을 폭로하는 것이다。이 모든 우익사회주의자 및 그들의 동류배들은 사회주의적 언사와 가면을 쓰고 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비에 있어서 그들의 직접적인 보조자로 나서고 있으며 또한 로동계급의 대렬내에 분렬을 일으키며 그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평화의 원쑤들의 온갖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하며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인민들의 친선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민주진영은 공동적 원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 있어서 그의 단결성과 더욱 장성되는 리해관계의 통일을 시위하고 있다。

제국주의진영은 이와 다른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그의 토대가 더욱더 파탄되며 희망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 진영내에는 리해관계의 통일이 없고 여기에서는 리해관계의 투쟁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사이에 또한 영·미블럭과 서구라파 제국사이에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세계는 그 내부에 있어서 제국주의진영을 약화시키는 내부적 모순으로 인하여 더욱더 분열되고 있다.

자본주의제국에 있어서는 불경기가 확행하고 있으며 식료와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질적 임금이 저하되며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다. 구라파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후의 경제적 모순속에 더욱더 얽매어지고 있다. 「마샬안」은 구라파제국의 경제적 형편을 단지 용이케 하지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이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 독점자본가들의 노예로 되게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형편을 곤난케 하였다.

「…미국의 차관안(借款案)에 의하여 근자에 구라파자본가들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간 미국딸라는 구라파의 자본주의제국에서 산업의 진정한 향상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향상을 초래할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미국의 차관은 구라파제국의 산업중의 미국과 경쟁하게될 산업을 복구시키며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라파에서 미국상품의 일층 광범한 판매시장을 확보하며 또한 구라파의 인민자체의 리해관계는 고려치않고 이 나라들을 미국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독점자본 및 그들의 침략계획에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예속시킬것을 목적하고 있는 때문이다.」(브·므·몰로또브)

이 모든것은 자본주의 제국에서 국내정치적형편의 심각한 첨예화를 일으키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내의 현하의 상태는 자본주의 열강의 지배층이 자기의 력량과 가능성을 과대 평가하고 있음을 말하여준다. 그들은 전쟁을 원치않는 인민들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들의 흉악한 계획을 꾸며 내고 있다.

쓰딸린동지는 새 전쟁방화자들의 정책이 어떻게 종말되리라는 것을 미리 규정하였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오직 새 전쟁방화자들의 수치스러운 실패로써 끝나고 말 것이다. 새전쟁의 주요한 방화자인 쳐칠은 이미 자기민족과 전세계 민주력량의 신임을 상실하게 되였다. 다른 모든 전쟁방화자들에게도 이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전쟁의 무서운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 있으며 또한 평화를 고수하는 사회력량이 너무도 크기때문에 침략에 있어서의 쳐칠의 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며 그것을 새전쟁의 편으로 돌릴수없다.」 쓰딸린동지의 이 성명은 전쟁방화자들에게 칼날 같은 작용을 반드시 주어야한다는것을 몰로또브외상이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 제三十一주년 기념보고에서 지적하였다. 「이 성명은 현재 새 전쟁방화자들의 각종의 앞잡이들이 품고 있는 반 쏘베트적 음모가 쏘베트동맹 및 전세계 민주력량의 경각심 높은 감시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것을 세상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바이다. 그러나 인민들이, 어떠한 지배층의 맹목적인 도구로 되어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쏘베트인민의 리익과 국제안전보장에 대답하고 있는 쓰딸린적 대외정책은 한개의 기치이며 이 기치의 주위에 견고한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소박한 사람들의 수백만 대중이 뭉치고 있다.

三·一운동 三十주년에 제하여

최 창 익

— 一 —

三·一운동의 력사는 이미三十주년이 되였다。 과거 일제지배하의 조선에서는 三·一운동의 경험교훈을 대중속에 널게 선전할수있는 언론자유가없었다。 따라서 三·一운동의 력사적 의의를 옳게평가한 력사적문헌도 별로없었다。

八·一五해방이후 비로소 대변 성대히거행된 三·一기념행사를 계기로하여 관계한 기념론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三·一운동에대한 력사적교훈은 광범한 대중속에 침투되였다。

그러나 三·一운동을 평가(評價)하는문제에있어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정당한 견해를 가지지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어떤사람들은 三·一운동사를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던 三十三인의 력사로 대치하려고 시도하였다。 또 어떤사람들은 三·一운동사를 어느종교단체 지도인물들의 력사로서 전도(顚倒)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영웅이 력사를 창조한다。」라는 반인민적인 관념학파적 사가들이 항상 범하고있는 오유인것이다。

그뿐만아니라 반동사가들은 三·一운동이 일어난 원인에대하여 당시 조선사회의 식민지적, 정치 경제적조건과 광범한 애국인민들의 반일혁명정세를 사상(捨象)해버리고 소위 윌손의 「민족자결론」과 「파리강화회의」등 객관적 추동에의하여 일어난것같이 설명하였다。 이러한 론법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독립운동이 폭발된 주요한내재적조건을 부정하는반면에 윌슨 「민족자결론」의반동적기만성과 「파리강화회의」의 식민지재분할운동을 은폐하려는 제국주의의 대변자가 아니될수없는것이다。

일찌기 우리들은 인민사적(人民史的)립장에서 三·一운동의 력사적 의의를 고찰하였고 동시에 조선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 발전형태로서의 三·一독립운동을 평가하였다。

금일 우리들은 신민주주의사회의 높은력사계단에서 三·一운동 三十주년을 맞이하면서 거족적으로 전개되였던 三·一운동의 력사적 의의와 경험교훈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三·一운동사를 옳게 비판하기위하여 조선에대한 일본침략자와 시기를 같이한 조선인민의 반일운동사를 고찰하여야할것이다。

一八七五년에 조선 영종포수군(永宗島守軍)은 일본군함「운양호」를 포격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인민은 일본침략자와 항쟁을 개시하였다。 一八七六년 三월에 봉건량반관료들은 반국가적인 조일강화(朝日江華)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부산 인천 원산 三항을 개방하였다。 이때로부터 일본침략세력은 공공연하게 조선해안 도시에 투족하기에 이르렀다。

이래로 일본침략세력은 조선내에서 점차 확대되어왔으니 一八八二년 二월의 임오군란후에 「조일제물포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대하여 주병권과 시장개설권을 얻게되였고 一八八四년十월의 갑신정변후에 체결한 「한성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조관(朝官) 친일분자와 제휴하여 만청(滿淸)세력의 견제책을 피하여왔으며 一八九四년二월의 갑오농민전쟁시에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무장간섭으로써 진보적인 농민전쟁을 억압한후에 또 청일전쟁을 일으켜 조선내의 청국군대를 알록강밖으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청일마관조약」에서 「조선의 독립국임을 확인한다。」라는 구실로 종래의 조청(朝淸)관계를 청산케하고 조선에대한 특수적 지위를 전취하였다。

그후 一九〇四년 아일(俄日)전쟁에서 일본은 전승국의 지위로서 한국정부를 핍박하여 망국적인 을사(乙巳)五조약과 정미(丁未)七조약을 체결하고 드디어 一九一〇년八월二十九일에 소위「경술병합」을 단행하니 이로써 리조조선은 력년五백十九년으로 종막을 고하게되었다。

조선망국사에 비춰볼때에 一八七六년 「병자강화조약」으로부터 一九一〇년 (실제로는一九〇五년「을사五조약」까지)「경술병합」전기까지의 조선사회는 일본침략세력의 영향하에서 반식민지화의 력사적단계에 처하였었다。 이 시기내에서 리조통치계급은 사회발전의 질곡으로서 반봉건운동의 투쟁대상이었고 동시에 그들은 매국적 관료층으로서 애국인민의 적이었다。

력사적으로 말하면 리조중엽(임진왜란전후)이래로 쇠국민약(衰國民弱)의 장본인 로론(老論) 소론(少論) 남인(南人) 북인(北人) 등 소위 四색당쟁을 일삼아오던 봉건통치계급―량반관료배들은 리조말엽에와서 친청 친일 친아로 외국침략세력과 호응결탁하여 가렴주구(苛歛誅求)와 사권쟁세(私權爭勢)로 국가적도와 민족의 장래는 돌보지않고 내분을 확대하며 외모(外侮)를 조장하여 마침내 국가주권을 상실하고 민족의 자립을 실추(失墜)하였다。

이와같이 봉건조선이 반(半)식민지화의 력사계

단에서 망국전기에 일어난 애국운동은 당시의 주관적, 형편과 객관적 정세에 조응(照應)하여 반봉건(反封建) 반침략이 당면적 투쟁과업이 아니될수없었다。 력사적실례를 들어말하면 一八八二년에 폭발한 임오군란은 량반관료정치에대한 군대의 반항이었고 동시에 반일운동이었다。 一八八四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수구당파에대한 개화당파의 투쟁이었고 반청(反淸)운동이었으며 一八九四년에 전개된 갑오농민전쟁은 반봉건적 개혁운동이었고 반일반청적(反日反淸的) 반침략운동이었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이 실패된이후로 조선사회의 객관적정세는 더욱 불리하게되어 특히 일본침략세력은 급격한 공세로 한국정부에 향하여 「인재등용 재정정리 재판공정 군경(軍警)충실 학제완비」등의 미명하에 五개조를 제출한것을 비롯하여 내정간섭이 날로 더하였고 이어 조선내에서 아、일의 대립쟁세가 격화하게되니 다시 부패와 무능이 극도에달한 조선통치계급은 제 외국침략세력의 기복고하(起伏高下)의 추세에따라 친청 친일 친아의 분쟁으로 녕일(寧日)이 없었다。 드디어 아일전쟁을 계기로하여 일본이 동방패권을 잡게됨으로부터 조관정신(朝官廷臣)등 량반관료배들은 쟁선적(爭先的)친일로 매국노의 역할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주객관적 정세하에서 갑오이후에 전개된 애국운동은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으로부터 말할수있다。 즉 독립협회는 一八九六년에 설립되어 애국사상계발(啓發)운동을 전개하여왔다。 본래 독립협회가 창립초에있어서는 미국류학으로부터 돌아온 신사벌(紳士閥)의 영향을 받아서 숭미(崇米)경향이 없지않았으나 이 협회내에서 신진소장파들이 대두되고 로신사벌(老紳士閥)들이 물러간후로 내정개혁운동이 격화되고 반일, 반아운동이 전개됨을 따라 실효있는 애국단체로되었다。 그리하여 독립협회는 당시 아제국(俄帝國)의 마산조차문제도 반대하였고 일본침략자의 내정간섭도 통격하였다。 동시에 독립협회는 내정개혁을 강조하여 때로는 궐문전(闕門前)에 진집(進集)하여 조관정신(朝官廷臣)의 비행을 적발통격한일도 있으며 때로는 종로가상에 회집하여 정부의 부패무능을 탄핵(彈劾)한일도 있었다。 독립협회는 이같이 민중의 애국심을 발동하여 반인민적인 량반관료들과 투쟁하여오던차에 집정관료배의 탄압과 모해를 입어 한때에는 주요인물들이 경무청에 체포되었으며 또 한때는 리조의 특수상인인 보부상으로 조직된 반동파들과의 피의 투쟁을 전개한일도 있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결국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하에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독립협회의 뒤를 이어서 당시 애국지자들은 헌

정(憲政)연구회도 조직하였고 대한자강회(自强會)도 조직하여서 매국적 친일분자들로 조직된 일진회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결국 조관친일파의 탄압을 입어 해산되었고 그후 대한협회가 조직되었으나 역시 일본침략세력의 탄압으로 더 진전되지못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애국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애국단체의 조직과함께, 애국문화운동으로서 갑오직후에 간행된 독립신문을 비롯하여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등 애국신문과 자강회월보, 장학회월보등 애국잡지가 간행되었으나 이역시 일본침략세력의 강압으로 폐간혹은 반동기관지로 전변되고 말았다。

특히 강도 일본침략자의 강압하에서 一九〇五년 十一월十七일「한일을사五조약」이 체결되어 일제의 통감정치가 실시되고 一九〇七년七월二十일「한일정미七조약」이 체결되어 국왕의 양위를 선포하며 한국군대의 해산을 강행하니 이에 반대하여 군대의 반항운동이 격기하자 그에 호응하여 각지방에서 의병운동이 봉기되어 五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이와같이 망국전기에있어서 조선인민의 애국운동은 반(反)식민지화의 력사계단에서 반봉건 반침략운동의 력사적임무를 과감하게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당시 애국운동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조선사회의 력사계단과 주객관적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전략전술로써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지못하고 자연발생적인 비조직적 형태로써 기분적이며 관념적인 투쟁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반일 의병운동에서도 그러하였고 애국문화운동에서도 그러하였다。

그뿐만아니라 망국전기의 애국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은 독립운동진영내에 분파적 대립이었다。 즉 그때의 분파는 문자그대로 봉건적인 향토감정에서 생긴 지방적 분파이었다。 특히 기호파, 서북파등등의 호상대립반목은 소위 민족주의자의 진영내에서 긴 시간에 긍하여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분렬시킨 최대의 악현상으로 지속되었으며 이는 마땅히 우리들에게 아픈 경험교훈이 되어야할것이다。

(二)

一九一〇년八월二十九일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독점적 식민지로 전변되었다。 이때로 조선에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철두철미하게 억압적이고 략탈적이며 야만적이었다。

一九一〇년으로부터 一九一九년에 이르기까지에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대한 식민지정책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토지수탈과 정치적으로 무단정치와 문화적으로 노예교육이었다。

이시기에 있어서 조선에대한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정책은 종래 조선민족경제의 기본토대를 구성하고

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립법 사법 행정 군사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따라서 헌병사령관으로써 경찰부총감을 겸임케하고 각도 헌병대장으로 경찰부장을 담임케하여 헌병경찰의 군정제도로써 식민지 조선통치를 감행하여왔다。

이와같이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통치의 야만적 폭압수단으로 一九〇七년에 제정한 보안법채용을 비롯하여 一九一〇년八월二十九일에 발표한 제령(制令)출판법 집회취체법등의 악법으로써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고 망국전후기에있어서 전국적으로 발동되어오던 반일의병운동과 광범한 인민층으로부터 일어난 반일애국운동을 무력적 도살방법으로써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이 시기내에 있어서 조선에대한 일본제국주의의 교육방침은 노예화정책인 「교육령」을 발표하고 각종학교에서 조선력사 조선말 조선글등의 교수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민간경영의 사립학교와 민족대학의 설립은 불허하며 조선청년의 외국류학을 제한하고 로동자 농민의 야학을 금지하며 심지어 조선인의 과학연구와 국제문화교류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등으로써 야만적인 노예교육망을 확장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망국후 十년간에있어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자기의 상품수출지、자본투자지、원료채취지로서의 착취적 식민지화하여 왔고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서의 군사적 식민지화하였으며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는것과 조선인을 국외로 추방하는정책으로서의 이민책 식민지화를 강행하였다。

이제 망국적후에있어서 조선독립운동의 발전정세를 말하면 야만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사회조건하에서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농민과 로동자와 도시 및 농촌의 광범한 소생산자의 반일(反日)대중토대위에서 애국적인 지식층과 학생군중이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반일투쟁을 전개하여왔다。

당시 애국운동의 조류는 망국전후기에 일어났던 반일 의병운동이 비참하게 진압된후로 애국적인 계몽사상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어 반일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반일 반봉건적 독립운동의 전망을 촉진하여왔다。물론 이때에있어서의 애국운동은 로동자 농민의 경제생활투쟁과 굳은 련결을 가지지못하고 다만 지식층의 령역에 국한되었던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一九一四년에 발단되었던 제一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一九一七년에 위대한 로씨야사회주의十월혁명이 승리를 가져오게되자 마침내 세계자본주의체계는 붕괴를 개시하였고 따라서 국제혁명정세는 급격히 앙양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정세하에서 나라없고 자유없고 굶

었던 토지[illegible] 아울러 온갖 방법으로 조선민족경제의 파멸을 강행하여왔다。례를들면 「토지조사」(一九一〇년八월—一九一八년十一월) 즉 八년三개월에 긍하여 전국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조선의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미간지(未墾地) 관유지(公有地) 등 八백八十만 정보 五백十三결을 소위 「국유지」라는 명목으로 조선농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수탈하였고 그와 병행하여 一九一二년에 「조선민사령」「부동산등기령」「부동산증명령」등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특히 자본주의적 사유제에 의한 법률관념이 미숙한 조선농민의 토지를 교묘한 방법과 가렴잡세의 수단으로 무자비하게 약탈하였다。그뿐아니라 일본제국주의는 「지세증가정책」「고리대정책」「산미증식정책」「미곡염가정책」등 가혹한 약탈적 방법으로써 조선농민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수탈하였다。그결과는 一九一五년으로부터 一九一九년에 이르는 동안에 각층 농호의 증감(增減)적 경향을 대비하여보면 一九一五년에 자작농이 五七〇、三八〇호였던것이 一九一九년에와서 五二五、八三〇호로서 四四、五五〇호가 격감되었고 자작겸 소작농이 一、〇七三、八五八호였던것이 一、〇四五、六〇六호로서 二八、二五二호가 격감되었으며 소작농이 九四五、三八九호였던것이 一、〇〇三、〇〇三호로서 五七、六一四호가 격증되었다。

위에 인용한 숫자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토지수탈과정에서 자작농과 자작겸 소작농이 순소작농으로 급격하게 전락되어온 그 경향과 현상을 립증하는것이다。또 그 기간내에있어서 지주가 三九、〇四五호였던것이 九〇、三七六호로서 五一、三三一호나 즉 배이상으로 증가된 사실은 소수지주에게 토지겸병 및 집중되어온 현상을 증좌할뿐아니라 그놈 일본인 지주의 격증과 토지수탈의 중추기관인 동양척식회사의 토지수탈적 집중을 여실히 설명하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는 토지수탈정책과 병진하여 공업방면에 있어서 소위 「회사령」을 제정하여 조선민족산업발전을 억압하며 관세정책으로 조선인 상인에 대하여서는 제외국과의 무역활동을 제한하고 일본 본토내의 상품을 무제한하게 조선내에 수출하여 도시 및 농촌의 소생산자의 파멸을 촉진시켰다。동시에 식산은행 조선은행등 금융기관의 설치로써 조선인 자본가를 예속적으로 통제하였으며 전조선적으로 금융조합을 조직하여 반봉건적 방식으로 농업경제의 파산을 도모하였다。그리하여 조선민족경제는 여지없는 파멸상태에 직면하게되었던것이다。

이 시기내에 있어서 조선에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정치추향은 군국주의적인 헌병경찰제의 무단정치를 실시하였다。그리하여 소위 력대조선총독은 륙해군 대

주리고 헐벗고 망국노 생활로 갖은 박해와 온갖
모욕을 무한히 당하여오던 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근로인민과 애국지사들은 十년동안이나 망국노 생활
에 사무친 원한과 분노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왔
으며 따라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통치에대한 불갈은
증오심은 가일층 높아지고있었다。 그러던차에 一九
一九년一월二十二일에 덕수궁에 유폐되어있던 고종
이 일제의 모해를 입어 죽은 사실이 세간에 알
려지게되고 그보다도 동년二월八일에 일본동경에서
류학하던 조선류학생들이 집합하여 조선독립선언서
를 발표하고 시위운동을 진행한 사실이 조선국내에전
달되자 이에따라 곧 一반사회인심은 매우 긴장해
지고 반일기세는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없으리만
큼 고도로 앙양되었다。
이같은 주객관적 정세하에서 드디어 一九一九년三
월一일에 손병희 한룡운 리승훈등 三十三인이 조
선독립선언서를 공포하게되고 그날 서울시에서 三
十만 반일군중이 동원되어 독립운동시위행렬을 거
행하게되었다。이것을계기로 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시위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봉기하였
다。그리하여 三·一운동은 三개월간이나 계속되었고
이 운동에 참가한 동원수 一五○여만명
피살자 六、六七○명 피상자 一四、六一○명 투옥자
五二、七七○명동이었다。

그리고 三·一운동에 참가한 군중을 사회적
계급층별로 보면 당시 조선사회의 력사발전의 제약
성(制約性)에 의하여 그 주동적 역할을 논것은 농민
을 위시하여 로동자 소시민 학생등의 광범한 인
민대중이였으며 또 이운동의 준비과정에있어서의
지도층은 三十三인을 비롯하여 一부지식층이었다。
즉 三·一운동은 거족적으로 전개된 조선인민들
의 영웅적 해방투쟁이었다。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려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인민들의 장렬한 시위운동
은 료원의 불길처럼 나날이 확대되어갈뿐이었다。
일제의 헌병과 경찰의 총칼도 고도로 앙양된 인민
들의 애국적 투쟁심은 꺾지못하였다。오히려 일제의
야만적폭행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민들의 반항적 적개
심은 더욱 강렬하여졌다。따라서 이 운동은 국내에
국한되었던것이 아니고 연해주 만주 상해 일본등 해외
각지에서 장렬하게 전개되었던것이다。특히 만주지
역에서의 三·一운동은 一시에 그친것이 아니라 조국
독립의 무장투쟁에로까지 추진되었던것이다。이리하
여 三·一운동은 로씨아 十월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뒤를 이어 쏘련을 선두로한 세계무산계급 해방운동
의 영향밑에서 제국주의압박민족 해방운동진영내
의 한개대렬로서 반제투쟁임무를 리행함으로써 영
광스러운 력사를 가지게되었다。
이렇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三·一운동은

실패를보게되었다。三·一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구명
하여본다면、
첫째 제국주의시대에와서 식민지해방운동의 승
리적 보장은 무산계급의 령도적 역할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三·一운동시기의 조선무산계급은 식민지 반
봉건사회의 제약성으로부터 투쟁력량이 유약(幼弱)
하였다。따라서 당시 무산계급은 민족해방투쟁에있어
서 리론적 실천적으로 령도적 역할을 놀지못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三·一운동이 실패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볼수있는것이다。
둘째 三·一운동에 참가하였던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은 투쟁적이었으며 또 혁명적이었다。그러나
三十三인을 비롯한 지도층들은 지도력량이 극히
미약하였다。그들은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위
한 하등의 투쟁강령도 수립하지못하였고 하등의
지도력량도 조직하지못하였다。다만 三월一일에 한한
시위운동만을 계획하였을뿐이었다。그들은 무내용한
정의 인도의 술어만을 라렬한 공허(空虛)한 선언서
를 발표하고 어리석게도 적의 복마전(伏魔殿)인 왜성
대에 자진(自進)하였다。본래 三十三인을 위시하여
구성된 三·一운동의 지도층은 거의 전부가 소자산
계층의 지식분자들이었으며 거의 전부가 락후한 종
교단체의 지도인물들이였으며 또 그들은 구시대의
인도주의자들로써 비투쟁적이며 관념적인 독립운동

자들이었다。민족해방투쟁의 지도층의 이와
같이 부족한 조건은 三·一운동이 실패된 원인의
하나이었다。
셋째 일본자본주의는 제一차세계대전을 경유하면
서 전승국의 지위로부터 강대한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게되었다。당시 「파리강화회의」는 제국주의
의 국가들간에 있어서 식민지 재분할운동에 그쳤던
것이다。이러한 조건들은 객관적으로 식민지 해방운동
에 있어서 막대한 타격이었다。또 그는 三·一운동
이 실패된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이었다。
대체로 위에 말한 주객관적으로 여러가지의 불리
한 조건하에서 三·一운동은 비록 실패되고말았으나
그 운동의 성과는 후계단의 조선민족해방에 있어서의
력사적토대가 되었으며 커다란 추진력이 되었던것
이다。또 三·一운동의 성과는 지도층들의 힘으로
이룩되어진것이 아니었고 광범한 애국인민들의 영웅
한 투쟁으로 쟁취한것이었다。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는 三·一운동의 력사를 인민의 력사라고하며 따라서
이 력사적 의의는 가장 크다고하는것이다。

× × ×

우리들이 해마다 거행하는 三·一운동기념은 형
식적이아니고 과거의 투쟁경험을 현실투쟁에 련계
시키려는데 있는것이다。사회발전의 높은 단계에서
변변이 달라져가는 투쟁환경에서 력사적으로 제공

되는 투쟁경험은 고정적이아니고 항상 새로운 투쟁임무와 결부되어 발전적으로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三·一운동 三十주년을 맞이하는 금일에있어서 우리들의 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기본상 두가지로 말할수있다. 하나는 공화국남반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퇴시킬 문제와 민족반역자 리승만괴뢰「정부」를 타도하고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이고 다른하나는 공화국북반부에서 二개년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위한 건설적 투쟁이다. 이두가지 과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기발전도상에서 일상적 투쟁임무로 규정되고있다.

김일성수상은 공화국정강을 발표할때에 자기연설에서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는 전조선인민들을 정부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이며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되는 량군의 동시철거에대한 쏘련정부의 제의를 실천시키기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입니다」라고하였다. 또 이어서 「조선을 부강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로 건설하기위하여 정부는 일제시대의 노예적 식민지적 경제체계를 일소하고 또한 조선을 재식민지화 하기위하여 우리의 민족경제를 파괴하는 외래독점자본가들의 경제적 예속정책을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물질적 복리를 부단히 향상시키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및 민족적 독립을 보장할 오직 자주적인 민족적 인민경제체계를 수립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우선 조선을 해방시켜주었고, 조선민주건설을 위하여 진실한 원조를 주고있던 위대한 쏘련군대는 또다시 조선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급속히 실현하기위하여 一九四八년 十二월二十六일까지 조선국내에서 자기군대를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와 정반대로 八·一五해방이후 공화국남반부에 반동군정을 실시하고 조선에대한 식민지예속정책을 감행하여온 미제국주의는 조선땅에 자기군대를 의연히 주둔시키고 있다. 그로인하여 공화국의 국토완정은 지연되고 남조선의 인민경제는 파산되고있다. 그리하여 공화국남반부의 천수백만인민들은 미군의 비호하에있는 반동파괴뢰「정부」의 횡포와 략탈 박해와 기아의 비참한 재난에 봉착하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하에서 과거三十년전에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거족적투쟁을 전개하였던 三·一운동기념을 맞이 함은 더욱 거대한 투쟁임무를 가지게되는것이다. 즉 이는 인민의나라 공화국의 주위에 튼튼히 뭉치어있는 남북조선의 광범한 애국인민들로하

여금 반세기동안에 걸쳐서 조국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피흘린 혁명선렬의 전통을 이어 국토완정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위하여 최대의 결심으로 최대의 투쟁을 준비하도록 고무할것이다.

三

이제 우리들은 三·一기념을 맞으면서 민주조국건설에대한 최후승리의 신심을 높이기위하여 몇가지의 력사적사실을 다시금 대조(對照)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

다 아는바와같이 二十세기 十년대의 국제정세를 말하면 대체로 세계자본주의는 제국주의계단에 들어서게되였다. 따라서 제국주의 렬강의 식민지쟁탈운동은 가장 맹렬하였다. 특히 동방에있어서 로쇠한 봉건중국은 서구자본주의 렬강의 침략세력하에서 이미 국제반식민지화의 지위에 놓여있었고 봉건조선은 일본자본주의의 침략세력하에서 식민지적 운명에 봉착하게되었다. 이 시기에있어서 세계약소민족과 피압박계급의 처지는 비참하였다.

二十세기 二十년대의 국제정세는 세계자본주의가 사멸의 제국주의단계에서 급격한 몰락과정을 밟고 있었다.

특히 로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는 인류의 전도에 광명을 던져주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세계무산계급과 피압박민족은 쏘련을 선두로한 반제국주의의 해방투쟁으로부터 자기의운명을 개척하기시작하였다. 一九一九년에 조선의 三·一운동도 로써야 十월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영향하에서 세계적으로 궐기한 해방투쟁의 하나이였다. 즉 「十월혁명은 일개 신시대를 개벽하였고 식민지혁명의 시대를 전개하였다. 이 식민지혁명은 세계 각 피압박국가에있어서 그 무산계급과의 련맹중에서 또 무산계급의 령도하에서 진행되었다. 평온무사하게 착취하며 압박하던 식민지와 부속국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무산계급과 [illegible]의 시대와 무산계급령도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쓰딸린)

로써야 十월혁명이후로 세계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은 세계무산계급의 해방운동진영내의 일부분으로서 또 무산계급의 령도하에서 반제투쟁의 승리적 력사계단에 오르게되었다. 一九二〇년이후로 조선무산계급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진영내에서 리론적 실천적으로 주도적역할을 놀게된것은 결코 우연한일이 아니였다.

二十세기 三十년대이후로부터 八·一五전기까지의 국제정세는 팟쇼대 반팟쇼와의 [illegible]었다. 다아는 바와같이 一九三一년 九월十八일 일본제국주의는 중국만주를 공략하였고 一九三三년에 독일파시스트는 정권을 탈취하였고 一九三六년에 서반아 후랑코는

앙
양되었다。 一九二九년이후로 세계경제공황의 계속
적(繼續的)심각화와 자본주의의 불균형성으로부터
히틀러정권의 출현과함께 파시스트의 야만적 침략전
쟁의 발호에 따라서 세계제국주의의 침략자들은
언제나 패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력사가 다시금 우
리에게 설명하고있다。
이제 우리들은 三·一운동 三十주년을 맞이하면서
력사가 가르치는대로 인민이 요구하는대로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은 공화국남반부의 인민들의 애국
투쟁과함께 중앙정부가 내세운 二개년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하
여야하겠다。
一九四一년이후로 쏘련을 선두로한 세계반팟쇼 전쟁
은위대한 승리로 총결하게되니 드디어 세계파시스트의
파멸과함께 독이일제국주의는 멸망하였고 영불제국주
의는 극도로 쇠약하여졌으며 미국제국주의는 고립상
태에 떨어지고말았다。
八·一五해방이후로 미제국주의는 사멸기(死滅期)
의 력사계단에서 그 잔명을 연장하기위하여 소와
트루맨주의와 마샬안으로 히틀러의 길을밟고있다。그
오늘 미제국주의는 희랍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중국
과 남조선에서 식민지화의 예속정책을 감행하고있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미제국주의가 자기의 무덤
을 파는 최후의 발악이 아닐수없다。
현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있다。 금일 희랍의 해방
군은 왕당과시스트를 제압(制壓)하고있다。 인도네시
아의 해방군은 나날이 장성되어있다。 린방(隣邦)중
국의인민해방군은 반동장개석정권을 타도하면서 자주
독립의 민주전국을 실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의 남반부에서 광범한 애국인민들은 평화적
시위운동으로부터 인민항쟁에로, 인민항쟁으로부터
무장투쟁에로 조국독립을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정세 하에서 미국의 트루맨주의와 마
샬안은 세계도처에서 타격당하고 미제국주의의 추
종자들은 나날이 패배되면서있다。 즉 一九一七년 로
씨야十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준이후로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은 언제나 승리를 쟁취하여
왔으며 또 더 큰 승리를 쟁취하고야말것이다。
오늘 三·一운동 三十주년을 맞이하는 남북조선
의 광범한 애국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들고 더욱 힘있게 싸워나가야할것이다。
력사가 가르치는바와같이 최후의 승리는 인민의것
이다。

내전을 개시하였고、一九三六년에 이태리파시스트는
에치오피아를 침략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독이일(獨伊日)파시스트의 급속
한 장성과、광포한 침략성을 설명한것이 아니될수
없었다。그도 오히려 부족하여 일본제국주의는 一
九三七년여름에 중국본토침략을 재발동하였고 독이
파시스트는 一九三八년가을에 오지리 체코슬로바끼
아 파란등 여러나라를 강점하고 영불(英佛)과의 전쟁
과정에서 불란서를 강점한후 一九四一년六월二十二일
사회주의 국가쏘련을 배신적으로 진공하였다。이것은
곧 제국주의체계의 최후적파멸을 상징하는 파시스
토의 최후적포악이 인류를 위협하던 력사계단이였
다。그러나 이시기에있어서 독이일파시스트의 무장
진공하에있던 중국 서반아 에치오피아등 여러나라
외 인민들은 반팟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이는
곧「평온무사하게 착취하며 압박하던 식민지와 부
속국의 시대는 이미지나갔다。」라고한 사실을 피의
투쟁으로 립증하는것이 아니될수없다。특히 히틀러
독일이 쏘련진공과함께 위대한 사회주의국가 쏘련
이 직접으로 반팟쇼전쟁에 참가하게되자 세계반팟쇼
전쟁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위대한 쏘련군대는 조국전쟁과정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하여 一九四三년에 쓰딸린그라드에서 히틀러
독일의 三十만군대를 소멸하고 그뒤를 이어 백전백
승의 태세로 쏘련국토내에서 독일파시스트군대를
전멸한후 백림을 향하여 진공을개시하였다。따라
서 쏘련군대의 예봉이 향하는곳마다 히틀러군
대는 붕괴와 소멸을 거듭하였다。그리하여 위대한 쏘
련군대는 一九四五년五월二일에 파시쓰트복마전(伏
魔殿)인 독일백림을 점령하고 히틀러독일의 철제
하에서 신음하던 동남구라파의 여러나라민족과 독
일국토내의 천백만인민을 파시스트침략전쟁의 재난
중에서 구출하였다。
一九四五년八월九일 위대한 쏘련군대는 대일선전
을 단행하고 일사천리로 중국만주와 조선에서 일
제의 백만대군을 격파하고 동十五일에 일본으로 하
여금 무조건항복을 선포하게하였다。그리하여 위대한
쏘련군대는 조선과 중국을 비롯하여 아세아지역에
서 여러나라민족과 수많은 근로대중을 일제의 철제
하에서 해방시키었다。
상술한 바와같이 력사는 우리에게 말하고있다。즉
조선이 망하던 시대는 세계자본주의가 강성하였고
자본주의의 렬강의 식민지 쟁탈전은 격렬하였다。따라서
세계약소민족의 처지는 비참한 환경에처하여 있었다。
조선三·一운동이 폭발되던 시대는 로씨야十월
혁명의 위대한 승리로부터 세계자본주의 체계는
붕괴하기시작하였고 쏘련을 선두로한 세계무산계급의
해방운동과 세계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은 급격히

춘가파종기간에 있어서

— 우리 당원들의 과업 —

김 정 일

토지개혁후 공화국북반부의 농업생산은 매년증가되어 一九四六년도의 미 잡곡생산에 비하여 一九四七년드에는 황해 평북일부지방에 수해가 심하였으나 一〇九%로 증가되었으며 一九四八년도에 와서는 一四〇·六%로 급격히 장성하였다。이리하여 일제당시 최고생산수준에 도달하였던 一九三九년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도에는 파종면적에있어서 一〇三·八% 곡물수확에있어서 一一〇·四%로 증가되어 식량이 부족하던지대로부터 공화국북반부는 능히 자급자족할수있는 지대로 전변되였으며 여유있는 지대로 지향하고있다。

과거 三년동안 농업생산부문에서 얻은 승리적 성과는 농촌경리의 급진적 향상과 아울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이 보장되어 인민경제부흥발전을 국가계획보다 넘쳐 완수할수있는 식량조건을 지어주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튼튼한 식량토대를 쌓아주었다。

이상과같이 공화국북반부에 있어서 농업생산량이 급속한 속도로 상승되고 있는것은 어데 기인한것인가?

주지하는바 이것은 우선 위대한 쏘련군대가 조선을 일제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아니라 조선을 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국가로 부흥시키어 주기위한 온갖 방조를 준데있다。

쏘련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조선인민들에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인민위원회를 수립할수있는 정치적자유를 부여하였으며 일제가 강탈하였던 모든 산업, 운수 은행 기타 기관들을 조선인민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민족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여주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우리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을 수반으로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력사적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조선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되어있던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숙청하여

지주의 압박과 기아에서 헤매이던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분여하여 주었다。

인민정권은 과거 三년동안에 토지개혁으로부터 출발하여 제반민주개혁을 수행하면서 농민들의 재고된 애국적열성과 증산의욕에서 나오는 창발력을 옳게 조직하여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온갖 시책을 다하였다。

첫째 인민정권은 일제의 략탈정책과 지주의 착취로써 극도로 황폐된 농토를 복구하며 한발과 수해를 방지하는 시책으로 관개수리공사와 하천정리사업들을 거액의 국고금을 투하하여 실시하였다。

三년동안에 걸친 관개수리공사의 결과는 二九、八八四정보이상의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개변시켰으며 그중에서 七、九五五정보의 밭을 논으로 변환시켰다。하천정리사업에서는 제방공사와 호안공사를 시공하여 四一、九一一정보의 농토를 홍수해의 피해로부터 방지하였으며 이 공사로 인하여 一、五二八정보의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소생시켰다。

둘째 인민정권은 일제가 파괴한 산업 운수기관을 복구부흥시키며 농업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주었으며 농산부문에 소요되는 화학비료는 해마다 증산하여 一九四七년보다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二〇%로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五〇·八%로 매개 농호에 증배하여주고있다。뿐만아니라 농구 농약을 생산하여 지장없이 보장하였으며 빈농민들의 영농조건을 지어주가 위한 고려로써 국가보유의 우량종곡과 화학비료를 대여(貸與)하는등 온갖 시책을 다하였다。

셋째 인민정권은 락후한 영농법을 퇴치하고 과학적농업생산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시험장 종축장 종묘장들의 사업을 확장하여 직접농민들의 농업증산사업을 도와주고있다。과거 일제는 이러한 기관들을 농민들의 식량과 원료를 략탈하는 수단으로 하였으며 농촌경리발전에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못하였던것이다。그러나 인민정권하에서 이 부문의 일군들은 직접 농촌에 들어가서 농업기술을 널며 선전보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열성농민 七六、三一五명에게 직접 영농기술강습을 주어서 이들로하여금 전체농민들에게 전습을주며 이를 농업생산에 적응시키도록하고 있으며 종자 종축 종묘등 우량종을 농촌에 보냈으며 퇴화된 종자들을 경신시키는 사업에 많은 방조를 주고있다。

이외에도 인민정권은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은행을 설립하고 농민들의 관개시설 토지개량 비료 농구 농우 기타 공동리용시설등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이상과같이 인민정권은 토지개혁후 농민들의 생산력을 조장시켜주기위한 온갖 시책을 다하여 오늘의 발전을 쟁취할수있는 기본적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당은 북조선에서 실시한 제반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화하며 락후하고 기형적이였으며 파괴되었던 조선 산업을 부흥하고 농촌과 도시인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충족시키며 부강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한 자립경제 건설투쟁에서 인민정권의 정확한 시책을 받들어 농민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교양주며 로동자농민의 굳센 단결을 지어주었고 우리당원들은 인민가운데서 가장 선봉적모범을 보이어 전체 인민들을 곡물증산에로 고무동원시킴에 결정적 역할을 놀고있다。

우리당은 토지개혁후 민주건설을 파탄시키려는 온갖 원쑤들의 요언과 음모를 인민들앞에 폭로분쇄하면서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토지개혁의 첫해에 원쑤들은 「토지 빼앗기였다고 슬퍼말고 토지받았다고 기뻐말라」는등 요언을 돌리어 춘기파종사업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우리당의 전신당은 적들의 요언을 제때에 군중앞에 폭로 분쇄하면서 토지받은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을 높이어 춘기파종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하였다。

토지개혁의 첫해에 농민들의 애국적인 증산 성과는 一九四六년수확고를 국가예정보다 증가시키어 국가에 납부한 세곡은 예산량보다 一一・八%를 초과하여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 부흥발전에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식량을 보장함에 성과를 쟁취하였다。

一九四七—一九四八년 두해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인민경제계획을 농업생산사업에서 보장하기위하여 우리당원들의 역할은 조국과 인민앞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一九四八년도의 다수확 농민들은 대부분 우리당원들이며 모두 우수한 창발력을 발휘하여 경종법을 개선하여 평균수확고에 대하여 三〇—四九〇%까지 제고시키고있다。이와같이 우리당원들은 실지 생산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들앞에 선봉적 역할을 놀았으며 인민들에게 경제건설의 자신성을 북돋아주었다。

지난 두해동안에 실시된 인민경제계획실시에서 우리당이 인민정권의 시책을 옳게 협조하였고 농민들의 애국적열성을 증산에로 동원시키는 주동력이 되어 곡물증산에서 얻은 승리적성과는 인민경제건설의 식량조건을 보장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의 一九四九—一九五〇년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할수있는 식량조건을 지어놓았다。

× × ×

一九四九—一九五〇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은 농산부문에 있어서 一九五〇년에 가서는 一九四八년도에 비하여 총 파종면적은 一・九%가 증가되며 그중에서 미곡 파종면적은 五・五

%를 공예작물은 五二・六%를 증가시키어 그 수확고는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미집곡은 七・九% 면화는 五八・四% 아마 五三・八% 대마 六五・八% 연초 七九・六%를 각각증가하여 二개년동안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량곡을 여유있는 지대로 완전히 전변시키며, 경공업 섬유원료를 국가요구에 충족시키는데 있는것이다。

一九四九년도 춘기파종준비사업은 방방곡곡에 벌어지고있다。금년도 농업증산부문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농민들은 농업발전에대한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있게 완수하여 원료와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며 공화국의 튼튼한, 식량기지를 축성함으로써 국토의 완정을 촉진시키며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하는 구국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김일성동지는 一九四九년을 맞이하는 신년사에서 말하였다。공화국 북반부의 전체농민들은 김일성수상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새 출발로되는 춘기파종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 공화국 인민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가지고있다。

이미 우리당 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는 一九四九년 농업증산준비사업에 대한 구체적과업들을 지시하였던것이며 농촌당단체와 농촌당원들은 이 과업을 받들어 논에서 一五〇% 밭에서 二〇〇%로 각각 평균수확고보다 증산하기위한 온갖 준비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였으며 진행하고있다。이결과는 추파맥류파종은 계획의 一〇〇・二%로 一九四七년 파종에 비하여 一一一%로 증가되었으며 추경사업은 국가계획의 一〇一・六%로 一九四七년 추경에 비하여 三九八・七%로 확장하여 단위당 생산을 제고시킬수있는 초보적과업들을 수행하였고 종자교환사업과 비료준비등 사업은 작년에비하여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우리당과 우리당원들은 과거 두해동안의 경제계획실시에서 고귀한 경험을 얻었으며 실천에서 인민들앞에 검열받았으며 당의 위신은 더욱 제고되였다。우리당원들은 이 경험을 옳게 살리지못하고 과거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심을 가지고 춘기파종사업에 충분한 당적고려를 돌리지못한다면 이미 얻은 승리에 머물어 있을것이며 높은 생산을 보장하지못하는 원인으로 될것이다。우리당원들은 금년도 농산부문에서 보장할 국가예정숫자가 헐한 숫자가 아니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만일 一九四九년 춘기파종사업에서 국가계획을 보장하지못한다면 一九五〇년 계획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데대한 높은 경각성을 돌리어야한다。

一九四九년 총 파종면적은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〇·八%를 제고하며 그중에서 화곡작물은 미곡 四·五% 대두 一七·五%를 각각 파종면적을 증가시키어야하며 공예작물은 면화 五一·五% 아마 六六·六% 대마 二二·一% 연초 二七·四%를 각각 파종면적을 증가시켜야한다. 이상의 국가파종계획을 춘기파종사업에 있어서 적지적작원칙하에 진행하여 수확고를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미곡은 四·四% 대두는 二六·五%를 화곡작물의 총수확을 一·八%를 초과생산할것이며 공예작물은 면화 三五·二% 아마 一〇八·二% 대마 三六·七% 연초 五五·六%를 각각 초과생산하여야한다.

춘기파종사업에 있어서 우리당원들은 이상의 국가계획을 넘쳐 보장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매개 농민들로하여금 한평의 땅이라도 더 확장하며 륜작관계와 토질을 고려하여 토지리용률을 고도로 높일수있는 파종계획을 실천하도록 하여야한다.

둘째로 공예작물을 적작지대에 파종하도록하며 면화는 국가계획을 받들어 적작지대에 집중재배하며 면화전문재배농가를 설정하여 단위당생산을 고도로 높이어야한다. 유지원료로 특히 국가에서 요구되는 대두는 작년도에 비하여 一七·五%가 파종면적이 확대되는바 황해도 평남일부지방에서 과거에 농민들의 인습상 맥류의 간후작에 팥 녹두 등을 간후작으로 파종하던것을 콩으로 파종하도록 하며 기타 지방에서도 지질을 보아 잡곡중에서 콩으로 파종하는 사업이 있어야한다. 피마자는 귀한 윤활유의 원료로되는바 매개 농가에서 책임적으로 재배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

셋째로 춘기파종에서 단위당생산을 높이는 온갖 조건들이 지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파종적기를 놓치지말며 다수확선진농민들의 영농법을 채택하는 경종법의 개선이 있어야하며 한발 수해등 자연조건을 극복시킬 대책들이 보장되어야한다.

× × ×

공화국북반부의 농민들은 정치적으로 각성되었고 경제건설사업에서 더욱 우리당의 정치로선의 정당성을 알고있으며 공화국 중앙정부 주위에 집결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원들앞에는 군중을 이끌고 선진적으로 앞서나가며 보다 높은 정치공작을 옳게 전개하여 농민들의 제고된 애국적열성을 춘기파종사업에 조직동원시키는 선봉적역활을 수행할 정치적과업들이 제기되여있다.

첫째 농촌당단체와 매개당원들 앞에는 춘기파종사업과 농촌 정치사업을 옳게 결부시키어 토지받은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어주며 공화국인민들의 새 기풍을 북돋아 주어야한다.

우리당원들은 농촌의 선전실 구락부 및 개별적 농가에 모이는 농민들까지 상대로하여 공화국중앙정부의 정강 및 국가시책들을 해설하며 동시에 공화국남반부의 정치정세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선전자가 되어야하며 직관적 선동공작등을 조직하여야한다.

지주들의 압박과 착취밑에 살던 해방전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상기시켜주며 오늘의 공화국 남반부인민들의 미군주시철퇴와 리승만 리범석 매국도당들의 괴뢰정부타도를 위하여 공화국기치를 높이들고 투쟁하는 무장항쟁등 구국투쟁의 구체적 사실들을 군중속에 해석하여 적에대한 경각성과 적개심을 높이어 주어야한다.

동시에 공화국북반부에서 공화국중앙정부 정강을, 하루바삐 전조선적으로 실시시키기위한 二개년 인민경제계획내용과 경제건설에서 로동자들의 생산투쟁을 알리어주며 다수확선진농민들의 영농에서 얻은 구체적사실들을 정치공작에서 옳게 군중속에 반영시킴으로써 경제건설과 국토완정에 튼튼한 자신성을 주입시켜 주어야한다.

우리당원들은 농촌정치공작에서 농민들에게 과학지식을 주입시켜주며 봉건유습을 청산시키기 위한 온갖 정치 문화사업을 생산사업과 반드시 결부시키어야할것을 강조한다.

농촌당원들은 춘기파종기간에 『일상적으로 군중과 련결을 가지며 비당원군중속에서 당의 영향을주며 인민정권의 정책과 결정을 해설선전할것』(당규약 제七조중)에 대한 당원의 의무를 준수할것이다.

둘째 우리당원들은 춘기파종사업을 통하여, 농촌리(동) 인민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이 신속하게 성과적으로 실행되도록 백방의 협조를 다하여야한다.

과거 경험에서 본다면 우리당 일부 농촌세포에서는 리(동) 인민위원회사업을 협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당정치사업을 내던지고 직접 인민위원회사업을 대행한 결과에 도리어 리(동) 인민위원회 역활을 높이지 못한 사실들이 있었던것이다.

농촌 리(동) 인민위원회는 인민정권의 기초적기관이며 국가법령을 직접농민들과 련계를 가지고 집행한다.

농촌 리(동) 인민위원회는 자기에게 부여된 춘기파종의 실행정형을 통계하며 검열하며 제때에 시정하며 국가에서 배급하는 화학비료 기타 농업자재를 옳게 배급하며 국가 로력동원사업의 집행등 춘기파종기간중에 허다한 사업을 집행하게된다.

매개 당원들은 리(동) 인민위원회결정과 지시를 농촌 군중단체속에서 해설하며 솔선 실행하여 매개 농민들로 하여금 국가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양주며 인식시키어야한다. 우리당세포와 당원들은 인민위원회사업을 대행하는 오유를 범하지 말기위하여는

매개 당원들은 군중속에서 모범이되며. 군중속에서 군중을 동원시키는 동력이 되어야한다는것을 잊지 말며 농촌세포사업과 리(동)인민위원회 및 사회단체사업을 혼동하지말아야한다。

셋째. 춘기파종사업을 군중속에서 조직하며 동원시키는데는 농촌사회단체들의 역활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우리당원들은 군중단체속에 당적영향을 주며 국가시책과 계획을 침투시키는것은 당원들의 임무로 될뿐만아니라 춘기파종사업을 승리적으로 완수케하는 담보의 하나로되는것이다。

우리당원들은 사회단체내에서 사회단체의 조직적규률을 강화시키며 근로의 정신을 고취시키며 일부농민중에 일하기싫어하는 부화현상에대하여 교양주며 견결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여 다수확영농법을 춘기파종사업에서 보장시키어야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농촌당원들의 영농계획과 실천이 증산을 가져올수있는 자신성이 보장되어야한다。례하면 적지 적작 영농계획밑에 공예작물 적작지대에 솔선하여 집중파종을 실천하며 1、우량종자선택 2、심경실시 3、밭이랑의적정 4、파종적기실행 5、전묘육성 6、자가생산비료와 화학비료의 준비 7、병충해 및 수해한발의 대책 8、로력축력의 계획등등의 증산의 조건들이 완비되어야한다。

농촌당원자체의 계획이 증산의 자신성을 보장하지못하고 막연하게 사회단체내에서 一五〇—二〇〇%의 증산을 호소한댓자 이는 헛소리로 되고마는것이다。

우리당원들은 농촌사회단체내에서 자기농사의 모범을 보이며 군중을 설복하며 고무시키어 생산사업을 성과있게 조직할줄 알아야한다。파종사업에 몇 사람이 모범을 보이였다고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얻게되는것이 아니다。우리당원들은 이 모범을 일반화시키기위한 사업을 가져야한다。면화를 적작지대에 집중파종한다는것은 농민도 유리하고 국가도 유리한것이다。 국가는 금년도에 면작농가를 위하여 기술적방조를 주기위하여 면작지대에 면화재배기술지도위원회를 조직하며 농가에 유리한 매상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농민들속에 선전을 옳게 한다면 능히 보장될수있는것이고 집중시킴으로써 면화단위당생산은 높은 숫자를 보일것이다。

우리당원들은 사회단체내에서 그 조직적역활을 높이어 군중적으로 동원실천하도록 구체적인 사업들을 각방으로 조직 전개할것이다。

넷째 춘기파종기에있어서 농민들사이에 자원적으로 조직되는 소겨리품아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것을 보장하는것은 적기작업과 작업능률의 제고및 생

산기술의 향상등 생산을 높이는데 있어서 막대한 역활을 노는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기계적으로 조직시킨다면 농민들사이에 자원적으로 조직되어 능히 극복하던 호상협조의 미풍이 없어진다。그리고 농민들사이에 동일할수없는 기능을 참작함이 없이 또는 축력농구등 사용에 있어서 물질적경제관계를 고려함이없이 소겨리를 일률적으로 조직함으로 결국은 근로농민들의 불평을사며 축력을 가진 농민이 소치기를 싫어하는 경향을 초래하며 농촌의 전달꾼을 조성시키는 악현상을 가져오는것이다。 축력동원조직과 소겨리반 조직에있어서 지난해 추경사업에 강원도안변군일부 함북온성군을 비롯하여 부분적지방에서 축력을 무상으로.동원시키며 기계적인 소겨리를 조직하였다。

황해도 봉산군에서는 산간지대의 축력을 무계획적으로 동원시키어 산간지대의 소 가진 농민은 자기추경도 못하고 평야지대에 추경을 하게되었으며 평야지대의 농민들은 전달을 놓수있는 조건을 지어준 현상을 가져왔던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당원들은 춘기파종기에 있어서 농민들의 자원적으로 조직되는 품아시 소겨리반내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며 품아시 소겨리의 합리성을 실지사업에서 군중앞에 본을 보이어야한다。

우리당원들은 소겨리 품아시 반내에서 반원들의 파종별 종류에 의하여 파종작업의 완급을 가리어주며 새로운 다수확영농법이 절지파종사업에서 같이 일하며 보장시킬수 있는것이다。

다섯째 매개 농촌세포에서는 춘기파종기간의 당적임무를 수행하기위한 분공을 옳게하며 춘기파종진행행정에서 자기사업을 자체가 비판적으로 돌이켜보며 매개 당원들 호상간에 당적과업을 수행하는 여부를 검열비판하는 사업이 있어야한다。춘기파종기간에 있어서 중간 결론를 가진다는것은 결점을 제때에 시정하는 구체적조건으로된다。농촌리(동)에서 진행되는 파종정형을 숫자적현상에만 눈을 돌릴것이아니라 질적으로 진행되는가를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한다。이러한 사업을 가짐으로써 우리당원들은 실지생산사업에서 자기의정치적사업수준을 높일수있으며 제때에 군중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정치일군이 될수있다。

끝으로 우리당원들은 춘기파종사업에 있어서 파종적기와 파종을 질적으로 보장시키어야 한다는것을 다시 강조한다。

작년도에 황해도에서 면화파종돌격운동을 당시의 구체적 기상조건을 고려하지않고 조직하여 당시 기상으로보아 五월一일전후가 적기이였던바 四월二十일전후로 파종돌격운동을 전개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았으며 평남도 대동군일부에서는 벼모판 파종을

례년보다 一주일간이나 늦게하여 이앙및 생산에까지 지장을 주었으며 감수를 보게하였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파종적기를 옳게 파악하여 적기파종을 한다는것은 다수확에 결정적역활을 한다。

또 파종을 질적으로하며 경종법이 옳게 되도록 백방의 주의를 돌리어야한다。 작년가을에 부분적 지방에서 추파맥류에있어서 점파식으로하였으나 이를 제때에 시정시키지못하였고 추경사업에서 허위적으로 진행한 곳이있다。 이러한 실례들은 금년춘기파종에서 다시 번복하지 말아야하며 「우리당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국을위하여 인민을위하여 당을위하여 헌신적으로일하며 자기의 전체력량을 조국창건에 바치는 헌신성을 가져야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한가한자는 우리당에 자리가 없습니다。」 (김일성)

제二차 순천군당대표회에서 우리당원들에게 준 이 말씀은 오늘에와서 춘기파종사업을 승리적으로 결속시키어 전체농민들을 당과 공화국중앙정부주위에 집결하여 국토완정에로 힘찬 전진을 보장하는 매개 당원들의 철두철미 실행할 당적임무로된다。

파멸하여가는 남조선괴뢰「정권」아 조작한 반동법령의 반 인민성

리 승 엽

조선인민의 철천의원쑤이며 미제국주의자의 주구인 리승만매국「정권」은 그가만들어진지 불과 수개월동안에 수많은 반역적 죄악들을 더욱 발악적으로 더욱 로골적으로 범하고있다。

매국「정권」은 미제국주의자의 군대를 우리강토내에 계속주둔시키는 구실을 만들기위하여 소위「한미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미제국주의자의 군사기지건설에 무제한한 권리를 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점령군의 군사주둔비용을 남반부 인민에게 넘겨씨울 목적으로 소위「재산 및 재정양도에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음 미국군대의 무기한주둔을 애걸하는 소위「미군계속주둔 요청안」을「결의」하였으며 또한 공화국 남반부의 온갖 경제적권리를 미제국주의자에게 팔아먹고 가혹한 내정간섭하에 남반부인민들을 식민지적 노예로 얽매어놓는 소위「한미경제원조협정」을 조작하였다。

매국「정권」은 이와동시에 수많은「법률」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공통한 목적은 인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인민들의 애국운동을 진압하며 민주세력을 란압함에였으며 인민으로부터의 경제적 수탈을 마음대로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등 매국노들의 리익을 보장하는 경찰테로제도를 유지강화함에있다。

매국「정권」은 이러한목적하에서 소위「대한민국헌법」을 바롯하여「국가보안법」「량곡매상법」등 기타 수많은 소위「법률」들을 조작발표하였다。

우리인민의 영명한 지보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수상인 김일성장군은 이번 조선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에서 아래와같이 말하였다。

「이 반동매국노들의 소굴인 남조선괴뢰「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을 팔아먹는 온갖 망국「협정」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여놓지않았습니다 이 반동괴뢰「정부」는 조선인민을위하여서 한가지문제도

해결하지못하였으며 해결하려고도 하지않으며 또는 해결할수도없습니다」。

김일성수상은 또 전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자기의 신년사에서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소굴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인 남조선괴뢰「정부」의 온갖 매국적 협정들을 청천백일하에 폭로시키며 괴뢰「정부」가 채택한 온갖「법령」들과 매국적「시정방침」들을 분쇄배격」하라고 호소하였었다。

실로 매국「정권」은 조선인민을 배반하고 미제국주의자의 리익에 복무하며 인민의 리익과는 하등의공통성도 없는 민족반역자와 매국노들의 리익을 위하여 존재한것이다 놈들은「협정」이니「법률」이니 하는 명목하에서 남반부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속박하고 학살과 테로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이것에 복종할것을 위협강제하고있다。

인민의 자유가 확보되고 권리가 보장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급진적으로 향상발전되는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은 이 매국「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무한히 격려하고 추동시키고있다 남반부인민들이 자기를 식민지적노예의 무권리와 부자유로써 얽어맨 리승만괴뢰「정권」의 모든 악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의 자유선거에 의하여 수립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강밑에서 국토를 완정하고 통일을 완성시킴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반부인민들도 북반부 형제들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주위에 튼튼하게 집결하여 김일성수상의 호소를 받들고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이다。

× × ×

이제 우리는 반역자의 소굴인 매국「정권」이 채택한 소위「법률」들의 몇가지를 추려서 그의 반동적 반인민적성격이 얼마나 로골적인가를 보기로하자。

첫째 소위「대한민국헌법」은 매국「정권」의 여러가지 반동적「법률」들의 기초가되며 매국노들이 남반부인민들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적 애국운동을 진압하기위한 총프로그람인것이다 소위「대한민국헌법」의 성격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두봉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에서의 연설에서「남조선「헌법」은 한사람의 근로인민의 대표 즉 로동자나 농민의 대표가없는 남조선반동「국회」에서 채택되였다는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여야하겠습니다 남조선「국회」는 완전히 지주와 자본가들로 구성되었으니 그성분으로보아 벌써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헌법을 제정할수없으며 실지에 있어 그렇게되었습니다……。

이「헌법」은 인민들의 어떠한 민주주의적 승리도 확고히하지않았을뿐아니라 도리어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투쟁을 말살하려는 도구에 지나지않습니다……오직 그「헌법」은 지주와 자본가들의 주권을 확고히 한것은 두말할여지도없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제 남조선괴뢰「정권」의 반동적 헌법의 몇부분만을 검토하여도 이와같은 반동적 반인민적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될것이다。

소위「헌법」제八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자본가와 지주의손에 주권이있는 국가들의 법률에는 기본적인 명제인것이다 또한 이것은 반동계급이 절대다수의 인민들을 기만하여 인민들이 자기의 리익에 복무하는것이아니라 반동적자본가와 지주의 리익에만 복무하도록 만들기위함에 그 목적이있는 것이다 「법률앞에 평등」하다는 선언의 본질은 그 법률의 성격 여하에따라 결정된다는것은 명확한것이다 만약 법률이 철두 철미하게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만들어진것이라면 인민들은 그법률에 의하여 평등한 권리가 생길것이요 그 법률이 자본가 지주의 리익을 위하여 지어진것이라면 그법률앞에 지주와 자본가는 평등할지언정 절대다수의 인민에게는 이 소위「평등」은 한개의 기만적이요 추상적인 공담에 불과한것이다 그런까닭에 매국노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있는 남조선에서는「법률앞에「평등」이란 결국 반동 매국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법률」에 남조선인민들이「평등」하게 의무를 질머지며 복종하여야한다는 그러한 기만적「평등」을 의미하는것이다。

소위「헌법」제九조는「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체포、구금、수색、심문、처벌과 강제로역을 받지아니한다」라하여 인민들의 신체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듯이 떠들어댔다 그러나 소위「법률에 의하지않고」라는 그「법률」이 매국노들의 경찰 및 테로단으로하여금 마음대로 인민의 인격적권리를 침해할수있게되었다면 이 조항은 인민의 신체에대한 자유는 완전히 경찰과 테로단에게 유린당하는「자유」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실제에 있어 남조선 인민들은 경찰과、테로단의 무제한적 학살밑에 신음하고있다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기위한 삐라한장을 산포하여도 무조건으로 총살을당한다 또한 이러한 야만적 파시스트적 학살이 뻐젓하게「법령」처럼 실시되고있다 그러한까닭으로 이「헌법」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라는것은 자본가 지주의 생명을 강력하게 보존하는데 소용되는것이요 로동자 농민 기타 전체근로인민들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는 하등의 공통점도 없는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기만적 문구

의라렬은 인민의 신체에대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박탈하는 죄악을 은폐하는 도구로 리용될뿐이다。

제十조에는『모든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날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자기주택과 거주에대한 권리라고는 조금도 보장되어있지않다 주택에대한 침입과 수색은 리승만 매국도당에게는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 조문은 순전히 자본가 지주 매국노들의 안정과 안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이요 인민에게 있어서는 매국『정권』의 경찰과 테로단의 무제한한 가택침입 수색등 야만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이다。

제十三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아니한다』라고 씩어있다 이 조항에서 매국노들이 만들어논 소위『헌법』의 본질이 더욱 명확하다。

매국노들은 소위『언론과 출판』의『자유』를 위하여 일본놈 이등박문이 조선인민을 자기들의 식민지적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인민에게 야만적 중세기적 방법으로 언론과 출판을 탄압하던 소위『광무신문지법』을 적용하고있는것이다 놈들이 리용하는 이 야만적 탄압법인『광무신문지법』에 의한 소위『자유』란 곧 식민지노예의『자유』그것인것이다。

그러면 매국노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어떠한 법률로 규정하였는가 소위『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천하의 악법인 일본놈들의『치안유지법』의 개조판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집회와 결사』의『자유』는 다름아닌 식민지노예의『자유』그것인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에 대하여 이『헌법』조항은 완전히 이것을 말살할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매국노들은 이 조항으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애국운동을 완전히 유린할것을 예견한 것이다 이것이 매국노들의『헌법』의 반동적 반인민적 정체이다。

매국노들은 다른 모든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도 이와똑같은 방식으로 규정지어 철저하게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할것을 자기의 프로그람으로 내세웠다。

소위『헌법』은 토지문제에대하여 한조목 썼는데 이에대하여 김두봉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에서 아래와같이 폭로하였다 『「헌법」제八十六조에는「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분배의 방법、소유의한도、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동파와 민족반역자들로써 구성된「국회」가 어떠한 종류의 법률을 제정할수있겠습니까? 반동지주들을 대표한「국회」가 소작제도를 철폐하는 법령을 제정할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연목구어와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주가 자기자신으로 토지를 농민들에게 준다는것을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헌법」은 토지에 대한문제를 산업국유화에 대한 문제와 한가지로 해결하지못하는 것입니다』。

남조선매국노들은 과연 입으로는『농지개혁안』이니 무어니 떠들어대도 농민의 리익과는 하등의 관련이없는 반동적 내용을 가진것을 류포하고있다 소위 유상매상 유상분배라는 반동적 시도위에서 토지문제에 대한것이 론의되고있을뿐이다 이것마자 지주들의 완강한 반대를 받아 유야무야에 사라지고 마는형편이다 매국노의 집단 한민당은 三년후라야 이 문제는 토의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언명하고있다 이『헌법』의 목적은 농민에게 유리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있는것이 아니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농민들을 기만하고 그 투쟁을 완화시키기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없다。

매국노들의 소위『헌법』은 소위『대통령』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집중하여 소위『대통령』리승만의 파시스트적 독재를 강화시키는데서 그 반동적 반인민적 성격이 또한 명확히 나타나고있다 이『헌법』에 의하면 소위『대통령』은『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나『국회』는 한번 선출한 후에는『대통령』의 지휘하에 들어갈뿐이요『대통령』의 아무러한 행위에도 간섭할수없으며 상관할수없다 이리하여『대통령』은 소위 초국가(超國家)적 존재로써 중요한 특권을 집중 장악하게 되어있다『대통령』은 소위 국무총리를 임명하는권리、각부 장관을 임명하는 권리、소위 국군을 통솔하는 권리、소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리、대사、감형、복권에 대한 권리、계엄령을 선포하는 권리、필요한 시기에는 독자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명령』을 발포하는 권리、소위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권리등등을 전부 장악하고있다 원래 이상의 제권리는 그 대부분이 인민에게 속한 권리인것이다 매국노들은 인민에게서 그 귀중한 권리를 전부 박탈하여 미제국주의자의 가장 충실한 주구이요 남조선반동파의 괴수요 인민의 가장 큰 원쑤인 리승만에게 장악시키는데 소위『헌법』의 중요한 목표를 두었었다 그리고도 놈들은 아주 파렴치하게 제一장 제二조에『대한민국의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하였다 이 얼마나 가증하며 기만적인가? 소위『대통령』의 무제한독재권을 극단적으로 표시한것을 들춘다면 우

리는 소위 「헌법」제六十七조를 보면 족할것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소위 「대통령」은 일체법률의 위에서도 어떠한 반인민적 범죄를 행하더라도 그것은 제재할수없으며 제한할수도 없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왜 그런고하면 소위 내란 및 외환이라는것은 「대통령」자신이 자신을 반대하는것인까닭에 「대통령」으로는 어느때든지 도무지 범할수없는까닭이다 매국노들의 소위 「헌법」의 반인민적 성격은 여기에서 더욱 은폐될수없는것이다。

요컨대 매국노들의「헌법」은 미제국주의자의 주구 리승만의 독재를 무제한으로 강화하여 그자의 마음대로 남조선을 자기의 상전에 팔아먹고 인민을 탄압하며 인민을 수탈하고 애국운동과、민주세력을 압살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이렇게 하기위하여는 장황한 공문구로써 시종일관 라렬하여 그본질을 조금이라도 은폐하려고 시도한것이다。

그러나 놈들의 기만은 미끄라지를 롱(龍)의 새끼로 속일수없는것과 같이 아무러한 효과도 가져오지못하는것이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애국적 열성으로 참가한 선거에 의하여 창설된 최고인민회의의 지의하에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은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민주의 사상의 결정」(김두봉)으로 조선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민주개혁의 모든 성과를 보장하고 공고히하며 남조선괴뢰「정권」을 타도하며 또한 그의 반인민적 반동적「헌법」을 폭로하는 무기인것이다 조선인민은 이 위대한 무기를 굳게쥐고 자기의 주권과 자유를 옹호하기위하여、민주주의적 통일국가를 완성하기위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정부주위에 굳게 집결하여 남조선반동매국「정권」을 타도할것이며 그 상전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화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매국노들이 인민을 탄압하고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운동을 진압하기위하여 어떠한 교묘한 수법으로「법률」을 조작하여 낸다하여도 그것은 인민들의 총명하고 예리한 판단앞에 여지없이 폭로되고있다 또한 그러한까닭으로 남조선 매국노들의 소위「헌법」은 인민을 위협하는 도구에서 인민의 증오와 분격을 폭발시켜 자기자신의 묘혈(墓穴)을 파는 도구로 변하고있는것이다。

× × ×

다음으로 매국노들이 조작해낸「법률」중 소위 「국가보안법」이란것은 어떠한것인가? 소위「국가보안법」은 남조선 매국「정권」이 조작해낸「법률」중에 가장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것의 하나인

것이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자유를 잔악하게 유린하고 일체 민족해방운동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 투옥 시키던 소위 「치안유지법」을 더욱 악랄하게 개조한것이다。

우리조국의 분할을 고정화하고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와 이 제국주의자의 창검과 딸라를 빌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댓가로 남조선의 경제정치의 온갖 권리를 미제국주의자에게 팔아먹는 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애국투쟁을 진압하기위하여 남조선매국「정권」이 일본놈들의「치안유지법」보다도 더 흉악한 「법률」을 만들어 내어서 인민과 민주진영을 탄압 학살하는 도구로 리용하려는것이 이 「국가보안법」의 목적인것이다。

미제국주의자와 매국노들은 三년동안 남조선인민들과 민주주의적 애국운동을 미제국주의자가 발표한 소위 「미군정포고령」제二호에 의하여 탄압하여왔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와 매국노들은 이 「군정포고령」제二호만으로는 장성발전되는 인민들의 독립과 통일과 자유을 위하여 료원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애국투쟁을 억누를수 없는것을 알게되었던것이다 여기에서 놈들은 이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은 만들어낸것이다。

소위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같다

「제一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一、수괴와 간부는 무기 三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二、지도적 임무에 종사한자는 一년이상 十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三、규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자는 三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이 「국가보안법」은 미국의 주구요 조선인민의 원쑤인 리승만 매국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로부터 일체의 결사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민들을 잔인하고 가혹하게 탄압하는것을 그 목적으로한것이다。

인민이 자기의 리익을 유린하고 지주 자본가및 매국노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매국「정권」의「헌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인민들의 가장 고귀한 자유인것이며 의사인것이다 또한 친일파 민족반역자등 매국노들의 소굴인 남조선 괴뢰「정부」를 반대하며、인민의 리익을 완전히 대표하고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인민의 정권기관을、자기의 진정한 정부로 받드는것은 인민들의 총체적인 의사이며 가장 고상한 권리인것이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매국정권은 어고귀한、인민들

의 의사와 고상한 권리를 탄압하기위하여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빙자하여 일체 인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있다。

이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리승만도배의 극소수 친일파 민족반역자등 매국노들을 제외하고는 좌익 중간 우익할것없이 애국운동에 참가한자는 그전부가 체포 투옥의 대상이된다 이것은 제二조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것이니 제二조에는 아래와같이 규정되어있다。

『살인 방화 운수 통신기관 주택 기타 중요건설의 파괴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자나 그간부의 직위에 있는자는 十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자는 三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八·一五이후 三년유여를 지나는동안 수많은 애국자를 허위와 날조로써 소위 살인 방화 기타 『죄명』을 뒤집어씌워 학살 검거 고문 투옥하던 그실례를 하나 하나 들것도없이 조금이라도 민주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애국운동에 참가한 인민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조항에 걸리지 아니할자 없는것이다。

그러한까닭에 『국가보안법』은 매국노들이 남조선 인민을 학살 탄압하기위한 흉악한 경찰 테로정책을 유지 강화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가장 현저한 증거의 하나이며 매국노들이 미제국주의자의 총검과 아울러 자기들의 학살정책이 아니고는 그잔명을 더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고백한 증명서인것이다。

이 「국가보안법」의 반동적 파시스트적 성격은 다만 광범한 인민대중의 증오와 반대를 받을뿐만 아니라 반동진영내부에서까지 반대받은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례컨대 미제국주의자의 주구로써 전미군정청 「민정장관」이던 안재홍은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한 법령을 제정해서 운영을 잘못하면 도리어 역효과를 자아내어 국정상 악영향이 미칠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신문작년十一월十九일) 라고하여 그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한독당 선전부장 엄도해도 「민주주의정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인권을 무시하는 법령이 있을수 없을것이다」 (서울신문작년十一월十九일) 라고 항의하였었다 반동신문 한성일보 작년十一월二十일부 사설에는 『이미 존속이 불필요하다해서 폐기해버린 보안법이 국가라는 관사를 붙이고 내용을 다소 바꾸어서 재현하려하는데 놀라지 아니할수없다』 라고 하였으며 또 서울신문 작년十一월十八일 사설에는 『본법의 적용범위가 대단히 광범한 만큼 본법으로 수많은 동포가 항상 불안공포에 헤매이고 국가보안법이 민심에 악

영향을 끼치게되지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라고 공격하였다。

만약 우리가 이 악법이 매국노들의 소굴인 소위 『국회』에서까지 격렬한 반대를 받아 五〇여명의 『국회의원』이 이악법의 『국회』 상정을 맹렬히 반대하였고 이것이 소위 『국회』에서 채택되던날 재석자 一二〇명중 반대자 三七명 기권자 六명을 낸 사실을 회상한다면 더욱 이 악법에 대하여 오로지 미제국주의자의 주구 리승만도배와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집단인 한민당계렬만이 자기의 잔명을 유지하기위하여 이 악법을 강제로 만들어낸것이 분명하다는것을 알수있는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민주와 독립을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민들은 이 악법으로 인하여 그 단결이 약화되거나 동요될수없다。 그것은 이 악법이 실시되자 작년 十二월一일부터 반동경찰에의하여 감행된 대검거에서 수천 수만의 애국자를 잃었음에 불구하고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과 단결이 더욱 치렬하여지고 공고화되는데서 명백히 볼수있다。

× × ×

남조선 매국정권이 그사이 만들어낸 소위 「법률」중에 가장 반동적이요 반인민적 내용을 가진것의 하나는 소위 「량곡매입법」이다 이 「량곡매입법」은 일제시대의 일본놈들이 조선인민을 강제로 수탈하던 소위 강제공출을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놓는동시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잔인하고 강탈적인 성격을 가진것이다 이 「량곡매입법」은 미제국주의자의 지령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 재생을 방조할 목적으로 더욱 악질적으로 규정실시된바 철두철미하게 경작자인 농민을 그수탈의 대상으로 한것이다。 이 악법의 제조문에 의하면 지주와 농민이 다함께 자가용 식량을 제외하고서 매국 「정부」에 매도하는것처럼 되어있지마는 기실에 있어서는 그 수탈대상이 순전히 농민에게 있는것은 은폐할수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농민에게있어서는 자가용 식량이란 전연 문제도 되지않고 지주의 소작료를 납부한 그잉여물의 거의 전체를 강탈당하게되며 그 반면에 지주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받아들인 소작료중 극히 소부분만이 이 「매입」의 대상으로 되게된것이 이악법의 내용인것이다。

매국노들의 소위 량곡 매상 배급 요강에 의하면 一九四八년도 추곡 매상계획은 그 전액이 七五〇만석인데 그중 지주로부터 「매상」하는 총량은 一四九만석이요 농민으로부터 수탈하는 총량은 六〇一만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남조선총농가 호수는 二〇六만여호인바 그중 지주는 五정보이하의 소유자까지 합하여 약二〇만호요 그 나머지 一八

六만호는 농민이다 그리고 경작지 소유별로보면 경작지의 六二·九%가 지주의 소유이며 농민의소유는 겨우 三七·一%밖에 안된다。

나아가 남조선의 현행소작료의 비률을 본다면 아무리 적게잡아도 평균 五활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작료를 평균 五활만으로 산정한다하여도 총경작지중 지주의 소유지 六二·九%의 절반인 三一·四五%의 경작지에서 산출되는 농산물이 지주에게 소작료로써 납부되어 그 점유물로되는것이다 이것은 총호수의 十분지一밖에 안되는 지주가 생산물의 거의 三분지一을 차지하고있음에 불구하고 총매상량의 겨우 二〇%밖에 담당하지아니하고 지주의 十배가 넘는 농민은 겨우 생산물의 三분지二밖에 차지하지못했음에 불구하고 도리어 총매상량의 八〇%를 수탈당하게 되는것이다。

여기에서 남조선매국정권이 만들어낸 소위 량곡매상법은 지주의 리익을 철두철미 옹호하고 농민만을 그 강탈의 대상으로 만든것이 분명하다「량곡매상법」의 반인민적 반동성은 이 숫자에서 아주 명확하다 만약 우리가 이위에 백미 한가마니의 소위 매상가격이 실지 생산가격의 三분지一밖에 아니되는것을 생각한다면 「량곡매상법」에 의하여 농민들은 기아와 빈궁의 구렁텅이로 몰락되는것을 여실히 알수있다。

미제국주의자는 이러한 로골적이고 강탈적인 량곡매상정책을 소위 「한미경제협정」제二조에 집어넣어 매국「정권」으로 하여금 그 강제실시를 절대적인 의무처럼 규정지어놓았다 그러므로 이 악법은 미제국주의자와 매국노들의 공모에서 생긴 간악하고 잔인한 남조선 농민에대한 강탈정책인것이다。

이상에 기술한 세가지 악법들 이외에도 수많은 악법들이 있으나 이것들은 그 전부가 인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적 애국세력을 진압하며 인민들을 강탈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의 독재하에 자본가 지주 친일과 민족반역자등 매국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 도구에 불과한것이다。

× × ×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매국노들의 탄압 수탈정책은 이상과같이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인민들은 자기의 통일선거에의하여 유일무이하고 가장 적법적인 중앙정부를 가졌으며 이 정부의 수반인 전세계의 애국자이며 영명한 지도자인 김일성수상을 받들고있다 위대한 우리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쏘련은 이미 자기의 남은 군대를 공화국북반부로부터 철거 종료하였고 우리 중앙정부와 외교및 경제관계를 설정하는데 동의하여 이미 대사교

환까지 완료하였으며 우리의 중앙정부는 세계민주주의 제국가들과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어 세계민주진영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진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인민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모든 민주개혁들을 성공적으로·수행하여 량차에걸친 인민경제계획을 초과달성하고 새로운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그 실천의 일정으로 내세워 통일완성과 국토완정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하고있다。

전체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행복을 발전향상시키고 부강하고 번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는 법적보장으로 되어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과 중앙정부의정강을 높이받들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있다。

이와같이 고상한 애국심과 견고한 단결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인민앞에는 미제국주의자와 그주구 매국노들의 간악한 방해가 반드시 분쇄되며 극복되고야 말것이다 공화국 남반부로부터 미제국주의자의 군대는 인민들의 투쟁의위력에의하여 반드시 철거케될것이며 리승만매국「정권」과 이 매국「정권」이 만들어낸 모든 악법들과 모든 매국적협정들은 반드시 타도 분쇄될것이다「리승만, 김성수、리범석등 배족적 망국노들에게 대하여는 그자들이 무고한 조선인민들에게 감행한 모든 잔혹한행동을 우리는 추호도 용서치않을것이며 전인민의 심판에 넘기고야 말것입니다」라고 한 김일성수상의 말씀을 조선인민은 가까운장래에 정확히 실행할것이다。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신 염

국제주의는 즉 전세계의 계급적 유일과 근로자들의 일치 행동 및 피착취자들을 위한 국제적운동이다。이운동은 착취계급들의 전복과 제국주의를 일소하기 위함이며 근로자들의 주권을 수립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것이다。

국제주의는 우선 맑쓰와 엥겔쓰가 그의 영구불멸의『공산당 선언』에서 『전세계 프로레타리아들은 단결하라』라고 제기한 표어에서 표시되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는 즉 맑쓰주의당의 위대한 표어이며 세계관이며 정책이다。

제一차 세계대전 초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끼)을 제외하고 제二국제당은 꺼리낌없이 부르죠아편으로 넘어들어갔다。부르죠아를 위하여 그들은 국제주의 사상과 여러 근로인민들의 형제적 관계에대한 맑쓰주의리론을 의곡 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위대한 사상가들이며 진정한 맑쓰주의자들인 레닌과 쓰딸린은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민족과 민족간의 인공적 분리와 민족별로 프로레타리아들을 분렬하려는 기도 및 더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압박하여 민족의 적대심과 증오심을 돋구어주는것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난관기인 一九一三년에 쓰딸린은『사회—민주당에있어서 높은 사명은 민족주의에 타격을 주며 군중을 전반적 「전염병」에서 방어하여야 한다 또는 사회—민주당은 다만 그가 이 민족주의에 대립하여 유일하고 분리성없는 국제주의적으로 단련된 계급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민족주의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를 대립시켰다。볼쉐위끼들은 민족문제에 대한 맑쓰주의의 강령으로써 철저하게 무장하였다。이 강령은『맑쓰주의와 민족문제』라는 쓰딸린의 론문과『민족 자결권에 대하여』와『민족문제에 대한 비판적 수기』등의 레닌의 론문에서 진술되어있다。

레닌은 쓰딸린의 모범적 저서인『맑쓰주의와 민

족문제』를 높이 평가하였다。쓰딸린의 이 저서중에는

첫째로 민족문제를 맑쓰주의적 리론으로 발전시키고

둘째로 이 저서는 볼쉐위끼적 견지에 근거한 민족문제의 해결에 의하여 편성되었다。다시말하면 혁명에 있어서 또한 제국주의 시대의 전체 국제적 환경에있어서 민족문제는 분리치 못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문제이며

셋째로 쓰딸린은 볼쉐위끼적 원칙에 근거하여 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강조하였다。

거대한 리론적 의의를 가지고있는『민족자결권에 대하여』라는 론문에서 모든 민족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주요한 실지과업을 깊이 기초지어주었다。

이과업은 모든 민족들의 특권과 제한에 반대하는 전체 민족들의 국가분리에 까지 이르게하는 자결권에 대한 선전과 선동이다。

一九一三년말에 레닌의 모범적 강령인『민족문제에 대한 비판적 수기』가 발표되었다。레닌의 이 력사적 문헌에는 민족문제에 대한 근본적 두가지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원칙이 구명되었다。즉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이 두가지 화해하기 어려운 적대적 관계에대하여 레닌은 진술하기를『전체 자본주의 세계의 커다란 두계급 진영으로써 민족문제에 있어 두가지 정책(더우기 두세계관)이 표현된다』이 두 진영간의 투쟁은 중지되지 않는다。특히 그는 제二차 세계대전시기에 발전되었다。현대 미국 반동분자들은 아리안족은 야만인이란 인종론으로서 앙글로—싹손족들이 이를 지도하여야한다고 떠들고있다。

다만 공산주의자들만이 맑쓰주의에 근거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사상과 여러민족의 근로자들의 형제적 친선사상 또는 민족의 자유와 동등권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순결하게 보존하였다。볼쉐위즘의 창시자 레닌과 쓰딸린은 이 고귀한 사상을 고수하였다。그들은 민족문제를 제국주의의 시대의 새 환경에 적합하게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였다。그들은 민족문제를 제국주의의 기반으로 부터의 압박받는 예속국가와 식민지 민족들의 해방문제에 련결시켰다。

레닌주의는 민족적 강압의 온갖 방식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배격하였다。그는 민족들의 동등권과 자유 및 그의 운명을 해결하는 통치권을 옹호하였다。레닌주의는 견고한 민족들의 단결은 자발성과 동등성에 기초함으로써만 가능하며는것을 가르쳐주었다。이러한 단결은 자본의 주권을 전복하며 제국주의의 제도를 근절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설정할수있다。레닌주의의는 동등권법칙의 표어에

만 국한하지않았다。그는 로동계급에게 피압박민족들의 민족적 발전의 자유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직접 방조할것을 요구하였다。로찌야 로동자들은 맨처음으로 제국주의진영을 타도하는데 착수하였다。로찌야의 로동계급들과 빈농민들은 볼쉐위끼당의 령도로써 위대한 력사적 공훈인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를 一九一七년十월에 명백하고 충실하게 표현하였다。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승리는 다만 로찌야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뿐만 아니라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이다。로찌야근로자들이 자기국내의 자본가들을 다도하고 제국주의를 전복한것은 다만 자기들의 해방과제만을 실행한것이아니라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앞에서 자기의 위업을 실행한것이다。

볼쉐위끼당은 三十一년 동안 쏘베트국가의 사회주의건설과 경제적 위력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는데와 국방에 대한 발전의 과업을 해결하는데 부단히 노력하였다。이과업실행에있어 국제주의의 과업은 분리할수없는 관련을 가지고있음을 볼쉐위끼당과 전체 쏘련인민들은 식별하였다。쓰딸린은 「당은 여기로 부터 쏘련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및 국제주의적 과업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의 실반적 과업을 합류시키며 우리국가(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은 전반적 또는 완전히 전세계 혁명운동의 리익과 전세계 혁명의 승리에 합치된다。……그러므로 여러국가 프로레타리아트들의 「민족적」 과업을 국제주의적 과업에 대치시키는것은 정책상 커다란 오유를 범하게되는것이다」。

사회주의 十월혁명을 전세계프로레타리아트가 열렬하게 환영 지지한 리유는 여기에있다。

레닌과 위대한 레닌 사업의 계승자인 쓰딸린은 쏘련 인민에게 쏘련의 사회주의 최후 승리는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들의 단결을 더강화하며 더우기 전체 쏘련 인민을 더강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의식으로 부단히 교양하였다。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련결을 꾸준히 공고히 하라고 호소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로동계급은 전세계 로동계급의 전위대이다。쏘련의 로동계급과함께 전체 쏘련인민은 인류사회의 전체근로자와 세계민주주의와 진보적력량의 고상한 전위대로 간주된다。쏘련의 로동계급은 진정한 국제주의 정신을 자기의 투쟁에서 발휘하였다。때문에 전세계 로동자들의 애호와 동정을 전취하였다。

쓰딸린은 十五년전 제一七차당대회에서의 결산보고에서 「쏘련 로동계급이 힘있는것은 그에게 전투에서 단련된 다만 레닌적 당이 있으므로만이 아니

다。또한 그가 힘있는것은 역시 그가 수천만 로력농민대중의 후원을 받는것으로만이 아니다。그가 힘있는것은 역시 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가 그를 지지하여주며 도와줌으로써이다。쏘련의 로동계급은 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의、부분이며 그의전위대이요 우리공화국은 세계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산아(産兒)인것이다。만일 자본주의국가의 로동계급으로부터 지지가 없었다면 그는 주권을 자기손에 유지하지 못하였을것이요 사회주의 건설을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보장해내지 못하였을것이요—그리고 본즉—지금 그가 가지고있는 그 여러가지 성공이 그에게 없었을것은 의심할것이 없는 일이다。쏘련의 로동계급과 자본국가 로동계급들과의 국제적 련결、쏘련 로동자들과 모든 나라들의 로동자들과의 형제적 동맹、이것이 곧 쏘베트 공화국의 세력 및 위력의 주춧돌중의 하나일것이다。서구라파의 로동자들은 쏘련 로동계급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진격대(進擊隊)라고 말한다。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이것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앞으로 쏘련 로동계급을 힘이 미치는데까지 할수있는데까지 지지하려는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무를 더 지우는 것이다。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사업으로써 전세계 프로레타리아들의 진격대라는 명예스러운 칭호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것을 보이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종국적 승리와 전세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더잘 사업하여야하며 더잘 투쟁 하여야한다는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는것이다。

여기로 부터 생기는 세번째 결론은 프로레타리아트적 국제주의사업에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형제적 동맹사업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쏘련의 로동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 즉 맑쓰의 구호밑에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따라서 이투쟁은 쏘련로동계급이 국제주의 목적과 과업에 충실하고 정확한것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증시한 력사적 모범으로되었다。로찌야의 혁명은 다만 부르죠아 계급을 타도하며 제국주의를 전복하는 과업을 실행함에만 있는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을 실행한것만도 아니다。나아가서 민족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여 쏘련내의 민족들이 진실하게 자유롭고 민족적 예속이없는 제도를 수립한것이다。

쓰딸린은 「과거에는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은 부르죠아민족주의의 방법이며 민족들을 서로 분별시키는 방법이며 각종민족들을 서로

리탈시키는방법이며 각종민족의 근로대중사이에 민족적 적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였다」라고말하였다。 지금은 이 전설들은 취소된것으로 인정되는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경험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의 위력을 표시하였으며 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쏘딸린은「十월혁명은 쏘련에서 민족적—식민지 혁명의 기치하에 민족적 적개심과 민족들의 마찰로 진행한것이 아니라 쏘련의 로동자들과 농민들 및 민족들이 호상간 신임하는 형제적 친선의 기치하에 민족주의적이아니고 국제주의적으로 진행되었다。

쏘련 민족들이 민족적 압박의 철쇄에서의 해방은 로동계급과 불쉐위끼당의 령도하에서 실현되었으며 로력자들의 형제적 유일의 정책에서 실행된것이다。 그러므로 쏘련 인민들은 진정한 동등권과 진실한 자유로써 해방되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내용의 문화건설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것이다。

공산당은 레닌—쓰딸린의 제민족간의 친선 정책으로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대로써야민족주의 및 지방 민족주의의 여러가지 편향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였다。

쏘련은 어느때든지 착취계급을 전복하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을 타도하는동시에 민족간의 불신임과 민족적 적개심을 화장(火葬)하였다 쏘련에는 민족주의가 존재할수있는 원천과 계급의 근거지가 근절되었다。 레닌—쓰딸린당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을 적발하며 로력자들을 국제주의 원칙에서 공산주의 정신과 형제적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민족들의 친선 강화에있어 모든 새 성과를 위하여 노력한다。

쏘련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인민민주주의이며 로동자들의 정신으로 야만적 민족주의를 구축할수있도록 인민들을 교양한다。 쏘련에서는 과거에나 현재나 민족과 인종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동일한 분위기에서 생활한다。 쏘련의 제민족들에있어서 민족관념은 동등권의 관념이며 민족들의 친선적 관념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에는 어떠한 일반적 규정된 원칙과 전통을 반대하는「허무주의」는 없으며 그의 어떠한 법전(法典)이나 정리(定理)나 위선을 승인하지않는다。

프로레타리아트 국제주의는 모든 민족과 자기종족은 자기조국이 있다는 케케묵은 편견을 부인하며 이는 곡해주의로 인정한다。

맑쓰—레닌주의의 학설에 충실한 불쉐위끼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와 인민들의 친선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아간다。 그는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동맹을 높이 내세웠으며 쏘련인민의 진정한 민족적 리해를 고수하였다。 쏘련 인민들은 불쉐위

끼당의 령도하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력한 국가를 구축(構築)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예속되는일이 없게하였다。

불쉐위끼당은 쏘베트 애국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로력자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진실하게 복무하도록 동원하였으며 그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시켜 쏘련내의 로써야 대민족이나 다른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되 형식은 민족적이고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 문화건설을 하였다。

불쉐위끼당은 쏘련 인민들을 진실하고 진정한 쏘베트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였으며 교양하고 있다。「쏘베트 애국주의는 민족들의 민족적 전통과 쏘련의 전체 근로자들의 모든 생활에 일치하게 조화(調和)한다는것을 쓰딸린은 배워주었다。」불쉐위끼당은 쏘베트민족들의 일치와 인민들의 진정한 민족적 창발력을 고무시키고 부르죠아 반동적 문화와 그의 앞에 아첨하는것을 반대하며 투쟁하는 그의 정신적 무기를 자랑하는 기치를 높이 들었다。 쏘베트인민들은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진실한 가장 선봉적인 사상과 문화를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쏘련이 독일 파시스트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표현되었다。 불쉐위끼당의 령도하에서 쏘련 인민들은 후방에서나 전선에서 사회주의국가와 쏘련인민들의 민족는화가 강도배들의 손에 예속되지않기위하여 위대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쏘련인민은 다만 자기들의 민족적 국가성만을 고수한것이 아니다。 쏘련인민들은 후방에서 로력의 위훈으로써 장병들은 전선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자유애호인민들에게서 청렴하고 형제적 친선의 방조로 혁혁한 전쟁의 위훈으로써 파시스트강점자들을 박멸하였다。 민족해방 투쟁을하는 여러민족들은 정치적 또는 도덕적으로 쏘련인민의 성과들과 위대한 정의의 해방전에의하여 고무되며 지지되었다。 이 민족들이 만일 쏘련 무력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독일파시스트들의 침략을 막아낼수 없었을것은 명백한일이다。

쏘베트군대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알바니야、불가리야、항가리야、파란、루마니야、분란、체코슬로바끼야、유고슬라비야는 독일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쏘베트 군대의 혁혁한 력사적 승리로써 파시스트 기반으로 부터 구라파의 문명은 구원되었다。

쏘베트인민들은 강점당한 인민들을 해방하는데 위대한 방조를 할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인민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확보되었다。

첫째로 불쉐위끼당의 령도하에 쏘베트제도와 인민들의 친선에 근거한 쏘련의 위력은 극복할수 없다。

실재로 쏘베트인민은 자기의·국제적 임무를 인식하며 이와함께 헌신적이고 충실한 정신에서 공산당은 변함없고 간단없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와 민족들간의 친선에 대한 교양을 하였다。

쏘베트 인민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주는 국제적 그 위력의 성격의 표현은 전후에 특히 현저하게 표시되었다。 쏘련군에 의하여 파시스트의 야만적 기반으로 부터 해방된 국가들은 진정한 인민민주주의 로선으로 행진하며 자기국가들을 사회주의적으로 창건하는 조건들을 수립한다。

쏘련은 이러한 국가들과 조약들을 체결하였으며 쏘련인민들은 다른인민들에게 형제적 정신으로 친선을 도모하고 이 민족들의 자유와 륭성을 방조하는것이다。 이런 조약들은 국가들간의 동등권에 근거하여 체결되었으며 이를 세계문화의 일반적 보고(寶庫)에 자기것으로 기입하고 대소를 불문하고 각민족들을 동등권의 정신에서 확인하여야한다고 쓰딸린은 지적하였다。

쏘련의 민족문제 해결의 경험을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은 배운다。 이 국가들에서는 제국주의 체계에서 물려받은 민족들간의 충돌과 증오사상의 잔재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고있다。 이국가들에서의 근로자들의 관계는 쏘련을 모범받아 국내에서 호상 존경과 신임 및 진실한 친선을 맺고있다。

각국 공산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마당에서 민족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진정한 프로레타리아트적 국제주의로써 전세계 로동계급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의 찌도, 갈쩰리, 질라스, 란꼬위츠 지도층의 행동은 용서할수없는 범죄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지도자들은 유일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부터 리탈하는 로상에 들어갔다。 그들은 사회주의 로상에서 변절하고 세계 근로자들의 공동일치의 로상에서 변절하고 민족주의 진지로 전변하는 길로 들어갔다。 一九四八년 六월에 수개국 공산당보도국회의에서는「유고슬라비야 공산당 형편에대하여」결정하였다。

이결정서에는 다른국가들의 공산당과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원조가 없이는 유고슬라비야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 건설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되어있었다。 이결정서에는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적 방침으로 유고슬라비야를 부르조아국가 재생의 길로 끌어가려고 시도하고있으며 유고슬라비야의 자주독립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와 식민지에로 돌아가려는 표현이라는것을 더우기 지적하였다。

공산당들은 쏘련군대가 제 인민민주주의국가 인민대중의 선두에 서서 결정적이며 류혈적인 투쟁을

함으로써 이 국가들에서 파시스트의기반을 타도하고 진정한 자유와 자주독립을 찾게하였으며 그들에게 민주주의 력량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민민주주의 체계수립을 보장하였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쏘련의 역활과 은공을 다시금 주지시켰다。 공산당들은 쏘련으로 부터 방조와 원조가없었다면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세계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들자체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없다 는것을 인식하고있다。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야 공산당의 형편에관한 문제를 토의하면서 모든 형제적공산당의 대표들은 그들의 국가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쏘련의 역활과 의의를 특히 지적하여 취급하였다。 체코슬로바끼야 공산당대표 쓸란쓰끼는「우리인민들은 쏘련의 쓰딸린적 외교정책·즉 평화안전정책 민족들의 동등권정책 및 전쟁방화자들을 절대적으로 공박하는 정책이 우리의운명을 위하여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를 잘알고있다」라고말하였다。

해방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인민들은 쏘련의 덕택으로써 자유 자주독립발전의 가능성을 얻었다。 루마니야 외상 안나빠우겔은「자기들은 고독하지않으며 제국주의 강국들의 전횡(專橫)밑에 내던지어있지않으며 쏘련은 자기들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성명함으로써 쏘련의 은공을 잊어버리지않고있다는것을 표시하였다。

파시즘은 제국주의시대에 발생된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미증유의 괴물의 형식과 종족 학대의 최대한도에까지 이끌어갔다。

제二차 대전에서 파시즘은 군사적 패배와함께 사상적—정치적으로 패배를 당하였다。

그러나 아직 제국주의 국가들에는 침략과 전쟁방화자들이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파시즘의 사상적 기계를 강도의 수중으로부터 놓지 않으려고 전력을 다하고있다。 이기계는 그자들에게 제국주의 강점 정책을「변명하기」위함이다。

이목적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히틀러 시기와 같이 민족주의적「사상」과 인종론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리용한다。 쓰딸린은「히틀러가 전쟁을 폭발시키던 초기에 인종론을 부르짖으며 독일어로 말하는자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제기하여 광포하였다。 춰칠은 또한 인종론으로써 전쟁을 폭발하려고 다만 영어로 말하는 민족만이 완전한 민족이된다는것을 인정하며 전세계 지배의 사명을 고취한다。 독일인종론은 히틀러와 그의친우들이 독일인들은 유일하고 완전한 민족이며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여야하겠다는 결론이었다。 영국 인종론은 춰칠과 그의 친우들이 영어로 말하는 민족만이 유일하고 가치있으며 세계의 나머지 민족을지

배할수있다는것에로 결론을 짓는다」고말하였다。

앙글로—싹손 인종주의의 선전은 미국 에·빠델리야의 「리론」의 방조에 의하여 진행된다。이 「리론」에 의하면 미국은 어떠한 「도가니」로 되어있는 것이다。그런데 이 「도가니」에 각종 인종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완전한 민족을 이루고있는 인민들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게되면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민족적 문화를 잃어버리고 급속히 「용해」되며 동화되며 그리하여 一〇〇%의 미국인으로 되는것이다。

빠델리야는 자기의 「미국화」리론을 창시하였는바 이 일체를 포함하는 「미국정신」은 미래에 속하며 그리고 「미국형태」의 인간은 미래의 「최고인간」의 원형(原型)이라고 확인하고있다。

이 「미국화」리론은 다른것없이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민족 국가와 인민들의 문화를 숙청하려는 리론이다。영국과 미국제국주의 리론은 민족적자각과 민족적 감정을 「유물」로써 설명하고있으며 자기민족의 자주독립을 유지하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항구적 세계평화의 설정에 방해로되는 모든 불화의 원인이라고 간주하고있다。「미국주의」가 모든것으로되며 모든 민족적인것은 아무것도 되지않기를 원하는 그들은 「세계주의(꼬스모뽈리치즘)」를 선전한다。「세계주의사상」은 즉 이것이 인종주의이며 이것은 광포하며 침략적인 부르죠아 민족주의 족 국수(國粹)제국주의의 표현인바 이 엄폐밑에서 민족란압이 진행되며 민족적 주권 민족적 권리 영예와 우점들에 불관하고 영어를 소유하지못한 민족들에게 「미국주의」를 교양한다。이것은 다른 민족들의 언어와 문화를 앙글로—싹손족에게 고착시키려하며 미국의 세계지배를 설정하기위한 기구로서 복무시키려는 것이다。

주지하는바 전쟁의 원인을 조성하여낸것은 제국주의제도의 존재와 그들의 모순들이다。부르죠아 민족주의를 승인하고 옹호하고 수행하는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적으로 국가들간에 지주(支柱)적 민족적 주권사상에 기원함이다。

제一차 세계대전은 각국 제국주의자들이 오직 「민족적」이데올로기로 자기의 계급적이며 략탈적인 목적을 은폐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제二차 세계대전때에도 또다시 이상태를 재현하였다。독일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리상으로 자기강점적 정책과 전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려는 경향을 은폐하였다。

민족적 주권을 제한하자는 「리론」은 국제 련합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적대된다。따라서 전체 이리상은 이단체를 파괴하고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의 팽창주의 경향으로 변명되었다。

민족적 주권제한의 리론은 부르죠아 광포자들가운데서 사회학과 국가학자들인것이다。

례하면 미국 평론가 윌리얀·지푸는 모두가 주지하고있는바와같이 민족 주권의 인증과 존중을 토대로하는 련합국 사상을 중상하려고 하면서 다음과같이 썼다。즉 「만일 인종문제가 공중에 떠있다든가 혹은 주의를 빙빙 떠돌기만 한다면 분조적 집단이나 국제적 련맹을 창설하려는 길에 서있는 어떠한 정치적 조종도 성공에대한 어떠한 조그만한 기회를 가질수없다」。그는 공개적으로 급속하게 다른민족들이 미국에 「흡수」되어야한다고 설교하였다。

一九四五년에 런던왕립대학에서 알리프레드 꾜벤이 국제관계에 관한 책을 발간하였다。이책에는 이 작자가 이반동적 리론을 자세하게 전개하여 그리론에 근거하여 민족적 주권이 자기네의 세기에 소생한것같이한다。「오늘날 경제적 군사적 조건을 명령하기위하여 광범하게 정치적 집단들이 수립되었다」꾜벤은 전체, 중소국가들과 인민들을 궤도안에 끌어 넣는 제도는 최대 제국주의 강국들이 지배함이라는 것을 성명하였다。

민족적 주권과 자립적 국가권 원칙을 공격하고 영—미의 세계지배의 전도자들은 영국과 미국은 이나라들의 존재의 복잡한 력사적조건과 확립된 그들의 국가지도원칙때문에 「여기에 민족적주권을 구속당한 인민들을 끌어들이기」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성명하였다。

현대 제국주의의 종복인 학자 꼰은 「민족주의 자상」이란 자기 저서에서 미국은 종합적이며 「보편적」이며 각방면의 사상을 가지고있다고 찬양하였다。미국민족은 혈액과 지반의 「자연적」요소로 또는 그와함께 오랜 력사의 일반적전통으로 제약(制約)되어있지않다 라고 그는 서술하였다。그는 보편화의 사상……또는 이상 사상의 보편화에 있어서 만일 그가 희망하며 그리고 동화된다면 누구나 편입될수있는것을 형성하고있다고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전세계가 다 아는바와같이 미국에서 흑인들을 「렬등인종」으로 추방하는 「보편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수 있겠는가?

사형(私刑)재판의 방법으로써 「백인」은 흑인을 야만적 방법으로 징벌하는것은 전세계가 주지하는 사실이다。인종적 증오는 전후 미국에서 더우기 널리 전파되어 대단한 불안과 분개의 사건에까지 도달한것이다。이리하여 흑인 녀자가 거리에서 참상을 당하였을때 가까운 구호소에서는 구호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이 진료소는 「백인」을 위한 진료소라고 하면서 참상을 당한 녀자를 그냥 거리에 내버려두었다。그밖에도 一九四二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전체 흑인이 一천三백만명인데 흑인들을 위한 병원은 도합 一一〇개소이였다 이 「[illegible]

주주의」국가에는 다만 七五개의 수술대에 一백만의 흑인을 수용하여야만 되는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은 흑인은「견딜(忍耐)」수 있는고로 미국에서 다만 가복과 역부로 등용한다고 설교한다。 흑인 쩨른데쯔박사는 행운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료리점 일을 시켜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와함께 자본주의 력사의 가장 치욕적(恥辱的)인 한페지는 토착종족인 아메리카・인디안족의 멸망을 초래함에 대한 관계를 볼수있다。 미국정복 당시에는 인디안족이 三백만이상을 헬수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는 三五만내지 四〇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들은 대다수가 거지 노릇과 페병에 시달리며 대단히 높은 아동사망률(兒童死亡率)은 오늘날까지도 북미 인디안족의 무서운 천재(天災)로 되어있다。 즉 이것으로써 아메리카・인디안들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가히 짐작할수있다。 미국박사 다이는 이 야수적 정책을 총화하여 다음과같이 쓰고있다。「가능만하였다면 구라파와 우리들에 대하여 히틀러가 할번한것을 우리들 백인은 수세기에 걸쳐 수십만 인디안족에 대하여 실행하여왔다。 히틀러는 백인들이 잉까 마이아 아츠째크족 (고대동방토인들의 명칭)의 문명에 대하여 한것 이상으로 또는 북미(北米)백인들이 칼리포니아 태평양연안 서부 대평원에서 한것 이상으로 파란인 유태인 또는 민주주의 제국가 인민에 대하여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더우기 어떤 부르죠아 사회학자들이 인종 저하화론에 관한것은 미국에 전파되고 법규(法規)화되어 있다고 말하게되는것이다。 미국 평론가 쩨넨바움은 흑인들간에 유태인을 경시하는사상과 아메리카 유태인들간에 흑인들을 멸시하는사상을 부식하는것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하다。 무엇보다「백인」들간에 슬라브족을 반대하고 불란서인 이태리인을 멸시하고증오하며 반대하는 경향을여러민족과 이주자들에게 배양하여야된다 고하였다。 이러한 증오심을 미국에 거주하는 멕찌코인들에게 특히 돋구어준다. 로스안제르쓰에서는 멕찌코인들을「백인」으로 인정하려면서도 그자들에게 백인들과 함께 료리점이나 극장이나 려관 기타에 섞이는것을 엄금하였다。 흑인들 거리에만 가는곳마다 거지가 있는것이 아니라 멕찌코 이주민거리도 그러하다。 그들은 천막이나 행랑이나 지하실에서 생활한다。 멕찌코인들을 위한 학교는 법적으로 없새고 그들을 문맹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인종론자들은 만일 멕찌코인들이「영어로서 공부하려면 주인과같이 와야한다」고 과렴치하게 변명들한다。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미국의 사회생활의 모든면에서 선전되고있다。 민족간의 반목과 멸시 및 증오 리론을 학교에서, 라디오로, 영화로, 신문잡지 모든것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미국 영화에는 흑인들을 가복과 역부및 문직이로써 표시하는것이 천칙이다。 쩨넨바움은 이태리인들은 채소점 주인이며 우울한 자들이고 중국인들은 강도이며 살인자들이며 아편마들이며 강도들이라는것을 지적하여 우리들에게 인증하게하였다。 순결한「앙글로ー싹손」은 활동적이며 고귀한 긍정적 주인공으로된다고 규정하였다。 미국 엉터리 작가 몇 천명은 자기들의 비과학적 로력으로「인종에따라 체력상 정신상 유전의 특징이 있기때문에 인류는 퇴패」된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전파한다。 그들은 흑인들은「경제적활동」에 무능하고 또는「불란서인들은 배우역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적합하다」등등의 단언들을한다。

영제국의 구성내에 여러민족을「포함」시키자는 로골적인 설교자들이있다。 오늘날 영국 세계지배를 옹호하는자들은 영국 황제제도는 인민들간에 모범이라는것을 여러가지로 자랑하며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때문에 영국 젤떠쓰 박사는「국내사람들은 제민족들의 브리탄(英國)적 우의(友誼)를 모델의 성격으로써 재차 제기하고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전후 국제관계 설정에있어서도 필요한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영국과 민족들의 친선」이라는 리론으로써 대변자들은 자기들의 소유한 식민지와 반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창시하지못하게」하는것을 증명하려고 특히 노력한다。 그들은「어떠한 민족주권에 관한 사상이 존재하지 않던 수세기동안에도 민족은 발전하였고 민족문화는 개화되었다」고, 루차 말하고있다。

사이비(似而非)학자 꼰은 로골적인 몰렴치성을 가지고, 영제국은 법칙에 부합되며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까지도 포함하고있는 그러한 규정들에 부합되는 생가있으며 우량한「자유의」종자를 도처에 전파하였다」고 확언하였다。

꼰은 이「무색민족」리론을 생각하여내어「상하급인종」에관한 인종주의 조작을 갱생시키는것이다。 또한 꼰은 쓰기를「표현된 생활방도를 가지지 못하는 무색의 개성과 무색민족이 있으니 정신적인 력사적 실재에의 그의 참가는 현저하지않다。 반대로 다른 개성이나 민족에 있어서의 약간의 인간의 특성은 다른 특성을 대가로써 특히발전한다。 중등수준에 끌어올린 이러한 민족이나 개성은 중동에 의하여 복무하고있으며 、보통적으로 과악된다。 그들은 가능성에대한 자극처럼 다른 인민들에게 자기의 흔적을 준다고 행동을 한다」라고하였다。

제국주의 민족예속화 리론가들은 누구든지 승인할수없는 엉터리없는 거짓말로 자본주의가 주인이되

어 형제적으로 인도를 개화하는데로 인도한다고 한다. 인도의 다수 인민들은 문맹으로 진압당하며 농촌경리 형편은 매년 몇백만 주민을 참혹한 기아에 끌어넣는 현상을 세계 인민들은 늘 보는것이다. 이러한 놀랠만한 이나라의 비참한 절망적 사실은 영국제국주의의 「개화」나 「자선」에대한 동화로써 소멸시킬수없다.

미국박사 다이는 「영국의 풍습을 특히 미국인들간에 심각히 강화시키었다」. 무엇때문인가하면 「영-미간의 인종론과 추축국(樞軸國)론의 탁월성」에 있어 차이가 매우 적으며 그들은 동일한 「민주주의적」이라고하여 인종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현재 미제국주의의 중요한 정책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 사상과 맹렬하게 투쟁하는것이다. 이투쟁방법중의 하나로 악명높은 「비미행동조사 위원회」의 방조밑에 미국인민의 선진인사들을 징벌 하는것이다. 「민족적 교의」로 「미국화」를 광포하며 전체 진보적인사들은 미국에있어 그의 적으로 간주한다. 횡포한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반역적」인 감정과 사회주의를 지지하며 민주주의 및 가장 진보적 대표를 따르는 종족들은 「미국정신」을 옹호하는 기치아래로 라고 광포하였다. 이특질은 미국을 괴수로한 공식적정책인 배외적애국주의이다. 「미국사회의 민주주의벗」의 지도자의 한사람 비르크헤드는 미국에 민족적 또는 인종적증오에 복무하는 여러가지 단체들이 一九四六년도에 八〇〇을 초과하였다. 이단체들은 류사한·여러가지 간판으로 엄폐하였다. 즉 「십자가와 기」 「헌법주의자들」 「애국주의 조사국」 「기독교 전선」 「미국화를 위한 재단」 「예수의 능숙자들의 아메리카」 등등 이다. 미국의 二四一개의 여러구역 기관이 조사한 결과 그중 八九개는 취직할때에 「국가교회와 민족」이란 단체에 소속한자들을 요구하였다. 신문에 게재된 종업원 모집 광고들은 「다만 백인과 앙글로-싹손 및 신교도」들만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로서 개인기관에 취직한것이 九七%나된다.

목전, 민주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진영의력량은 세계적으로 뿐만아니라 민족적 편견을 방화하며 민주주의력량의 단결을 조애하려고 제국주의자들이 노력하는 미국내에서도 확대강화된다.

미국 진보계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과도를 반대하여 투쟁한다. 진보적 교원들은 학교에서 인종예속의 정신을 축출하려고 노력한다. 즉 진보적 교수와 배우들이 과학과 예술에서 민족적 반목을 반대하는 선전에 자기의 의지를 표시한다. 미국 제三당은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별대우를 반대하여 광범한 계층의 진보적 인사들에게서 인기를끌고있

다. 인종론과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가장 철저하고 결정적으로 투쟁하고있는것은 미국공산주의자 들이다. 「미국화」리듬은 제국주의세력을 새배치로 반영한다.

볼쉐위끼 공산당 一四차 대회에서 쓰딸린은 세계정세를 분석하여 「현재 세계 금융자본의 근본적 착취자이며 따라서 근본적 채권자는 미국이고 그의 부분적 방조자는 영국이다. 이것이 큰 의의가있는것이아니라 구라파를 식민지 상태로 이행(移行)하는것이다. 현재 미국 금융자본에 복종하는 구라파국가들을 자기식민지 가족으로 계속 착취하며 그리고 곡 미국에 착취를 받고 앞으로 착취를 받을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미 四분의 一세기를 경과한 쓰딸린이 지적한 과정은 특별한 힘으로 확장되었다. 미국 제국주의자본은 제二차대전이후 서부 자본주의국가들을 악명높은 「마샬안」으로 자기 수중에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있어 미국제국주의자들은 현재 불란서와 기타 부르죠아 국가정부들의 충실한 종복자들을 얻었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근본적 요구에 의하여 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거의 상실하고 이 국가들의 부르죠아와 그들의 복무자들-우익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기 식민지내 인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정책을 실현한다.

월남(越南)인민들이 민족해방투쟁을 일으켰을때 불란서의 가짜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하여 나선 월남인민들을 수치스럽게 진압하는 사격수로서 나섰다 영국 부르죠아 계급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과 우익 레이보리스트(영국로동당원)들로써 자기 식민지인민들에게 이와 같은 정책을 감행하였다. 화란 자본가들과 그의앞잡이들중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야 인민들을 교살한다. 그리고 부르죠아와 가짜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의 해방운동을 탄압하며 반식민지에서 민족적 리익을 침해하는 반동적 정책을 수행하려한다. 그들은 식민지국가 근로자들의 의식을 민족주의의 독약으로써 중독케하며 그들을 좋은 경우에 있어서 수동적 감시자로 만들며 그리고 식민지·인민들을 착취함에있어서 맹목적이며 부자유적인 공모자로써 만들도록 노력한다. 이와같이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반식민지와 식민지의 근로자들을 분렬시키려고 시도하며 더러운 반동적 내외정책으로 변명한다.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여 제국주의가 보낸 무기라는것은 똑똑히 알아야한다. 부르죠아 민족주의는 근로자들의 민족적 리익을 침해하고 있는사실을 엄폐하려한다.

이러한 민족주의 표어들로써 부르죠아 정책을 엄폐할수는없다。 그는 희랍에서 토이기에서 국민당 중국에서 이란에서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그의압잡이돌 거 근로자들과 전체 진보적 력량을 진압함으로써 이국가들을 영·미제국주의 부속물로 전변시킨사실을 은폐할수는없다。

남조선이 지금 이와같은 형편에 있는것이다。 한줌도 못되는 친일파들과 민족반역자들은 세계반민주진영의 선두에섰으며 현재 남조선에서 실지적 주인노릇하고있는 미제의『방조』와『원조』및 직접 영향하에서만 그놈이 존재를 유지할수있는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반동분자들과 친일파들의 반역적 역할을 반인민적인『민족적 어구』로써 정체를 감추려는 시도는 폭로 분쇄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더우기 우리인민들의 힘을 민전산하에 광범히 집결시키며 미제의 식민지화 기도와 국토를 량단하고 민족을 팔아먹으려는 남조선 반동파들의 흉보를 끝까지 폭로 분쇄하여야할것이다。

민전을 강화하는것은 우리가 민족을 통일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것은 부르죠아 민족주의 반동의 보지자들 즉 전체 지주 대자본가및 간상배들과 전체 민족 반역자들을 반대하는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이반동분자들은 북조선에서 달성한 찬란한 성과를 빼앗으려한다。 민주주의 질서로써 인민들이 자기의 리익을 설정한것과는 화해할수 없을것은 당연한것이다。

—우리 인민들과 전세계 근로자들은 쏘련은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과의 투쟁에있어서 민주진영의 지도적 력량인것을 잘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절실한 리익과 우리 조국의 운명에 관련되어 민주주의와 반제국주의 진영의 선두에 쏘련이 서서 투쟁한 경험에서 설정된것이다。 쏘련군은 우리에게 해방자로 들어온것이다。 쏘련사람들은 다만 우리를 일제 기반으로부터 해방 시켰을뿐만아니라 민주건설에 아낌없는 방조를 주었으며 조선인민에게 완전한 주권을 넘겨주었다 。

쏘련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한 벽두에『조선인민들이여! 조선은 자유국이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조선력사의 첫폐지가 될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로력과 정력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 할수있다。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맡겨졌다。 쏘련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로력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의 창조자로 되어야 할것이다』라고 조선인민에게 자기의 첫 인사를 보내었다。

이는 위대한 레닌 쓰딸린의 공명정당한 민족정책의 발현이며 타인민의 자주권을 존중히하며 옹호하는 쏘련군대의 해방적 성격을 증명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 남반부에 상륙한 미제국주의 군대는 어떠한 첫 포고를 하였던가 맥아더는 자기포고에서『이로부터 조선 북위 三八도이남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함。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적극 복종할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 군정기간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함。……』이라고 광포하였다。

이 포고문에서 볼수있는바와같이 미국군대는 조선땅에 들어서면서 벌써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할것을 기도하고있었던것이 명백하다。 지금 우리 공화국 남반부에서 민족반역자들의 방조를 힘입어 미국 반동분자들은 실질적 주인노릇을하면서 테로와 학살을 조장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 학살하며 모든산업과 인민부원을 파괴와 전멸상태에 빠지게하며 식민지 예속화의길로 전락시키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쏘련군대가 三년동안 주둔하였던 북조선은 정반대로 딴세상인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승리이후 三十여년에 걸쳐 쏘련은 거대한 투쟁과 승리를 가져왔다。 쏘련은 진보적 인류사회 발전의 요소로된다。 즉 그는 위대한 의의를 가진 세계의 련대성과 국제주의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것으로 명백히 증명되는것이다。

이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위대한 력량은 전세계근로자들과 피압박자들의 해방운동에 거대한 공간(槓杆)이다。

참고자료

볼쉐위즘의 조직적 기초

보·뽀노마레브

쏘베트인민은 레닌—쓰딸린당의 지도밑에서 위대한 력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혁명적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볼쉐위끼당의 지도밑에 수천만의 억압당하는 빈궁한 농민들을 자기의 동맹자로 짜려의 전제를 발대하는 투쟁에 궐기시켰다 레닌—쓰딸린당은 인류력사의 신기원을 여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선두에섰다 볼쉐위끼당의 지도밑에서와 그의 계획에 의하여 로씨야에는 사회주의적 개혁이 실시되었다 우리 국가는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국으로 변하였다 레닌—쓰딸린당은 위대한 조국전쟁에있어서의 쏘련인민의 승리를 조직하였으며 고무하였다。

가대국가쏘련의 위력은 레닌—쓰딸린당의 백전백승하는 사상이 실지에있어서 체현된 결과이다 전쟁은 볼쉐위끼당을 전투속에서 시험하는 준엄한 검열이였다 전쟁은 볼쉐위끼당의사상의 커다란 생활력과 그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의 조직적 원칙을 특히 명백히 보여주었다 전쟁시에 쏘베트사회제도와 국가제도가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견디어냈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볼쉐위끼당의 활동의 결과이다 쏘련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의 지도적 활동으로 쏘베트사회제도와 국가제도는 승리하였으며 강화되었고 쏘베트애국주의、제인민들간의 친선、쏘베트인민의 도덕적—정치적 일치와같은 그런 쏘베트사회의 원동력이 발전되었다。

당결설과 당의 모든 활동은 계획적 원칙 조직적 원칙 및 전술적 원칙의 통일에 립각하고있다 레닌—쓰딸린의 사상은 승리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실지에있어서 강철같은 볼쉐위끼적 조직과 혁명적 전술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 ×

인류해방투쟁의 수세기의 력사와 각종 정당의 력사는 쏘련공산당(볼쉐위끼)과 같은 그런 커다란 힘과 그런 위신을 가지는 다른 정당을 알지못하였으며 또 알지못할것이다。

만일 볼쉐위끼당의 리로적 위력이 힘있는 볼쉐위끼적 조직에의하여 강화되지않았더라면 볼쉐위끼당은 자기의 커다란 승리는 물론 이며 그가 쟁취한 쏘련과 전세계의 제인민들간에 있어서의 위신도 달성할수 없었을것이다 레닌은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정권획득을 위한 투쟁에있어서 조직 이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가져지 못하였다 부르죠아 세계에있어서 무정부주의적 경쟁의 지배로 말미암아 분산되며 자본을 위한 강제로동으로 억압되며 늘 극도의 빈궁、야만、타락의「구렁텅이」로 륜락되며있는 프로레타리아트는 맑쓰주의의 원칙에 선 사상적 결합이 수백만의 근로자를 로동계급의 군대로 융합시키는 조직의 물질적 통일로써 굳어지는데서만 깨뜨릴수없는 세력이 될수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될것이다 이 군대앞에는 로씨아의 전제제도의 로쇠한 권력도 국제자본의 부패하면서있는 권력도 견디어낼수 없는것이다」(레닌전집 제六권 三二八페지)

로동계급의 조직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선봉과 그의 당으로 표시된다 자기의 진정한 혁명적 정당이있어야만 로동계급은 자기의 대렬을 성공적으로 조직할수있으며 수백만의 근로자들로 부터 동맹자군을 자기의 주위에 결속시킬수 있다 또한 진정한 투쟁로선을 수립할수있으며 승리의 목적과 승리달성의 방법을 확정할수있다。

제二차세계대전은 공산당의 거대한 의의를 새로이 확인하였다 쏘베트인민의 선두에선 레닌—쓰딸린당은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격파함에있어서와 파시즘의 도덕적—정치적 괘배에있어서 결정적 역활을 하였다。

一

레닌과 쓰딸린은 당의 학설을 작성함에있어 맑쓰주의 창시자들의 리론적 전제에 립각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맑쓰와 엥겔쓰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적 대렬로서의 당에관한 근본적 초안을 주었다 이것이 없으면(당이 없으면) 프로레타리아트는 주권을 장악하는데 있어서나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는데있어서나 자기의 해방을 달성할수없다」。

맑쓰와 엥겔쓰는 전(前)제국주의 시기에 살았으며 그리고 싸웠다 그때에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기위한 로동계급의 주권장악과 승리적 사

회혁명에 관한 실질적 문제는 나서지않았다 맑쓰와 엥겔쓰가 서거한후 기회주의는 서구라파의 사회—민주당내부에 확대되었으며 맑쓰주의의 근본적 론제는 제二인터나쇼날의 기회주의 분자들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레닌은 혁명적 맑쓰주의의 순결을위하여 기회주의와의 대규모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맑쓰주의적 과학을 더욱 발전시켰다 레닌의 이름은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리론발전의 신시대와 련결되었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시대의 맑쓰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맑쓰주의이다 레닌은 맑쓰와 엥겔쓰의 당에관한 초안을 가르쳤으며 리용하였다.

「맑쓰주의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레닌이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조직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있어서의 기본적 무기로써 당에관한 학설을 탐구하였다 이것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위한 투쟁에서 승리할수없다」라고 쓰딸린은 썼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 력사간략독본」 쏘련판제五〇페지)

레닌의 충실한 제자이며 레닌사업의 계승자인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리론적 저작에서와같이 당활동의 실재적 지도에 있어서도 당에관한 학설을 발전시켰으며 또 앞으로도 발전시킬것이다.

레닌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선원칙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을때는 제二국제당이 이미 十년동안이나 존재하던때였었다 그러나 레닌은 낡은 형태의 당의 리론적 견해나 조직적 원칙이나 실천이나를 로씨야에 건립된 혁명적 맑쓰주의당의 기본으로 하지않았다.

낡은 형태의 당은 개량주의자들의 당이다 그네들의 근본적 죄악은 그네들이 부르죠아제도를 옹호하며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지배를 옹호하는 립장에 섰다는데있다 다시말하면 그네들은 인간에의한 인간의 착취와 다수의 근로인민에대한 소수의 자본가와 지주의 착취를 영구화 하려는 립장에 섰다.

새형태의 당인 공산당은 지주와 부르죠아지의 주권을 전복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위하여 싸웠으며 또 싸우고있다 다시말하면 인간에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며 계급없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위하여 싸웠으며 또 싸우고있다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즉 공산당만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있다 자기의 낡은 립장을 고수하는 낡은 형태의당인 제二인터나쇼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지못할뿐만아니라 사회주의의 리상을 로골적으로 배반하였으며 그리고 그네들의 국가에서 지배적인 부르죠아지에 복무하고있다.

레닌은 낡은 형태의 당파는 다른 당인 새형태의 당 즉 사회주의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당인 「전투적당」을 창건하였다 새형태의 당에게는 사회주의의 빛나는 국가를 창건하기위하여 착취자

와 억압자를 반대하는 대전투에서 로동계급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옳게 리용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였다 이조직은 무엇보다도먼저 당의 계획적 전술적 및 조직적 원칙의 통일이 보장되어야한다.

우리당의 조직적 원칙은 짜리즘의 타도, 자본주의 지배의 전복,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전취 및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그의 창건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과업과 목적으로 확정된다 이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서는 어느때를 물론하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력량을 조직할수있으며 그들의 력량을 결속하고 수시로 제기되는 과업을 해결하는데 그들의 력량을 동원할수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할까?」라는 자기 대저작에서 레닌은 볼쉐위즘의 이데올로기적 기본을 작성하였다 레닌은 현명한 통찰력으로 다음과같이 썼다 「우리들에게 혁명자들의 조직을 달라 그러면 우리들은 로씨야를 정복할것이다!」 (레닌선집제四권 四五八페지)

레닌과 쓰딸린이 창건한 이 혁명자들의 조직은 우리조국의 운명을 급속히 전변케하며 쏘련에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는 공간이었다.

볼쉐위끼당의 우수성은 그의 융통성에있으며 맑쓰주의리론을 구체적 정형에 비추어 창조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통달한데 있으며 그리고 모든 환경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데있다 당활동의 각종단계에있어 당앞에 제기되는 과업이 변경됨을따라 당의 활동방법과 조직형태도 변경되였다 그러나 조직적 원칙의 근본은 二十세기초에 레닌과, 쓰딸린이 처음으로 조직하였을때로부터 오늘에이르기까지 보지되었으며 또 보지되고있다.

이미 레닌은 제二차당대회에 당규약초안을 주었으며 후에 「一보전진 二보퇴각」이라는 자기의 력사적 저서에서 볼쉐위끼당의 조직적 기초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더우기 그는 대중에게 자기의 리익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와 근로자들의 힘의 조직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또 설명하였다.

레닌은 「브·사수리치는 어떻게 청산파를 약화시켰는가?」라는 론문에서 다음과같이 썼다.

「당은 계급의 의식적이며 선진적 력량이고 계급의 선봉이다 이선봉의 힘은 계급의 수효보다 十배 백배 더 커다란것이다 이것은 있을수 있는가? 백(百)의 힘이 천(千)의 힘을 롱가할수있는가? 백(百)의 힘이 조직되었을때에는 있을수있으며 롱가한다 조직은 힘을 十배로한다…… 더우기 계급의 선진부대의 자각은 조직할 가능성을 준다 그리고 계급의 선진부대는 조직되면서 통일된 의지를 가지게된다 이 선진적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통일

된 의지는 계급의 의사로된다」(레닌선집 제十六권 제六三三페지)

현조건하에서 볼쉐위끼당의 의지는 계급의 의사일뿐만아니라 전체 다민족 쏘베트인민의 의지이다。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원쑤인 부르죠아국가에있어서의 지배계급은 로동계급의 조직성의 장성과 맑쓰주의 리론의 승리를 보며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을 파괴하며 그의 힘을 분렬시키며 로동운동을 자기의 영향하에 두며 또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강력한 무기인 조직성을 없새려고 애쓰고있다 부르죠아국가의 지배계급은 이 모든것을 실현하기위하여 사회—민주주의적 기회주의자와 직업동맹개량주의자 및 기타의 로동운동대렬에 있어서의 자기의 앞잡이들을 내세우며 또는 로골적인 박해를 가하는 수단을 취한다 로골적인 박해를 가하는 수단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시에있어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있다 가장 명백히 반영된것은 독일파시즘의 리론과 실천에서였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본주의의 기반은 더욱 동요되는것이며 지배계급은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당을 반대하며 로동운동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으로 조직되며 무장되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에있어 수단을 가리지않는것이다。

히틀러독일의' 패망은 현대 사회에있어 일체 반동세력이 근절되었다는것을 아직 의미하지않는다 제국주의반동은 자본주의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며 결정적인 력량인 로동계급을 반대하는 투쟁 다시 말하면 착취계급이 두려워하는 로동계급이 만든 공산주의의단체를 반대하는 투쟁의 최선두에 서고있다 공산당의 견고성 융통성 그리고 강인성은 그의 장차 투쟁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볼쉐위즘의 조직적 원칙과 당에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은 현대력사에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다 볼쉐위즘의 조직적 원칙과 당에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은 당의 지도적 및 조직적 활동에서 쓰딸린적 새五개년계획을 수행하며 초과수행하기위한 투쟁에있어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창전하기위한 투쟁에있어 당을 무장하고있다。

二

볼쉐위즘의 창시자인 레닌과 쓰딸린은 자기의 저서에서 볼쉐위즘의 조직적 기초와 새형태의 당에관한 학설을 탐구하였으며 볼쉐위끼당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 당에관한 레닌적 학설을 발전시키면서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와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에서 우리당의 특수성과 조직적 기초를 아주 쉽게 그리고 깊이 서술하였다。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의 선진적부대이며 그의 정치적 령도자이며 그의 사령부이다 당은 로동계급의 의식적이며 맑쓰주의적 부대이다 맑쓰—레닌리론으로 무장된 당은 로동계급의 리익과 로력인민의 리익을 능히 고수할수있다 레닌—쓰딸린당은 로동계급의 선진적 부대이다 그러므로 당은 사회발전 법칙의 리론으로 무장되었으며 로동계급의 근본적 리익—우리의 조건에있어서는 전체 쏘베트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있다 당은 모든 로동자들을 사회주의 사상과 로동계급의 과업에대한 인식에까지 궐기시키며 쏘련의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적 및 공산주의적 과업에대한 인식에까지 궐기시키며 그리고 그들을 공산주의로 인도하고있다 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와 로동계급의 조직을, 다시 말하면 로동계급의 당을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조직으로부터 맹목적 로동운동을 추종하는 조직으로 전변시키려는자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다 당은 선진적 부대로서 먼 장래를 보고있으며 림시적 곤난의 극복을 배우고있으며 그리고 로동계급과 전체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장래를 열고있다。

그러므로 당을위한투쟁은 로동계급의 선진적 부대를위한 투쟁과같이 무계획적 리론과 소극적 리론을 반대하는 투쟁과 긴밀히 련결된다。

당은 로동운동에 사회주의적의식을 주입한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로동운동과의 련결에서 혁명적 맑쓰주의당의 선봉적 역활이 표현된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로동계급의 맹목성에서 발생한다고하는「경제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견해를 폭로하였다 레닌은 볼쉐위즘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탐구한「무엇을 할까?」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로동운동의 사회주의와의 련결의 결정적 의의를 철저히 창시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레닌의 견해를 고수 또는 발전시키면서「당내의 의견불일치에 관하여 간단히 론함」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로동운동의 사회주의와의 련결의 의의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썼다「과학적 사회주의없는 로동운동이 없이는 공언이며 이는 항상 바람에 쉽게 날린다 다른면으로보면 사회주의가없는 로동운동은 영국 트레드유니온적 동요이며 이는 오랜 고통의 뒤가에도 불구하고 결연코 사회혁명을 가져올것이다」。결론은? 「로동운동은 반드시 사회주의와 련결되어야한다」……(쓰딸린선집 제一권 제一一五페지)

볼쉐위끼들은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의 련결을 보장하였다 이는 실제에있어 사회주의의 승리의 기본으로도 되였다 당은 자기 활동의 모든 기간에있어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내부에 사회주의적 의식을 확장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규약은 매개 공산당원들에

계 맑쓰—레닌주의의 부단한 연구와 자기의 리론수준제고를 요구하고있다 당은 자기 탄생의 첫날부터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있어 력사적 승리를 아미 쟁취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진적 투사의 역활은 선진적 리론으로 지도되는 당만이 수행할수있다」라는 레닌의 가르침을 성실히 수행하고있다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은 먼 장래의 길을 밝히며 사건의 경과를 예견할수있게하며 모든 실제사업을 리론적인 과학적 기본위에서 진행할수있게 한다。

볼쉐위끼들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작성하며 고수하는 의의를 중요시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레닌은 당의 리론적 기본을 창건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은 정치적 경제적 및 이데올로기적인 三개의 형태와 방향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볼쉐위끼당의 활동과 투쟁은 이에 부합되었다 볼쉐위끼들은 자기 생존의 반세기동안에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투쟁과함께 대중속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장하며 침투시키기위한 참으로 거대한 투쟁을 전개하였었다 현조건하에있어서 당은 역시 사회주의적 및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위한 투쟁을 널리 전개하고있다 광범한 대중들속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확장된것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쏘베트국가의 위력을 강화하는 사회주의적 로선으로의 우리사회의 앞으로의 전진을 위한 중요한 필수조건으로 된다 무사상성과의 투쟁은 한계단에있어서 당조직활동의 일부분으로된다。

볼쉐위끼의 창시자인 레닌과 쓰딸린은 당 이데올로기의 특별한 의의를 중요시하였다 「우리당이 가지는 모든 재산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값있는 재산은 그의 리론적 재보이며、그의 리론적 보고이며、그의 원칙적 로선이며、그의 혁명적 장래이다」라고 쓰딸린동지는 가르쳤다。

볼쉐위끼당은 쏘베트인민의 선진부대이다 그러므로 볼쉐위끼당은 사회주의의 승리를위한 투쟁의 학교를 지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의식적인 근로자들을 자기 대렬에 흡수한다 볼쉐위끼들은 경제주의자 멘쉐위끼 쁘로쯔끼 지노비예브 우익 및 기타 원쑤들의 침입으로부터 로동계급의 선봉으로서의 당을 고수하기위한 많은 투쟁을 하였다 쓰딸린동지는 「프로레타리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당」이란 자기의 저서에서 선봉부대로서의 당의 정의를 주었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썼다 「투쟁의 무대위에 프로레타리아의 집단이 출현하였다 만일 모든 집단이 자기의 선진부대를 필요로한다면 그집단은 프로레타리아의 집단의 선진부대와 같은것이 반드시 필요할것이었다 여기에 프로레타리아 지도자 그루빠인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이 나타났다 선진부대로서 이당은 첫째로 자기 특유한 계획적 전술적 및 조직적 원칙으로 무장되어야하며 둘째로 견고한 조직을 가져야한다」(쓰딸린선집 제一권 제七二—七三페지)

이 레닌—쓰딸린적 명제를 실천에옮기면서 볼쉐위끼당은 매개 당원들에게 그가 인민들의 새로운 생활을위한 투쟁에있어 선봉적 역활을 놀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조건하에있어 공산당원들은 인민경제의 부흥 및 발전을위한 우리 조국의 위력강화를 위한 쓰딸린적 새五개년계획을 수행하며 초과수행하기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고있다。

기업소에서 꼴호즈에서 기관에서 공산당원들은 생산 경작 및 로력조직의 선진적 방법의 구현자로 나서고있다 매개 볼쉐위끼들의 과업은 공산주의로에 우리들의 전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업인 모든 인민경제부문에있어서의 로동생산성의 부단한 제고와 로동생산성제고의 새롭고도 새로운 방법과 원천의 발견 그리고 쏘베트경제발전속도의 신속등을 수행하는데있다。

공산당원은 돌격로동과 쓰따하노브적 로동의 표본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으로 볼쉐위끼들의 선봉적 역활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공산당원은 대중의 조직자이며 정치적 지도자이다 공산당원은 대중에게 당과 소베트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며 대중을 쏘베트조국의 강화 및 개화를위한 투쟁과 쏘베트사람들의 생활의 물질적 및 문화적 조건의 개선을위한 투쟁의 위대한 사상으로 고무하며 대중을 그네들에게 제기된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조직하고있다 공산당원은 우리들의 발전을 장애하는 곤난을 극복하는데있어 근로자들을 조직하며 관료주의와 기관에있어서의 모든 결점들과의 투쟁에 근로자들을 조직하고있다 공산당원은 매사람들에게 쓰딸린적 새五개년계획을 수행하며 초과수행할수있는 힘을 가지고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매개 공산당원이 자기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또 선봉이 되려면 자기의 리론수준의 계통적 제고에 많은 관심을 돌려야한다。

볼쉐위끼당의 령도밑에서 쏘련에 사회주의를 창건하는 전세계사적 승리를 달성한 쏘베트인민은 레닌—쓰딸린당을 신임하며 지지한다 쏘련헌법에는 쏘베트사회에있어서의 공산당의 지도적 역활에 관한 특별조항이 있다 쓰딸린적헌법 제一二六조에는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은 우리 국가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및 발전을위한 투쟁에있어서 그들의 전위대이며 또는 근로자들의 사회적 및 국가적 모든 단체의 지도적 핵심이다」라고 확정되어 있다。

三

당은 로동계급의 선봉대일뿐만아니라 그의 조직적 대렬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본질과 그의 려자적 파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조직적 총체로서의 당에관한 리론은 우리당규약 제一조의 레닌적 정의에서 인증된다.

레닌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를 앞두고 당규약을 작성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규약에관한 문제에있어서 멘쉐위끼와의 견결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규약은 당단체들의 실제적 활동방법 당전설방법 및 그의 내부생활규률을 규정하고있다.

一九〇三년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에 제기된 규약초안에는 레닌적 정의로써 당건설의 거본원칙들과 입당조건이 규정되었었다 규약 제一조에는 「당의 강령을 승인하며 물질적으로 당을 지지하며 당의 어느 한 조직의 성원이되는자는 다 당원으로 간주된다」라고 씌어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은 당을 무정형적이며 유약한 당으로 만들며 혁명적 행동에있어서 무능한 당으로 만들려고 기도하면서 레닌적 정의를 반대하여 나섰다.

규약 제一조에관한 로쟁에있어서 당운명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동시에 로씨야에있어서의 혁명우동의 운명에관한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때에있어서 조직문제는 시금석이었는바 이것으로써 로씨야로동운동을 명도하려고 마음먹은 인간과 조직들의 진정한 본질이 검열되었다.

조직문제에관한 투쟁은 멘쉐위끼당축에 서고있는 기회주의자들과 볼쉐위끼당을 건설하는 레닌주의자들간의 분렬의 원인이되었었다.

마르또브는 규약제一조의 레닌적 정의에 반대되는 제一조의 다른 초안을 내놓았다 마르또브의 초안에는 당강령의 승인과 당에대한 물질적 지지는 당원이되는 필수조건이라고 했으나 당의 어느한조직에 참가하는것을 당원이되는 조건으로써 생각하지는않는다―라고 씌어있다 이와같이 마르또브의 제의는 당대렬에 들어가는것을 요구하지않으며 며우기 당대렬의 적극적인 투쟁에 참가하는것을 요구하지않는것이다 그리고 될수있으면 당의 규률있는 행동마자 구속하려는것이다.

당의 파업을 인식함에있어서의 볼쉐위끼와 멘쉐위끼의 근본적 상위는 규약 제一조초안에있어 여실히 반영되었다.

레닌은 조직을 수립할것을 요구하였는바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모든 근로자들의 대렬로부터 가장 우수하며 참으로 선진적인 사람들을 그리고 끝까지 로동계급을 위한 사업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흡수하여야하는것이다 멘

쉐위끼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위한 투쟁과업과 사회주의의 승리를위한 투쟁과업을 당앞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네들은 자유주의적인 부르죠아지에게 복종하는 역활을 수행할수있는 그런 당을 건설할것을 지향하였었다.

그 당시 로씨야는 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 전야에 있었다 사회민주주의 조직내에는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와함께 자유주의적인 부르죠아지의 리익에 맞도록 혁명운동을 리용하며 부르죠아지의 지배를 달성케하며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지못하게하려는 그와같은 사람들도 들어왔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진정한 투사들을 당에받아들이며 프로레타리아당과 로씨야의 로동계급을 부르죠아지의 리익에 리용해보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않는것을 보장할 그와같은 조직적 범위가 필요하였었다.

레닌적인 조직적 계획과 레닌이 작성한 당규약은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들의 단합을 보장할것과 기회주의자들과 타협하지말것을 호소하였었다 이미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 이전에 레닌은 무엇보다도 먼저 단결이며 타협하지않는것이 필요하다는데관한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다 그는 기회주의자들과의 비타협은 짜리제도의 전복을 위하여서와 사회주의적 혁명을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울수있는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들만을 당대렬에 끌어들이는것이라는것을 고려에 넣었었다.

이미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에서 레닌은 바리까드뒤에 숨으려는 자들을 반대하여 우리조국의 흉악한 원쑤이었던 마르또브 뜨로쯔끼 악셀로드를 반대하여 나섰다 레닌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에서의 토론에서 「모두가 그리고 매개인이 당원이되려고하는것은 불가피한일이다」라는 마르또브의 정의를 공박하였다.

레닌은 또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바로 이때문에 우리들은 마르또브의 정의를 그와같이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서는것이다 당원이될수있는 가능성과 권리를 가지는 한사람의 다변가 보다는 당원이라고 자칭하지않는 열사람의 로동자가 더욱 좋다 이원칙은 나에게있어서는 확고하다―……우리들은 당원의 칭호와 의의를 더욱 높고 높고 높은것으로 리해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당은 레닌의 이 [illegible]적인 명제를 자기의 모든 활동기간을 통하여 실지하고있다 쓰딸린동지는 레닌의 견해를 옹호하며 주장하면서 「프로레타리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당」이라는 자기의 론설가운데서 「당은 요새이다 그의 문은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서만 열려지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제二차대회에서 규약 제一조는 마르또브의 정의가 채택되었다 이것이있은 직후 레닌은 자기의저서 「一보전진 二보퇴각」에서 새로운 형태의 혁명적 당의 조직적 원칙을 서술하였다 볼쉐위끼들은 제三차당대회에서 규약제一조의 레닌적 정의를 채택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프로레타리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당」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쓰딸린동지는 레닌의 조직적 명제의 의의와 규약의 레닌적인 제一조가 당에 가장 귀중한것이라는것을 설명하였으며 또 창시하였다 멘쉐위끼와 더욱 명백하여진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썼다。

「당원은 당의 강령 전술 및 조직적 견해들을 실천함이 필요한바 당의 견해를 실천하려면 이 견해를 위하여 투쟁함이 필요하며 이견해를 위하여 투쟁하려면 당조직내에서 사업하는것이 필요하며 당과함께 사업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원이 당의 어느한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는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쓰딸린전집 제一권 六六페지)

쓰딸린동지는 또 강조하기를

「우리당의 당원이되려는 사람은 우리당의 강령 전술 및 조직적 견해를 접수하는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 견해를 실천하기위하여 또는 이 견해들을 실생활에 옮겨놓기위하여 힘써야한다」(쓰딸린전집 제一권六五페지)

당존재의 전기간을 통한 레닌과 쓰딸린의 특별한 고려의 대상은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지하는데 있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당대렬에 가장우수한 선진적 로동자와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원칙을 항상 강력히 실시하였다。

레닌은 一九一九년에 협조전에있어서의 당의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썼다 「세계에서유일한정부당은 당원의 확장에 관하여서가아니라 그의 질의 제고에 관하여、「이색분자들」로부터의 당의 순결성 보장에 관하여、고려를돌린다 우리당은 혁명적로동계급의 당이다 우리들은 이 「이색분자들」을 쫓아내기위하여 또는 의식적으로 진실으로 공산주의에 헌신하는 사람만을 당에 남겨두기위하여 수차 당원의 재등록을 실시하였다」(레닌전집 제二四권 四八四페지)

우리 국가에있어 사회주의의 승리가 끝난후 당규약은 변경되었다 입당에있어 개별적 부문을 위하여 존재하였던 제한은 제거되었고 로동자 농민 및 인테리계차를위한 일반적 입당원칙이 설정되였다

그러나 당은 자기 대렬에 개인별로 받아들이는 원칙과 가장 우수한 쏘련인민의 대표자들을 흡수하는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였다 당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눈동자와같이 보지하고있다。

四

볼쉐위끼당의 대렬은 자기대렬에 로동계급과 전체 쏘련인민의 우수한 사람들을 흡수하고있다는데에만 있는것이아니라 공산당원들의 행동과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조직하는데에도 있는것이다 볼쉐위끼당은 자기 대렬의 모범적인 조직성으로 전체 인민에게도 조직성을 가르쳤다 레닌—쓰딸린당은 유일하고 단결된 중앙집권제의 조직이다。

볼쉐위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다시말하면 쏘련공산당(볼쉐위끼)규약의 주되는 사상의 하나는 중앙집권제의 사상 즉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사상이다 쓰딸린동지는 이명제를 창시하면서 자기의 저작 「프로레타리아계급과 프로레타리아당」에서 다음과같이 썼다。

「전투적프로레타리아트를 지도할것을 자기의 목적으로한 당은 개인의 우연한 집합인 것이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인도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중앙집권적 조직이어야 할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내부에서의 기회주의자들과 쏘베트시대에 있어서의 볼쉐위즘의 원쑤들인 뜨로쯔끼파 우익 민족편견주의자들의 진출과 볼쉐위끼를 반대하는 국제무대에서의 기회주의자들의 진출은 조직문제에있어서 레닌주의의 모든 원쑤들이 자기 투쟁의 칼날을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반대하여 당의 유력한 지도적 핵심을 차별할 필요성을 반대하는데로 지향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앙집권제는 볼쉐위끼조직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주었으며 모든 당단체와 당원들을 [illegible]의 원칙한 로선의 기초위에서 사상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 충실한 무기인것이다 중앙집권제는 당내의 기회주의자 분렬주의자 조직파괴자들과의 투쟁에있어서의 예리한 무기인것이다 볼쉐위끼적 중앙집권제는 유일한 조직적 총체로서의 그러고 또한 중앙위원회에 지도되는 유일한 당조직체로서의 당의창권과 활동을 보장하고있다 유일한 중앙부는 전반적계획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며 일체 당원과 단체들을 당의 과업에 수응하여 지도하기위하여 필요한 주권을 가지고있다 유일한 중앙주권은 당을 넓은 형태의 당파같은 산만하고 무정형적인 조직인것이 아니라 강철과같은 전투적이며 통일한 중앙집권제의 당으로 만들지원한 필수조건으로된다。

볼쉐위끼당은 유일한 강령과 유일한 규약 유일한 당규들 전체 당원의 동일한 의무 유일한 지도기관을 가지고있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는 원칙은 하부당단체로부터 상급당단체에 이르는 당전체에 통용되고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볼쉐위끼당에있어서의 중앙집권제의 필요성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프로

레타리아트앞에 제기된 과업의 성격자체로부터 고집어냈다 로동계급의 근본적 리익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하기위하여서는 그리고 그의 부분적 리익뿐만아니라 그의 다른 대렬의 리익을 위하여서도 성공적으로 투쟁하기위하여서는, 부르죠아국가의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기관을 반대하여 생사의 전쟁을 하기위하여서는 그리고 후에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위대한 창조적인 과업을 해결하기위하여서는 훌륭히 조직된 당과 중앙집권제의 당이 필요한것이며 중앙집권제없이는 전투적당이 될수없다고 레닌주의는 가르치고있다。

우리 국가에있어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의 각종의 그러고 복잡한 과업을 달성함에있어 필요하였던 거액의 금액은 만일 당이 중앙집권제의 기본위에서 건설되지 않았더라면 해결을 보지못하였었을것이다 유일한 중앙집권적 지도부인 쏘련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를위한 투쟁의 모든 력사적 경험을 보편화 하면서 가장 좋은 실례들을 가르쳐주며 결점들을 분석하며 그를 급속히 시정할수있는 방법들을 쓰게하고있으며 당앞에 나서는 정치적 과업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쏘련에 있어서의 많은 당단체의 일체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중앙집권제 원칙의 중요성의 가장 명백한 실례는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의 활동이다 가장 짧은 기간에 당은 자기의 대렬을 전체의 수요에 순응하여 재편하였으며 군대에 많은 공산당원들을 보냈으며 당단체들과 전체 당원들을 전시하 총후의 전투적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동원하였다。 당의 지도소에 의하여 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의 볼쉐위끼적 조직들은 고의 과업들을 수행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있어 당중앙위원회는 선두에 섰다 단기간에 전체 당단체들은—초급단체、구역위원회、시위원회、주위원회、지방위원회、민족들의 공산당중앙위원회—전투적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은 볼쉐위끼적 중앙집권제 없이는 달성될수없었을것이며 레닌—쓰딸린당의 아들들이 오래 동안을 두고 투쟁하였으며 교양한 중앙집권제의 기본위에서 가능하였다。

볼쉐위끼적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를 제거하지않으며 선도권을 억누르지않는다 반대로 이는 당내부 민주주의의 선도권 및 공산당원들의 독자성의 발전을 촉진한다。

볼쉐위끼적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이다 그것은 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의 일체 당단체들의 회합을 가지며 그를 선거한 조직앞에서 계통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데있다 더우기 선거된 당기관들은 당원대중들의 계통적인 감독밑에

있다。

一九三七년 三월에 중앙위원회 총회석상에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당원대중은 자기의 지도자들을 열석분사들에서、회의에서、대회에서、그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결점을 비판하는 방법으로、끝으로는 그를 또는 다른 지도적 동지들을 지도기관에 선거하거나 선거하지않는 방법으로써 검열하고있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전체 당원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자기가 선거한 대표자를 통하여 당회합、회의、대회에서 당의 결정을 작성함에 참가할수있다 이와같이하여 우리당의 결정은 공산당원들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하고있다 결정이 채택되었을때 또는 적당한 국적 회의에 의하여 결정이 지어졌을때 매개 당원들은 그것을 실행하여야할 의무가있다。

로써야공산당(볼쉐위끼) 제八차회의에서 쓰딸린동지는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당원대중의 적극성과 의식성의 제고로써 또는 문제들의 심의에 뿐만아니라 당사업에 당원대중들을 계통적으로 흡수하는것으로써 인식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당의 규약은 당의 조직적 구성의 기본으로되어있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원칙의 완전한 규정을 내리고있다 우리당규약에는 다음과같이 씌어있다。

「당의 조직적 구성의 지도적원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이다 즉

1、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의 당의、일체 지도기관은 선거되어야한다。

2、자기의 당단체앞에서 당단체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여야한다。

3、엄격한 당규율과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여야 한다。

4、상급기관의 결정을 하급기관은 무조건하고 실행하여야한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결정적인 정치적 과업을 해결함에 당의 주의와 력량을 동원하며 매개 당원들과 당의 전체 대렬을 이 과업을 실천하는데 추동하는 가능성을 준다。

이와같은 원칙에 의한 당의 건설만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모든 계단에 있어 자기의 단체와 당원대중을 지도할 가능성을 가지는것이다。

× × ×

볼쉐위즘의 조직적 원칙의 부동성을 규약에 본지하며 또는 강조하면서 당은 변경되는 력사적 조건들과 새로운 자기의 과업에 순응하여 새로운 여러가지의 규칙들을 내세우고있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대회에서 채택된 규약은 당내부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규칙

들을 포합하고있다.

당내부민주주의적 선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일체 당단체의 일상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지도적 원칙에 있어야 할것이다 지금 약四十년전에한 쓰딸린의 말은 더욱더 강력히 울리고 있다. 볼쉐위즘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있어 볼쉐위끼적 민주주의의 레닌적 원칙을 고수하며 발전시키면서 一九〇六년에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썼다.

「참말로 민주주의는 당단체에있어서 당원대중을 발동시키며 당원대중들로하여금 당적 제문제에서 해결이 전반적인 실천적 제문제도 해결케하며 당원대중들로하여금 자기의 결의를 짓게하며 이결의를 실천함을 자기의 조직에 맹세케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선거에만 있는것이아니다……우리들에게있어 문제는 당원대중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이 발동하는 행동의 민주주의에 있는것이다 이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런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민주주의 조직의 기본이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것이다」。

당내부민주주의는 볼쉐위끼적 자기비판과 긴밀히 련결된다 당대렬에있어서의 공개적이며 로골적인 비판은 자기 대렬내에있어서의 자아비판을 무서워하는 제二인터나쇼날당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당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볼쉐위즘의 주요한 리론가인 레닌과 쓰딸린은 [illegible] 자아비판의 방법을 당활동의 [illegible] 방법으로 만들었다 쓰딸린동지는 볼쉐위끼당의 [illegible] 근본적 학파인 「쓰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의 결론에서 이 방법과 의의를 특히 강조하였다.

「만일 당이 [illegible] 자기비판을 두려워하지않는다면, 만일 당이 자기의 활동의 오유와 결함을 [illegible] 숨겨 [illegible]지 않는다면, 만일 당이 당활동의 오유로부터 교훈을 얻어 인재를 교육하며 훈련할 [illegible], 만일 당이 제시에 자기의 오유를 정정할 줄 알면, 당은 불패의 것이 된다」(「쓰딸린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조선어판 六二八페지)

자기비판은 물론 순간적인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과 로동계급의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볼쉐위끼적 방법이며 당의 전체 사업의 볼쉐위끼적 방법이다 볼쉐위끼적 자기비판은 당활동의 가본이다 공산당이 국가의 기본적인 지도적 력량이며 핵심적 력량인 쏘련국가의 조건에 있어서 자기비판은 특히 커다란 의의가 있는것이다 로동계급독재의 조건에 있어서의 자기비판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一九二八년에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강조하였다.

「자기비판의 구호는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자

기비판은 볼쉐위끼당의 기본 자체에있다 자기비판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제도자체에있다 만일 쏘련국가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당이 독재를 지도하며 그가 타당과 주권을 나누지않으며 또 나눌수없다면 우리들의 과오들을 우리들자신이 폭로하며 시정하여야한다는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그리고 만일 앞으로 전진할것을 바란다면 어떤 과오임을 물론하고 이를 폭로하고 시정하여야할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동무들 자기비판이 우리들의 발전을 앞으로 추동시키는 중요한 힘중의 하나이어야 한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을까?」

당은 성공에 도취하며 조그마한 성공에 만족하는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당은 가지고있는 결점들을 랭정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스다노브동지는 一九四六년八월에 레닌그라드 당단체 열성자회의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현조건에 있어서의 자기비판의 의의를 다음과같이 강조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우리들에게 만일 우리들이 간부를 보지하며 그들을 배워주고 교양하려 한다면 우리들은 누구든지 모욕을 무서워하여서는 안되며. 원칙적이며 랭정하며 공개적이며 객관적인 비판을 무서워하여서는 안된다」。

자기비판의 전개는 결점들을 제기하며 곤난을 극복하며 그리고 대중들을 전후 쓰딸린적五개년계획의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동원하게한다.

× × ×

볼쉐위즘의 중요한 조직적 원칙은 당원들에게 강철같은 규률을 요구하는데있다 이와같은 규률이 없이는 진정한 프로레타리아의 당으로 될수없다

「당이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만약 그 대렬의 통일을 보자하고한다면 당은 지도자거나 보통당원이거나를 물론하고 전당원에게 동등으로 의무적인 통일된 프로레타리아규률을 실시하지않으면 안된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조선어판 八七페자)

레닌과 쓰딸린은 볼쉐위끼적 규률의 원칙을 위하여 거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각종의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당대렬내에 있어서의 레닌적 규률요구를 공격하였었다 기회주의는 자기의 본질에있어 규률을 견디어내지못한다 프로레타리아적인 볼쉐위끼적 규률은 기회주의에 대하여서는 죽음을 가리키는것이다 규률이없는 그런곳에는 기회주의의 성장을 위한 좋은 로대가 있는것이다 명백한 실례로는 개량주의자들의 당과 사회—민주당은 부패한 기회주의와 밀접히 련결된다는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강철같은 규률의 기초위에서

볼쉐위끼당은 건설하였다 그네들은 전투적인 혁명적 당에있어서의 규률의 의의를 창시하였다 볼쉐위즘의 조직적 원칙을 서술한 모든 그네들의 저작에는 규률의 요구가 엄중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규률이 없이는 당의 행동과 의지의 통일을 기할수없는것이며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원칙이 실시되지않으며 그리고 일체 당단체와 당원들의 사업이 보장되지않는것이다 레닌이 작성하여 一九〇三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서와같이 쏘련공산당(볼쉐위끼) 제十八차 대회에서 승인된 규약에도 볼쉐위끼당 규률의 요구는 기본적인 요구의 하나로되어있다。

만일 사회주의적 혁명 이전의 지하사업시기에있어서 당에게 규률이 필요하였다면 혁명후에있어서 그는 더욱 커다란 의의를 가졌었다 당은 주권을 장악하고있으며 쏘베트국가 직업동맹 협동조합 청년동맹 및 기타단체들을 지도하고있다 이 모든 기관들에서 일하는 매개 당원들은 쏘베트기관에서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반드시 당의 로선을 실시하는것과 당지도기관들의 결정을 실시하는것과 밀접히 련결되어야한다。

모든 당단체들은 당지도기관의 결정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로동자 골호즈원 모든 근로자대중을 당결정을 실천하는데 동원하고있다 볼쉐위끼적 규률의 원칙 위에서만 당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있어서 그리고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시에있어서 자기의 파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할수있는것이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규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한 규률을 요구하고있다 규약은 전체공산당원들에게 상부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당단체들에게 규률을 요구하고있다 규약은 비당적 단체내의 당그루빠에 규률을 요구하고있다。

볼쉐위끼적 규률의 력량은 그의 심각한 의식성과 사상성에있다 볼쉐위끼들의 자기사업의 정확에 대한 확신성、사회에관한 과학적 맑쓰—레닌주의에 립각한 볼쉐위끼적 사상성、그리고 로동계급에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은 당과 쏘베트국가로하여금 자기의 견고성에있어 아무것과도 비할데없는 볼쉐위끼적 규률을 만들고있다。

당내에있어서의 규률은 당내부민주주의의 기본위에서 강화되고있다 쓰딸린동지는 볼쉐위끼적 규률의 계급적 성질을 다음과같이 썼다 「……당내부에있어서의 강철같은 규률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의 통일과 행동의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통일이없이는 생각할수없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내부의 의사의 투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강철같은 규률은 비판과 당내부의

시싱투쟁을 여젼하고있다 더우기 이것은 반드시 규률은 「맹목적」이어야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않는다 강철같은 규률은 복종의 의식성과 자원성을 제거하는것이아니라 반대로 이것을 예상하고있으며 오직 의식적인 규률만이 실제에있어 강철같은 규률이 있을수있는것이다 그러나 의사투쟁이 끝났고 비판이 끝났고 결정이 채택된 후에있어서 전체 당원들의 행동과 의사의 통일은 규률의 필수조건이며 그것없이는 당의 통일도 당내부에있어서의 강철같은 규률도 생각할수없는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七二—七三폐지제十一판)

현시기에있어 당내부의 규률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다 현재 쏘베트국가앞에 제기되고있는 대내적 및 대외적 과업의 성격과 쓰딸린적 전후五개년 계획실행을위한 투쟁에있어서의 당의 지도역할 수행은 볼쉐위끼대렬에 있어서의 견실한 규률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五

새로운 형태의 당으로서의 레닌—쓰딸린당은 프로레타리아트계급조직중의 최고조직형태이다 로동계급은 수다한 조직 즉 직업동맹、협동조합、녀성단체、청년동맹、문화교육단체 및 기타를 가지고있는바 당은 그것없이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할수없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조건에있어 이단체들은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자기의 리익을 고수하며 부르죠아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며 주권쟁취를 준비하는것을 도와주고있다。

그런데 여기에있어 문제가 되는것은 어떻게 이와같은 여러 단체에있는 로동계급을 통일적으로 지도할것인가? 하는것이며 누가 이모든 단체들을 결속할수있으며 행동로선의 유일을 기하며 그들의 사업을 한가지 방법으로 조직할수있는가?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와같은것을 할 력량을 가지고있다 즉 당은 모든 근로자들의 조직을 리론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지도하고있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당은 이것을 위하여 모든 자료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비당적 단체와 직접적인 련결을 가지고있으며 아주 때때로 그네들을 지도하고있는 로동계급의 정예분자들의 집합소이라는데있으며 그것은 둘째로 당은 로동계급의 정예분자들의 집합소로서 자기 계급의 조직의 모든 형태를 능히 지도할수있는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우수한 학교이라는데있으며 그것은 셋째로 당은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의 우수한 학교로서 자기의 경험과 위신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지

도록 집중하며 이렇게함으로써 모든 로동계급의 비당적 단체들을 계급과 련결시킨 조혁(帶革)과 기관으로 전변케하는데 능숙한 유일한 조직이라는데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제국가에있어서의 기회주의적 사회당들은 비당적인 로동자들의 조직의「독자성」과「중립성」의 리론을 설교하고있다 실지에있어서 이와같은 정책은 례하면 개량주의자들과 각종의 가면을 쓴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들이 침입한 직업동맹에 의하여 지도되고있다 이와같은 정책은「자주적」의회정치주의자、당으로부터 절연된 출판물활동가 및 변절한 협동조합원들에 의하여 장려되고있다 이와같은 당들의 활동의 모든 경험은 그 당들이 로동계급의 근본적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아니라 조그마한 동냥을 얻으려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이 기회주의적 원칙들은 우리 당의 각종의 반당적 그루빠와 련결하려 하였었다 례를들면 소위「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그루빠는 一九一九—一九二〇년에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제도에 있어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소위「로동반대파」는 一九二〇—二一년에 직업동맹이 쏘베트국가에있어 마치 지도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는 것처럼 확인하며서 직업동맹을 당에 대치시키려하였으며 그리고 쏘베트국가에있어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침해하려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一九二八—二九년에 직업동맹에는 우익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났었다。

당은 이 모든 반당적 그루빠를 물리쳤으며 그리고 국가에있어서 자기의 지도적이며 핵심적인 활동의 실행을 보장하였다。

쏘베트동맹에있어서 모든 로동계급의 단체들—쏘베트、직업동맹、협동조합、공청 및 기타 군중 위 기당의 지도밑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대중의 공산주의적 교양을 위하여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당은 이 모든 단체들에 대하여 최고 조직형태이다 당은 이 단체들을 지도하며 이렇게함으로써 모든 쏘베트인민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함을 보장하고있다 당의 지도적 역량은 지도의 형식과 형식적 복종에 있는것이아니라 당의 높은 권위와 영향의 힘에 있는것이며 이는 쏘련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각종 단체에서 일하고있는 공산당원들이—설복의 방법으로—보여주고있다。

六

볼쉐위끼당은 로동계급의 선진적 대변자며 로동계급 및 모든 근로자 대중과의 련결의 권화이다 라고 레닌과 쓰딸린은 가르치고있다。

레닌이 말한바와같이 당은「반일로 프로레타리아를

선두로한 가장 광범한 근로자 대중들과 그리고 또한 프로레타리아가 아닌 근로자 대중과도 융합하려하며 또 어떤 정도에있어 그들과 련결되며 접근되면」(레닌전집 제二五권 一七四페지)불패할것이다。

쓰딸린동지는「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에서 볼쉐위끼당이 걸어온 력사적 행정의 학과를 총결하면서 대중과의 당의 견고한 련결의 의의를 특히 다음과같이 강조하였다「당의 력사는 대중과 광범한 련계없이는、이러한 련계의 부단한 강화없이는、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초미의 필요를 리해함이없이는、또 대중을 가르칠뿐만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우는 용의가없이는 로동계급의 당은 몇백만의 로동계급과 모든 근로자들을 지도할 능력을 가진 진정한 대중적 당이 될수없다는것을 가르킨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조선어판 六二四페지)

쏘련공산당은 자기 탄생첫날부터—가혹한 지하운동의 조건에있어서나、혁명의 조건에있어서나、쏘베트시기에있어서나—대중과의 자기의 련결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계통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확대하였다는것을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의 력사는 보여주고있다 볼쉐위끼당의 대중과의 견고한 련결은 짜리전제의·테로와의 투쟁에서 뿐만아니라 당을 대중의 뒤꼬리를 따르는 유약한 무정형한 조직으로 전변케하며、대중으로부터 떨어진 협소한 종파적 그루빠로 전변케하려는 로동계급의 공개적인 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속에서 이루어졌다。

一九〇五—一九〇七년의 제一차 로씨야혁명이 실패한후의 짜리반동기의 실례를 들어보자 그 당시 당대렬에는 청산파가 출현하였었다 멘쉐위끼들인 청산파들은 당강령의、혁명적 요구를 로골적으로 그리고 배신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절대로 용인할수없는 교리인 짜리대신 쓰돌리삔을 위한 당인「쓰돌리삔로동당」을 만들려고 기도하였었다 청산파의「좌파」인 소환파들은 당을 파멸의길로、대중으로부터 절연되는 길로、그리고 또한 자멸의 길로 몰아넣으려 하였다 그 당시에 있어서 대중과의 련결을 위한 조건은 아주 곤난하였었다 즉 짜리반동의 테로는 볼쉐위끼들에 집중되였으며 짜리의 비밀경찰은 당단체들을 분쇄하였다 一九〇五—一九〇七년기간에 존재하였던 당활동에있어서의 거의 합법적인 조건은 반동기에 있어서 지하운동의 가혹한 조건으로 바뀌어졌다 이때에있어서 대중과의 당의 련결을 보장하기위하여 볼쉐위끼적 노선을 특히 기술적으로 실시할것이 필요하였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모든 당단체들로하여금—중앙기관으로부터 지방 세포에 이르기까지—합법적 단체도

포합한 대중과의 련결을위한 모든 가능한 방도를 리용케 하기위하여 노력하였었다 당은 짜리제도를 폭로하며 짜리전제의 새로운 습격에대한 인민들의 정치적 준비를위하여 국회의 연단을 리용하였다 당은 직업동맹 보험회사 및 문화교육단체들에서 사업하였다 다시 말하면 당은 대중과의 련결을보지하기위하여 각종 형태를 리용하였다 이 결과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의 시기에 볼쉐위끼당은 전당내의 유일을 보이었는바 이는 대중과의 련결을 보장하였으며 로동운동에 있어서의 자기의 지도적 역활을 보자하였다。

우리당의 력사는 그의 위신과 영향이 그의 대중과의 견고한 련결과 인민의 리익 및 행복을위한 부단한 영웅적 투쟁의 결과로 확고히 장성되였다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볼쉐위끼당의 정치적 역군과 그의 대중적 지반은 투쟁의 행정에서 계급들의 첨예한 충돌의 조건에서 장성되었으며 그리고 강화되었다 대중자신들이 자기의 경험으로서 볼쉐위끼들을 자기들의 근본적 리익의 옹호자라고 확신하게 됨에따라 당은 장성강화되었다 三十년전의 一九一七년 혁명시기에있어서의 폭동도 그러하였다 볼쉐위끼들의 구호는 수백만명의 구호였었다 그것은 볼쉐위끼당의 정책이 계급세력 관계에대한 엄격한 과학적 견지에서 출발하였으며 인민들의 요구에대한 심각한 인식과 모든 피압박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숙망에대한 심각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기때문이다。 당은 그의 로선과 전환을 옳게 규정할수있었는바 이는 당정책을 접수하는데로 대중들을 인도하였다。

쏘베트정권이 승리하였을때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국가주권의 근본적인 기본으로되었을때 당과 계급간의 련결은 새로운 성격을 띠었었다 당은 새로운 조건에서 이미 낡은 제도의 타파를 위하여서가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수립을 위하여 착취자들의 파괴적 음모로부터 인민정권을 고수하기위하여 인민들과의 자기의 련결을 확장시켰다 청소한 쏘베트국가의 탄생초기에 레닌은 인민들에서 커다란 신망을 받은 「경쟁은 어떻게 조직할것인가?」라는 론문을 썼다。

레닌은 쏘베트정권을 없새려는 혁명의 원쑤들의 기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회주의는 「수천 수백만 사람들로하여금 자본주의를 동요케하였으며 말살케하였고 또 보통사람들로하여금 인난들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게하였으며 자기의 재능을 발휘케하였기때문에」 (레닌전집 제二二권 제一五八페지) 노예소유자들은오산하게된것이라고지적하였다。

레닌은 「마치 소위 「상층계급」만이, 그리고 부유한

계급 또는 학교를 다닌 •••부유한 계급만이 국가를 관리할수있다는 낡고 어리석고 미개하고 추악하고 징그러운 선입견」을비난하였다 그는 인민속에 「많은」 조직적 재능이 있다는것에 관하여 썼으며 •또 그는 로동하는 사람들은 「겁내지말고」 자기를 「지•배계급」이라고 생각하라고 결정적으로 호소하였다 재능은 「인민들속에 많다―레닌은 썼다―그는 오직 억눌리우고있다 그를 발전시키는데 원조하여야한다 대중은 그의 그리고 오직 그의 원조에 의하여서만 로씨야를 구할수있으며 사회주의의 사업을 구할수있다」 이렇게 이 론문은 의미 심장하게 끝나고있다。

쏘베트국가의 三十년은 볼쉐위끼당이 오랜 세월을두고 파무혀있던 인민들의 거대한 력량을 일으켜 세웠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인민들은 로씨야를 혁신함에있어 사회주의적 개혁의 레닌―쓰딸린적 계획을 실시함에있어 기적을 수행하였다。

쏘베트인민들이 볼쉐위끼당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 인정하며 그의 정책을 자기의 것으로 접수하며 지지하는 이와같은것으로 볼쉐위끼당은 사회주의 건설에 전인민을 궐기시키며 국가공업화와 농촌경리 집단화의 레닌―쓰딸린적 계획을 실시하는데 전인민을 궐기시킬수있었다 쓰딸린적五개년계획들의 기간에있어서의 위대한 사어계획들을 수행하는 투쟁에있어 인민대중은 자기개인과 자기의 강력한 창조적 활동을 다바쳤다 대중들속에서의 견결한 사업의 결과로 당단체들은 사회주의적 경쟁돌격운동 및 쓰따하노브운동과같은 생산에있어서의 력사적 운동형태들을 제고시켰다。

사회주의의 승리 다시말하면 쏘련에있어서 착취계급이 근절된 결과로 당은 전사회의 도덕적―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였다 공산주의와 인민은 쏘련에있어서 유일한 힘으로 되었다。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있어 당의 위신은 더욱 장성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들과의 그의 련결은 더욱 굳어졌다 쓰딸린동지는 말하기를 「전쟁기간에 있어서 당은 인민들과 더욱 친근하여졌으며 광범한 근로자대중들과 더욱 굳게 련결되었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때문에 볼쉐위끼당은 조국을 방위하는 위대한 위업에 쏘련인민을 조직할수있었으며 고무할수있었다。

당과 인민의 장성되는 련결의 아주 명백한 실례는 쏘련최고쏘베트、가맹공화국、자치공화국최고쏘베트및 지방근로자 대의원 쏘베트의 선거들에서 표시되었었다 선거에있어서 당은 비당원들과의 뿔럭(동맹)밑에서 진출하였으며 이 공산당원과 비당원뿔럭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쏘베트인민은 자기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볼쉐위

끼당의 정책은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쏘베트인민들은 이 정책을 신임하는것이며 그를 완전히 지지하는것이다 현시기에있어 이것은 쏘베트인민들이 쓰딸린적 새五개년계획을 초과수행하기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경주하고있다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쏘베트사람들은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네들의 조국인 쏘베트국가의 위신의 장성과 인민들의 복리와 문화의 발전이 달려있다는것을 알고있다.

七

볼쉐위끼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쟁취하며 강화하는 무기이며 쏘베트국가의 기본적인 핵심적 지도적 력량이라고 레닌주의는 가르치고있다.

로동계급당의 지도적 역할을 사회주의에로의 실제적 운동의 필수조건으로서 인식하는 대신에 기회주의적 사회민주당은 부르죠아정당들과 동맹을 맺는 다시말하면 부르죠아정당들에게 복종하는 정책을 쓰고있다.

로씨야의 「경제주의자들」과 멘쉐위끼들은 「로동계급을 「동전몇잎」을위한 그리고 로동자들의 생활의 부분적 개선을위한 투쟁의 길위에와 자본주의와 타협하며 자본주의의 구멍을 메꾸는 길위에 내몰며 고하였었다 뜨로쯔끼파 부하린파 지노비에브파 및 기타는 十월혁명 이후에있어 레닌주의의 원쑤들로 나섰으며 그들은 쏘련에 자본주의를 재생시키는 정책을 썼다.

기회주의자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레닌과 쓰딸린은 제국주의 시기에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시기에있어서는 투쟁에있어 용감하며 투쟁에 경험이 많으며 투쟁에서 단련된 의지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이 강한 그리고 또한 무장 폭동과 정권쟁취에 프로레타리아트를 동원함에있어 능숙한 그와같은 「전투적당」이 필요하다는것을 증시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대중적 조직들을 자기주위에 집결시키며 투쟁과정에있어 모든 운동에대한 지도를 집중하는데있어 능숙한 당이 없이는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혁명적 독재를 실시할수 없었을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七一 페지)

「로동계급에게는 당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하여서뿐만아니라 쏘베트국가를 강화하며 그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에 리용하기위하여 필요하다 정권을 쟁취한 이후에있어서 로동계급 앞에는 새로운 복잡하고 곤란한 과업을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착취계급을 청산하며 기본적 농민대중과의 견고한 동맹을 설정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외국의 원쑤들의 침범을 방어하는 과업들이 제기되고있다 이것을위하여서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쏘베트국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정당이 만일 국가의 지도적이며 핵심적인 력량이되며 그리고 그의 지주가 되는 그런 조건에서만이 가능한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지적하기를 「기본적인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당이없이는 결코 장기간의 그리고 견고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불가능하다」(「레닌주의의 제문제」 一二一 페지)

즉 이것은 쏘베트주권의 모든 원쑤들이 「공산당원들이 없는 쏘베트」와같은 등등의 반혁명적 구호를 내걸면서 항상 그리고 우선 쏘베트국가에 있어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파괴하려하였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주고있다 우리국가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쏘베트국가의 원쑤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았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항상 레닌-쓰딸린당을 지지하였으며 그리고 지지하고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지주와 자본가의 주권이 전복된후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위하여 당의 지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의 우수한 의의를 강조하면서 쏘베트국가에있어서의 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작성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에관한 레닌적 학설의 커다란 의의를 강조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레닌이 맑쓰주의에 공헌한 새로운것을 총결하면서 당에관한 학설을 특히 강조하였다 즉 「이 영역에있어서 레닌의 새로운것이란 제국주의 시기에 적응한 이 초안(당에관한 맑쓰와 엥겔쓰의 초안-주 저자)을 더욱 발전시킨데있는것인바 즉 다음과같다.

ㄱ、당은 다른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형태(직업동맹 협동조합 국가기관)보다 더욱 높은 형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조직인바 당은 다른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의 사업을 총괄하며 지도한다.

ㄴ、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그의 핵심적 세력으로서의 당을 통하여서만 실시될수있다.

ㄷ、프로레타리아트독재는 만일 그가 다른 당과 지도를 나누지않으며 또 나눌수없는 공산당에 지도되는 그런 경우라야만 있을수있었다.

ㄹ、당내부에 강철같은 규률이 없이는 착취자들을 진압하며 사회주의의 사회에있어서 계급적 사회를 변혁하는데 관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과업이 실현되지 못하였을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十판 一七二一七三페지)

쓰딸린동지는 당에관한 레닌적 학설을 더욱 깊이 탐구하였으며 각종의 기회주의자들—뜨로쯔끼파 지노비예브—부하린파 및 기타의 레닌주의의 원쑤들—의 의곡시키려는 기도로부터 레닌주의를 고수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저서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레닌주의의 기본에대하여」와 「레닌주의의 제문제」라는 저명한 저서에서 그리고 자기의 당대회에서의 보고에서 쏘베트국가에있어서의 당의 지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활에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창시하였으며 그리고 발전시켰다。

쓰딸린동지는 공산주의로의 로정에있어서의 쏘베트국가의 전진의 새로운매개 계단에있어 당을 계통적으로 리론적으로 무장하고있으며 쏘베트국가의 강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면서 당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규정하고있다。

스다노브동지는 제十八차당대회에서의 보고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만일 레닌이 자기의 저명한 저서 「一보전진 二보퇴각」에서 새로운 형태의 당인 볼쉐위끼당의 조직적 기초로된 조직적 규정을 전개시켰다면 쓰딸린동지는 리론 이데올로기 및 전술방면에있어서와같이 우리들의 일체 조직적 사업을 과학적 궤도위에 제기하는 문제에있어서도 레닌이 준 당에관한 조직적 학설의 기본을 더욱더 발전시켰으며 당에관한 조직적 학설을 새로운 명제로써 새로운 법칙으로써 보충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당조직건설의 제문제에있어 창조적 맑쓰주의의 모범에 빛나는 당을 가르쳤다 나는 정치적 로선과 조직적 사업간의 관계에관한 학설, 간부의 과학적 선택 조직 교양 및 등용과 배치에관한 학설, 집행검열의 볼쉐위끼적 조직에관한 학설, 당대렬내에 침입한 원쑤들과의 당의 투쟁방법과 변절자 및 표리부동한 자들로부터 당대렬의 순결을위한 당의 투쟁방법에관한 학설, 볼쉐위끼적 경각성과 볼쉐위즘으로의 무장에 관한 학설들을 들수있다。

쓰딸린동지는 이 모든 문제에있어서 현명하고 통찰력있는 지시로써 당을 무장하였는바 이는 조직과 실제지도의 볼쉐위끼적 리론에대한 가장 귀중한 기여인것이다」。

우리 사회주의국가는 자기 발전에있어서 두개의 커다란 단계를 지나왔다. 첫단계는 十월혁명으로부터 착취계급의 청산까지이며 두번째 단계는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요소의 청산으로부터 사회주의경제체계의 완전승리에까지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도상에있어 쏘베트국가앞에 나서는 모든 파업들의 해결은 레닌이 가르친바와같이 「투쟁에있어 단련된 강철같은 당이없이는 자기 계급의 매개인의 신임을 받는 당이없이는 대중의 기분을

리해하며 그들에게 영향주는 당이없이는」(레닌전집 二五권 제一九一페지) 불가능하였을것이다。

레닌—쓰딸린당은 쏘베트국가의 근본적인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쏘베트인민의 승리의 고무자이며 조직자로서의 자기의 역활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있다。

볼쉐위끼당의 지도적이며 핵심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이 곧 쏘베트국가의 력량의 원천이며 사회주의의 력사적 승리와 쏘베트인민의 모든 쟁취의 원천이다 여기에 공산주의의 길로의 승리적인 전진과 우리조국의 위력강화와 쏘련인민들의 행복된 생활과 보장된 생활의 담보가있는것이다。

전쟁으로부터 평화시 건설로 넘어서면서 당은 새 五개년계획의 완수와 초과완수의 거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쏘련인민들은 도시와 농촌에있어서의 당단체들과같이 상부로부터 하부에이르기까지의 그의 기관들과같이 이과업을 수행하기위하여 견결히 사업하고있다 그리고 쏘련인민들은 레닌—쓰딸린당에대하여 자기의 무한한 사랑과 신임을 표시하고있다 「어떤 당도 우리 볼쉐위끼당과 같이 인민대중들에있어 그와같은 위신을 가지고있지못하며 또 가질수없다」(쓰딸린)

八

바로 이때문에 당은 쏘련근로자들의 첫대렬이며 쏘련국가의 핵심적이며 지도적인 력량이다 당은 반드시 의지통일의 총체이어야한다。

당은 푸락치와 그룹의 존재와의 상용할수없는 의지의 통일체이다라고 쓰딸린동지는 가르쳤다 우리당의 승리적활동의 근본적조건의 하나는 그가 항상 당원의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면서 자기대렬의 통일과 단결성을 눈동자와같이 귀중히 여겼다는데 있다 볼쉐위끼당은 자기 대렬내의 기회주의자들과 장기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였는바 기회주의자들은 당조직을 파괴하며 자기의 반당적 강령으로 당의 레닌—쓰딸린적 로선을 반대하며 하였었다。

당은 강령과 규약으로부터 후퇴하며 당규률을 파괴하는것과 상용하지않는 의지의 통일과 행동통일의 단결성으로써 강력하다。

볼쉐위끼들은 언제나 그리고 한시각이라도 의지의 통일을가지는 강철같은 조직으로서가 아니면 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통일의 요구 다시말하면 어떠한 푸락치도 허여하지않는 통일의 요소는 十월혁명 이후의 시기에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었다 즉 오직 레닌—쓰딸린당의 전체적인 지도밑이 혁명의 원쑤들을 격파하며,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사회

세이데만、까우쯔끼、제베링 및 기타와 같은 흉악한 모양들을 발생케하였는바 그들은 一九一八—一九一九년의 직접적인 혁명적 형세의 조건에있어 혁명을 억누름으로써 독일부르죠아지들을 도와주었으며 파시즘의 주권으로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제二차세계대전의 방화를 도와주었다。

기회주의의 력사는 마크도나르드、도마스 및 기타의 영국 레이보당 지도자와같은 사람들도 알고있는바 그들은 부르죠아지들의 주권을 강화하는데 힘썼으며 영국부르죠아지들의 독일파시즘 증장정책을 도와주었다 이 정책은 제二차세계대전을 가져왔다 이와같은 사회적 지주가없이는 부르죠아지들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시기에있어 자기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지못하였었을것이다。

국제기회주의의 력사는 그리고 또한 로씨야에있어서의 멘쉐위즘과 당내의 각종 기회주의 그룹—뜨로쯔끼파、부하린파、민족편견주의자들 및 기타의 력사는、국제부르죠아지들은 이와같은 자기의 주구들의 방조에의하여 로동운동을 파괴하며、로동자들의 당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하면서 로동계급에 대한 자기의 리론적 및 정치적 영향을 확강시키려 한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여기로부터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의 필요성과 로동계급의 당대렬로부터 그들을 추방할 필요성이 인식되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저서에서 특히「다시한번 사회—민주주의에관하여」「쓰련공산당(볼쉐위끼)내의 우경적 위험성에 관하여」라는 보고에서와 당대회에서 루차의 쓰련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 정치보고에서 기회주의의 사회적 근성과 그의 당대렬 내부로의 침입과정을 완전히 특징지었으며 기회주의와의 견결한 투쟁을 당대렬에서 기회주의자들을 추방하는데까지 이르러야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당과 인민의 흉악한 원쑤들—뜨로쯔끼파、지노비예브파、부하린파—파의 투쟁과정에서 쓰딸린동지는 이 그룹들의 사회적 지반을 해부하였으며 그리고 쏘련에 자본주의를 재생시키려는 그들의 투항적 본질을 폭로하였다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승리의 성공적인 투쟁을 위하여 당을 무장하였다。

「경제주의자와 멘쉐위끼를 분쇄하지않았다면 우리는 당을 건설하지못하였을것이며 프로레타리아혁명에 로동계급을 인도하지못하였을것이다。

뜨로쯔끼파와 부하린파를 분쇄하지않았다면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완성을위한 필수의 모든 조건을 준비할수없었을것이다 각색의 민족주의 편견주의자들을 분쇄하지않았다면 우리는 인터나쇼날리즘의 정신에의해서 인민을 교육할수없었을것이며 쏘련 각 민족의 위대한 친목의 기발을 지켜내지못하였을것

주의를 건설하며 외국의 원쑤들로부터 국가를 보위할수있었던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제五차 당대회의 당통일에관한 결정서에는 당대렬내에 어떠한 분파 그룹들을 허여하지않을데관한 조목이 레닌에의하여 써어졌으며 또 레닌은 기회주의분자들로부터의 당의 가장결정적인 순결성을 요구하였다。

레닌이 서거한후 기회주의자들은 당에대한 자기의 공격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그자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뜨로쯔끼파 지노비예브파 부하린파 및 볼쉐위즘의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당은 볼쉐위즘의 리론적 및 조직적 원칙의 경험에 립각하였었다 당과 쏘베트인민의 원쑤들과의 투쟁에있어서 쓰딸린동지는 레닌주의와 당에관한 레닌의 학설을 고수하였으며 또 앞으로 발전시켰다 이때문에 반당적인 적대적 그룹에대한 승리가 보장되었으며 당의 통일이 강화되었다 쓰딸린동지의 지도와 쓰딸린동지의 비타협성과 견인성때문에 외국간첩의 앞잡이들로된 모든 기회주의적 그룹들이 격파되였다 당은 더욱더 통일되었으며 단결되었다 이것은 쏘련에있어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창조적활동에있어 당의 성공을 보장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기회주의의 사회적 본질과 근원을 폭로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대렬내에 그가 침입하는 로정을 해부하였다 제국주의 시기에대한 심각、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레닌은 제국주의제국가의 부르죠아지들이 식민지를 착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초과리윤은 로동귀족을 매수하는 원천이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층은 기회주의의 근본적 구현자들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초과리윤을 자기국가의 로동자 사무원 및 인테리겐챠의 상층부를 매수하기 위한데 사용하며 그렇게함으로써 이층을 민족부르죠아지의 쇠사슬에 매어놓는다。

레닌은 다음과같이 썼다 「로동자들이 부르죠아화한 이층은 다시말하면「로동귀족」은 생활방법에 있어 로동임금의 규모에있어、자기의 세계관에있어 제二인터나쇼날의 주요한 지주이며 현재에있어서는 주요한 부르죠아지의 사회적(군사적이 아니다)지주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있어 로동운동에있어서의 부르죠아지의 앞잡이이며 자본가계급의 점원이다」(레닌전집 제一九권 제七七페지)

제국주의시기에있어서의 여러 국가의 사회발전과 로동운동의 력사는 이 레닌의 지적이 전적으로 정확하다는것을 명백히 확증하여주고있다 밀레란과 베른슈타인으로부터 현재에있어서는 부룸 슈마헤르 및 반동적 레이보당과 기타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제二인터나쇼날당은 부르죠아지들의 충실한 주구였었다 이층은 제국주의시기에있어서 식민지와 초과리윤위에서 성장하였으며 독일에있어서 노쓰케、

이며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을 건설하지못하였을 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간략독본」 조선어판 六二五—六二六폐지)

당내 의견불일치의 원인과 반당적 그룹의 투항적 본질에대한 레닌—쓰딸린적 분석은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당대렬의 견고한 통일을위하여 투쟁할 중요성에 대하여 심각한 인식으로써 당을 무장하였다。

당은 당내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리론 투쟁을 제한하지않았다 당은 기회주의분자들로부터 자기대렬의 순결성을 수호하였다 이것은 당을 강화하였다。

당은 쓰딸린동지의 지도밑에서 적대적 그룹을 타도하는 사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리고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볼쉐위끼당이 항상 볼쉐위끼적 이데올로기의 순결성을 고수하였으며 또 지금도 고수하고있다는데에서 가능한것이며 또한 이것은 당이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위대한 학설에 충실하며 리론에있어서나 실천에있어서나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있어 견결하였기때문에 가능하였다。

× × ×

쏘련공산당(볼쉐위끼)규약의 연구와 당에관한 레닌—쓰딸린학설의 기본의 습득은 매개 공산당원들을 당의 위대한 목적과 쏘베트인민의 리익을위한 투쟁을위하여 무장시킨다 볼쉐위즘의 조직적 원칙의 의의는 당원들의 당내규률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투쟁에서와 당정책의 실시를위한 투쟁에 있어 그를 원조하고있다 리론적 단련은 당 및 국가 사업에있어서 당원들 또는 후보당원들의 적극성과 활동성을 제고시켜주며 또한 그것은 쓰딸린적 새 五개년계획의 수행 및 초과수행을위한、군중의 공산주의적 교양을위한、쏘련에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있어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의 보장을 도와주고있다。(「쓰딸린전사」신문一七六二호에서)

당위원회 기관 사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쏘련공산당(볼쉐위끼)몰로또브주당위원회의 실지사업에서——

크·호메렙쓰끼

볼쉐위끼당은 당지도기관으로 하여금 당앞에 제기되고있는 과업의 수준에 서있으며 사업에서 조직성、규률성、정확성의 모범으로 복무하며 모든 행정기관과 모든 부서에대하여 모범으로 되기위하여 언제든지 막대한 고려를 발휘하였으며 발휘하고있다。

자기기관의 전투력에대한 당의 관심은 볼쉐위즘의 전통중의 하나이다。정돈되고 단련된 기관은 전체당사업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것을 레닌과 쓰딸린은 루차 지적하였다。「당적지도를 적당한수준에로 제고하기위하여 우선 당일군들의 자격을 제고하여야된다」고 쓰딸린 동지는 가르치었다。(전집 제七권 一七二 폐지)

현하의 조건에서 당과 쏘베트국가앞에 금후 국가경제와 근로자에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막대한 과업이 제기되었을때 당기관은 자기의지도성을 부단히으로 제고하여야되며 대중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및 조직적 역할을 보다더 훌륭하게 실행하여야 할것이다。이것은 며 큰 전투력과 당기관사업의 금후 개선을 요구하며 이것을 경유하여 주(州)、시、구역당위원회는 당결정 실행에대한 통제를 실시하며 실생활에서 당정책의 실천을 보장하는것이다。

× × ×

당단체의 사업수준은 당내 민주주의원칙、구체적으로 당기관의 활동에서 협의제도가 얼마나 철저히 실시되는가、비판과 자아비판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지도자들이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있는가 하는것으로써 결정되는것이다。이러한 기초위에서 지도를 하기위하여 당위원회는 당단체들과의 고정적 련락을 보장하며、그들을 지도하며、그들을 제때에 원조하며、당결정실행을 계통적으로 검열하는것을 보장할 그런 기관으로반드시 되어야할것이다。

간부들에대한 사업, 그들의 선출과 교양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특별한 책임이 당기관에 부담되었다. 어떤 사업의 성과에서든지 인재—간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아는바이다. 「당간부—이것은 당의지휘관들이다. 우리당이 주권을 잡은것만큼 그는 역시 국가지도기관의 지휘관으로 되는것이다. 실천에서 검열된 올바른정치로선이 강구된후 당간부가 당및 국가 지도부의 결정적 력량으로된다.」(쓰딸린 저서 「레닌주의의 제문제」 五九五 폐지)

여하한 파업이든지 결정하기에 능숙한 간부양성과 교육에 대단한 주목을 집중하였으며 집중하고 있다. 당은 여기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와 성공적 건설의 기본조건중 하나를 보고있다.

당과 쏘베트 지도자들은 일군들에 대하여 잘 돌보아주어야하며 그들에게 원조가 요구되는때에는 그들을 원조하여주며 그들이 첫 성공을 하였을때에는 그들을 표창하며 그들을 앞으로 등용할것이다.

모든 경제정치과업해결의 성공은 당기관 사업에 많이 의존되였다. 몰로또브주 당단체는 주에서의 경제 문화 건설에서, 사회주의경쟁 전개에서, 대중속에서의 정치사업에서 일정한 성공을 쟁취하였다. 이것은 당의 로선을 실천하는 사업에서 당기관의 기능성을 증명하는것이다. 그러나 당기관의 활동에는 당위원회사업의 질을 낮추는 중요한 부족점들이 아직 적지않게있다. 구체적으로 간부에대한 사업에서도 부족점이 있는것이다. 간부에대한 사업과 실행검열을 호상분리된것처럼 간주하였다. 부분적 지도자들은 간부와의 세밀한 일상사업을 표면적인 관찰 또는 오유와 부분적 사람들의 실패의 등록으로 대치하였다. 부분적 당위원회 기관의 부족점은 우선 그사업의 부정확한 조직으로부터 출발한다.

최근에 몰로또브주 당위원회는 주, 시, 구역당기관의 역할을 제고할 제대책을 취하였다. 주당위원회의 비서들, 상무위원들, 부장들이 여러 도시와 구역에 나가서 현장에서 시, 구역당위원회부서의 활동을 상세히 연구하며 당기관일군들의 협의회의를 진행하며 많은 일군들과 담화하며 당기관사업의 작풍과 방법의 개선을 원조한다.

시, 구역당위원회의 활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기관 일군들을 옳지못하게 리용하며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사실까지 보게되였다. 례를들면 군구르구역당위원회 비서 까이고로도브동지는구역당기관을 과소평가한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가 지도하는사람들의 력량과 기능을 믿지아니하였다. 까이고로도브동지의 말에의하면 「어떤 중대한 일은 누구에게든지 위탁할수 없다」는 것으로 모든 일을 그는 자기가 하였다. 사실은 군구르 구역당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였던 것이 아니다. 다수 일군들은 그

들을 지도하고 인도만하여준다면 더 성과있게 일할수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지도가 구역위원회에 없었던것이다. 이곳에서 당기관은 사실상 자기만족하고있다. 까이고로도브동지는 요행 가다가도 부장들과 지도원들을 소집하였다. 사람들과 참을성있게 사업하는 노력으로부터 회피하면서 비서는 사업으로부터 구역 기관을 제거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구역당위원회 비서 자체가 제아무리 경험있고 정력이 있다한들 구역에대한 정상적인 당지도는 있을수 없는것이다.

당기관을 과소평가하는것은 혹시는 시, 구역당위원회비서들이 일군의 다부분을 그릇되게 리용하는데도 있다.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경제 캄빠니야 진행에 관한 전권위원으로 수개월간 한두 꼴호즈에만 있게하고 그들이 반드시 취급하여야할 다른 초급당단체의 생활로부터는 절연하게하는 그런 구역당위원회도 볼수있다. 이런 실례는 오한 구역당위원회에 있었던것이다. 구역당위원회 조직지도부 부장 쏘로드니끄브동지는 작년 一년간은 구역당위원회의 전권위원으로 두 꼴호즈에만 가서 있었으며 구역내 당단체들의 사업에대하여 관심을 돌리지못하였다. 동구역당위원회의 지도원들의 사업에서도 이와같은 부족점들이 있었다. 이곳 많은 단체들에서 당사업을 등한히 하였던것은 놀라운것이 아니다. 부분적 구역당위원회 비서들은 구역 당위원회 일군들을 이렇게 리용하는것은 「지도효력의 지표」라고 인정한다. 이런 실습은 일방면으로는 경제계획을 실행하기위한 쏘베트 및 경제 기관의 책임감을 저하하며 타방면으로는 초급단체 사업에대한 당기관의 책임감을 저하하며 당내부사업을 약하게한다.

다른종류의 사실도있다. 구역 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에서 어데로든지 출장을 가지않고 수개월을 걸처 각종 자료만 수집하는 지도원들을 만나볼수있다. 웰호네물린 구역 당위원회에서는 이와는 다른 딴방향으로 지내치였다. 이곳에서는 지도원을 순회배우(巡回俳優) 같은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一개월간에 지도원을 전체 초급단체를 다돌아다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출장의 결과와 필요성에대한것은 생각하여 보지도 않는다. 구역 당위원회의 九월사업안에 의하면 지도원 오그롬린동지는 九개의 당단체에 가보아야 할것이다. 즉 六개의 당단체에가서는 사업을 검열하며 당단체에 실지 원조를 할것이고 三개의 당단체에가서는 소집될 협의회에 보고를 준비하는 일에있어서 초급당단체 비서들을 원조할것이다. 이 외에도 오그롬린동지는 그 월간(月間)에 二개 뜨락또르작업반 사업에대한 구역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실행을 검열할 의무를 가졌으며 기타 제위임을 실행할것이다. 다른 지도

원들의 사업도 대략 이렇게 계획되였다。

당기관을 그릇되게 리용하는것은 부분적 시、구역 당위원회가 시、구역 당단체사업의 기본문제를 총합하지 못하며 우선 초급당단체 생활과 관련된 제중대 문제들을 놓쳐버리게한다。이 외에도 이런 사업장풍은 당일꾼들의 장성을 장애하며 당일꾼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시야를 확대하며 자기의 자격을 향상할 가능을주지않누다。

실생활은 당기관의사업작풍이 당단체의 전투성여하에 많이 달려있다는 실례를 매일같이 보여주고있다。당기관 일꾼들이 초급당단체와 고정적으로 련락되였고 그들의 주의를 모든 결정적 사업에 집중할줄알며 세밀한 원조를하는 그곳에는 전체 당사업의 수준도 보다 더 높아지는것이다。

우리에게는 당단체 활동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며 그들이 자기사업의 각방면에 관심을 돌리는 일꾼—창발적이요 창조적인 사람들이 적지않다。례를 들면 주당위원회 지도원 쥬찌꼬브동지는 어떻게 일하는가? 주당위원회 기관에서 그는 三년간 일하고있다。이 기간에 쥬찌꼬브동지는 그에게 고착된 끼제로브 탄전(炭田) 당단체의 사람들과 사업 상태를 잘연구하였다。그의 창의에 의하여 주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와 그의 부에서 월로달쓰끼 탄광의 당단체사업에대한것、레닌 탄광의 당그루프의 사업에대한것、끼젤이란 철도중심지 끼젤역에서의 당정치사업 상태에대한것、구바힌 시 당위원회가 당결정실행 검열을 조직할것、등등의 제당면문제를 심의하였다。지방으로 떠나기전에 쥬찌꼬브동지는 시당위원회의 활동에대한 모든 자료를 세밀히 연구하며 출장기간내에서의 자기가 할 사업에대한 자세한 프란을 작성한다。현장에서 그는 시당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관심을가지며 당기관 일꾼들과 담화하며 열성자회의 초급당단체회의 위원회 총회에 참가하며 당건설문제에 관하여 열성자회의에서 보고연설을 한다。쥬찌꼬브동지에게는 당단체에 나가있는 시간이 다부문이다。

그러나 당기관 직원 전부가 자기의 사업을 온바르게 조직하는것은 아니다。부분적 직원들은 창발력이 없이 일하며 부분적 위임만을 실행하며 한과제로부터 다른과제를 바꾸어 받는것만으로 사업한다。이런당기관의 지도자가 어데로 떠나게되면 당기관은 자기사업을 약하게하며 직원은 무엇을 하여야할찌 알지못한다。이런일은 사람들의 창발력 발천에대하여 지도자 자신이 고려하지 아니하며 해당한 지지가 없이는 일꾼들이 일보도 움직일수없는 경우를 조성하는 일이 종종생기게되는것이다。

주당위원회의 어떤일군들은 자기부의 위임만을 실행하면서 전체 당기관의 활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주당위원회 어떤 부의 지도원은 그가 일하고있는 부에 속한 자들과만 상대하며 다른 일꾼들과 담화할 필요성 또는 구역 혹은 시위원회 전체를 원조할 필요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이 부족점은 주당위원회 부서의 부분적 일꾼들에게 특수한것이다。그들은 지방으로 나가서는 당위원회의 일반적 과업으로부터 종종 벗어나면서 다만 자기의 부나 혹은과의 한국한된범위에서 활도한다。당기관 일꾼들은 기업소의 지도자 농촌 쏘베트와 꼴호즈의 위원장들과 주로 담화하며 초급당단체 비서와 일반 당원들과는 담화를 적게한다。이 모든것은 일꾼 자체의 성질뿐만 아니라 당기관 지도의 약점으로도 해석된다。지도자들은 지시를 기계적으로 실행하는것과 위임받은 사업에대한 부분적 동지들의 국부적 취급의 특정인 협소한 사무주의와 종종 융화하며 그들에게 당일꾼의 작풍을 주입하는데 부족한까닭이다。

당기관의 사업은 그시기에 당위원회앞에 제기되고있는 근본 과업 해결에로 목표와 방향을 정한것이 되어야할것이다。당기관의 전체 일꾼은 이과업을 반드시 알아야되며 잘 인식하여야된다。당위원회 각부의 사업은 자기의 특성 자기의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있다。그러나 그의 활동은 전반적 과업에 복종되어야하며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어야한다。이렇게 되는때에만이 당기관은 정치지도수준을 제고함에 능숙할것이요 형식적 사업작풍의길에로 탈선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당기관의 이런사업 작풍을 간혹보게된다。이상에 말한 그 웰흐네—물린구역 당위원회의 일꾼들을 례로 들기로한다。이 구역 당위원회의 부분적 지도원들은 사업에대한 당적태도를 상실한 협소한 일반적인 기술자로 변환되었다。그들은 회의를 몇번 진행하였는가、회록을 어떻게 작성하는가하는 조직기술에만 관심하였다。이 사람들은 회의 내용、그들이 채택한 결정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며 그 시기에 당단체앞에 제기되고있는 과업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것을 분석할 자기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이것은 비서들 자신이 당기관을 연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일꾼들이 구역 당단체의 구체적 과업을 알려주지않았다는것으로 설명된다。구역당위원회의 부들은 사실상 구역의 근본경제 정치 과업 해결에 참가하지않았다。

당기관의 효과있는 사업의 불가결의 조건은 당지도자들이 그의 력량을 당위원회의 총과업을 해결하는데로 돌릴줄아는것이다。

× × ×

당기관의 활동에서 보고서 결정서 초안 등등 각

총 문건을 자세히 준비하는것은 중대한 의의가있다. 제대에 정확히 지방 상태를 반영한 보고는 구체적 및 실무적 지도의 불가결한 조건으로되었다.

당위원회가 채택하는 결정은 적절하고 명확하고 당단체앞에 제기되고있는 당면과업과 그를 실천할 방도를 결정하는것이 되어야한다. 이것은 당 일군들로부터 실생활을 깊이 연구하며 정확한 현실적인 사실을 타산하며 그를 올바로 평가할줄알며 이것으로부터 해당한 결론을 지울줄 아는것을 요구한다.

결정서초안은 규정이명확하여야하며 제의가 구체적이되어야하며 실행 기간과 일정한 과제에대한 책임자를 예정하여야한다. 우리에게는 결정서의 운영, 결정의성공적 실행은. 결정 자체의 성격과 내용에만이 관계된다는것을 언제든지 시인하지않는 일군들도 있는것이다. 일면적이요 분산적인 결정서, 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할것인지 불명확한 결정서는 반드시 파탄을 당하고야 마는것이다. 유감천만으로 이런 결정을 아직도 부분적 시, 구역당위원회가 채택하고있는것이다.

당일군은 당문건 준비에 특히 당위원회의 결정서 초안에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계하여야할것이다. 결정서 준비—이것은 문제를 세밀히 연구하며 자료를 수집하며 해부하며 목적을 세우며 그에 도달하기위하여 당단체, 열성자, 로동자, 농민의 려량을. 동원하는것이다. 경험있는 어떠한 일군임을 막론하고 결정서초안 작성에있어서는 그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을 예상할수없다. 반드시 열성자, 제반 단체와 기관의 일군, 전문가들과 협의하여야한다.

「독단적으로 작성한 결정은 언제든지 혹은 거의 언제든지—일면적인 결정서가된다. 어떤 집단, 어떤 단체에든지 인정하여야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어떤 집단, 어떤 단체에든지 그릇된 의견을 말하는 자들도 있는것이다. 三개 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는 독단적으로 작성되었고 집단적으로 검열하지아니하고 수정하지 않는 결정서 一○○통에서 九○통은 일면적이란것을 우리는 아는바이다」 라고 쓰딸린 동지는 말하였다.

세밀히 자료를 연구한데 기초되었고 사업 경험과 집단의 제의견을 타산하고 잘 준비된 결정서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과 제기된 과업을 실행조직함에 도움을준다. 결정을 준비 채택하는것은 —당위원회의 지도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써 국한될수없다. 『지도사업의 중요부분은 회의나 결정서 채택으로 반드시 구성되는것이 아니라 이 결정서 실행에대한 일상 사업으로 되는것이다」 라고 一八차 전련맹 당대표회의 결정서에 지적되어있다.

물로또브주 당위원회는 그의 각개 결정의 실

행 검열을 달성하였다. 주당위원회 비서들은 실행된 결정들을 검열로부터 취소할 필요를 직접 규정하며 실행중에있는 결정들의 실행 과정을 계통적으로검열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의 실행 기간은 지나갔으나 그 결정의 부분적 조목들은 실행되지않고있는 사실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당기관 일군들이 혹시는 결정서와 지시서의 려량을 맹목적으로 믿기를 계속한디는것으로 설명된다. 례를 들면 주당위원회가 결정을 채택할것같으면 모든것이 저절로 변경될것이요, 주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실행 기한이 가까워올것을 소극적으로 기다릴뿐이요, 새결정준비에대한 자료를 수집할것뿐이라고 인정하는것이다. 이런 일군들은 검열시에 그들의 창의에의하여 채택된 주당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되어』 실행되지않았다는것이 불연간 나타나는 때에는 놀라기까지 하는것이다.

이제 례를 들면 이러한 일은 목재, 세루로스, 종이(紙) 산업부에서 있었던것이다. 주당위원회의 이부는 부장 갑리로브동지의 그릇된 지도로 인하여 최근에이르러 사업에서 분산되기 시작하였고 목재산업에서 자기의 영향을 대단히 약하게하였다. 작년 九월에 이 부는 주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 「一九四七—一九四八년 추동 목재채벌 준비사업 과정과 우랄서부 목재 및 꼬미뻬룸목재 트레스타에 의한 목재채벌 작업의 기계화에대한」 결정초안을 제출하였다. 지금과같이 그때에도 목재채벌 작업의 기계화는 목재채벌 계획실행과 장성에 결정적 의의를 가지었던것이다. 목재, 세루로스, 종이 산업부는 주당위원회의 결정실천을 위한 해당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으며 그결정의 다부분은 실행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렇지만 그부와 갑리로브동지는 친히 이것으로부터 자기에게대한 해당한 결론을 하지않았던것이다. 작년 결정을 무조건하고 실행할것을 달성하며 금후 기계화의 강화를 위한 투쟁을 조직할 대신에 갑리로브동지는 아마 이 결정서가 류실된것으로 인정하였든지 주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에 그와같은 새 결정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부가 제출한 결정 초안은 다부분이 一九四七년 九월 二일 결정서에 기록된것과 똑같은것을 중복하였다. 갑리로브동지는 목재채벌 기업소들은 지난년도에 높은 생산력을가진 기계의 수량이 대단 보충된것까지도 타산하지못하고 초안에는 이 기업소들의 앞에 작년도에 세웠던 바로 그 기계화의 과업을 제기하였던것이다.

목재 세루로스 종이 산업부에서 생긴 이 사실은 주당위원회 기관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 각부에서의 실행검열을 개선하기위한 대책들이 채택되었던것이다. 결정서가 채택된때에는 주당위원회는 그

실행 조직을 실지원조하기위하여 지방으로 자기 일꾼을 파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당기관의 부분적 일꾼들의 큰 악습은 종종 하급단체를 검열만하며 부족점을 지적만하면서 그것을 퇴치하기위한 진실한 대책을 급속히 취하지 않는데 있는것이다。결정실행에관한 당기관의 조직자적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대단히 늦게 진행하는것이다。이런까닭에 당위원회는 종종 한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결정서를 채택하게되나 일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것이다。

리시바 시(市)한 당열성자회의에서 공산당원들은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을 시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문제를 준비하기위하여서만 공장을 방문하며 또는 『단점』만을 찾는다고 다시말하면 어떤 지도일군의 연설에서 가장 더 채쭉소리가날 그런 사실만을 수집한다는것을 비난하였다。

이런 부족점으로부터 주당기관도 벗어나지 못하였다。『주당위원회 지도원이 우리와 담화하고 사업에서 약한곳은 발견하고 초급단체에 나가서 현장에서 사업을 분석한후 자기 의견으로 우리가어디에서 사업을 등한히 하였다는것을 증명하여주는 그런자가 오는것을 우리는 고상치 평가한다。그러나 이것을 주당위원회의 전체 지도원에게 대하여 말하여서는 안된다。례를 들면 지도원 십케브 동지는 한번은 우리에게로 와서 전부 한일이라는것이 시당위원회의 부분적 일꾼들을 세시간 심문한것이 전부였다。이것이 원조인가?』라고 크라스노깜쓰크 시당위원회 비서가 말하였다。주당위원회 농업부 지도원 와센꼬 동지가 끼세르트•농기구 뜨락또르 배급소에와서 그가 전부 두시간만 머물어서 사업에 대한것을 완전히 분석하지못하고 가버렸으니 그로부터의 초급단체에대한 어떤 원조를 말할수있으랴。

우리의 일꾼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에서든지 각방면으로 충분히 분석하며 부족점만 관찰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퇴치할 구체적 방도까지 관찰하며 지시실행을 강요할뿐만 아니라 그 실행을 원조한다면 얼마나 실효있으리라는것을 짐작하기가 곤난하지 않을것이다。당기관 일꾼은—창시자이다。그의 활동은 그가 다녀온 그단체 사업이 어떻게 개석되었는가 하는것으로 반드시 평가되어야한다。

× × ×

주당위원회와 시、구역당위원회의 활동에서 당사업의 경험을 연구하며 총결하는것이 큰자리를 차지할것이요、일꾼들이 당단체의 생활에서 새현상을 붙잡아내며 발견하는것이 대단히 중대할것이다。긍정적 경험을 전달하는것은 당지도방법완성과 전체 당사업수준 향상에 도움을준다。

몰로또브주당위원회는 최근에 하급 당단체의 사업경험을 연구하며 보편화하는데 주목을 대단히 강하게집중하였다。례를 들면 주당위원회는 당그루빠의 사업 실천을 세심히 연구하였다。선진 당그루빠조직원의 보고를 주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와 부에서 청취하였고 그들의 경험에대한 소책자를 준비하였다。제 농기구 뜨락또르 배급소에서의 당정치 사업의 실천을 연구하면서 주당위원회는 농기구 뜨락또르 배급소 정치 부지배인 토론회를 소집하였다。농기구 뜨락또르 배급소 정치 부지배인 二명의 보고는 주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청취하였다。시、구 당위원회 비서들의 한 토론회는 초급단체 지도경험 연구에 바치였다。구당위원회는 시、구역당위원회에로 그들의 사업을 계획하는 문제、사회주의 경쟁을 지도한 경험에 대한 문제、통신적 서한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있어서 당사업의 실천을 연구하며 일반화하는것이 아직 불만하게 진행된다。현장에서、사업을 자세히 연구하고 구역 당위원회에나 혹은 시 당위원회에 어떤 중요한 대책을 실시하라고 제출한 실례를 주당위원회의 부분적 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실생활은 사업 경험을 연구하며 일반화할 긴급한 필요를 제기할뿐만 아니라 그에대한 풍부한 자료를 주고있다。주내에서는 五개년 계획을 四개년에 실행하기위한 사회주의 경쟁초과 계획적 축적을 위한 운동、공장 제조소의 활동에서 경제 지표(指標)를 개선하기위한 투쟁、기계화와 새기술을 주입하기위한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었다。여기에 급속히 또는 광범히 전파하여야할 그 새것을 연구하며 일반화할 자료가 적단말인가? 례를 들면 기업소의 수익성을위한 투쟁을 강화시킨 경제학자、계획학자、부기원、표준작업량을 정하는자등 인재들에대한 크라스노깜쓰크 시당위원회의 사업은 연구하여볼 필요가있는것이다。이와같은 사실은 다른 당단체에도 적지않았으나 불행은 이런사실에 주목을 돌리지않았으며 그것이 언제든지 올바른 평가를 받지못한데 있다。현상을 리해할줄 알며 올바르게 평가하며 그로부터 필요한 결론을 짓는것은 어떤 부면의 쏘베트 활동가에게든지 더우가 당 일꾼에게 특유한 것으로 되어야할것이다。당 일꾼은 처음 보건대 소소한 문제—어떤 개인、기업소、기관에 관계되는 것같은 많은 대소문제와 접촉하게된다。부문적 당 일꾼들 특히 경험이적은 일꾼들은 이런문제 해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것이라도 부분적 의의를가진 문제로 취급한다。이런 태도의、결과에 이런 일꾼들은 피치못하고 피상적 관찰자로된다。이런 일꾼들은 시시로 원칙적 의의를 가진 어떤 사실을 각

방면으로 분석하지 못하는것이다。

얼마전에 주당위원회는 모로끄찌나라는 녀선생으로부터 구역당지도일군 일부에대한 고소를 받았다。 이 녀선생은 지방행정기관이 그에대한 나쁜관계를 고소하였다。 이 고소의 심의는 공정성을 급속히 복구하며 범과자를 처벌하는 것만을 요하는 부분적인 사실로 취급되었을수 있다。 그런데 공정성을 복구하며 범과자를 처벌하면서 주당위원회는 이 구역에서 사회주의 법령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을 심중히 검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녀선생의 개인적 사건에의하여 이 구역에서 구역 당위원회와 쏘베트 기관들은 이전부터 법령을 엄수할데대하여 관심하지 않았으며 구역내에는 공민의 법적 권리를 종종 유린하였다。 이 부분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주당위원회는 원칙적인 문제를 순서에 세웠으며 이 부족점의 퇴치대책에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다른 례를 들어보자 이 례는 당일군이 새것에대한 감정을 소유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몰로또브 공장의 쓰따하노브 운동자 안쩨삔과 시랴노브동지는 금속을 끊는데대단히유리한 방법—금속을 빨리 끊으며 속히 마찰하는것을 생산에 리용하였다。 공장 당위원회와 당국은 새방법의 모든 우월점을 타산하고 그의 국가적 의의를 올바르게 결정하였으며 그 쓰따하노브 운동자들의 경험을 전공장에 전파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위원회는 지배인과함께 이 쓰따하노브 운동자들의 고귀한 경험을 생산에 광범히 주입할것을 보장할 지도적 대책을 취하였다。 단기간에 공장에서 九六개작업은 급속한 금속단절 방법에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그작업에있어서 로동생산성을 五—七배로 제고하였다。 금후로 급속한 금속 마찰과 단절을 주입하기위하여 공장내에 많은 첨부적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중에는 다수 기대들을 모데르화하는것、一、五〇〇대이상의 새 삭절기(削截器)、조각도(彫刻刀) 등등을 강구하고 준비하였다。

쓰따하노브운동자 안째삔과 시랴노브동지들의 고귀한 사업 경험을 그후 주당 위원회가 총결하였다。 주당위원회는 금속을 급속히 단절하는것을 침투시킴에관한 몰로또브 공장의 경험을 몰로또브주당은 공장들에 전파할데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삭절기사용공 안째삔동지와 선반공(旋盤工)시랴노브 동지의 경험으로부터 큰 국가적 의의를 가진 운동이 발생하였다。

부분적 사건、부분적 사실에서 중대한사회적 계획을 볼줄 아는것이—당일군의 중요 특징중하나이다。

이 성질을 교양하기위하여 특히 아직 부분적 일꾼들이 범하고있는 지방으로부터 받은 서한과 의견에 대한 부주의 및대답을 늦게주는 부분적 당위원회 기관의 사업에서의 결점을 제거할것이 필요하다。 이

것의 기본원인은—부분적 일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새것에대한 감각을 상실하였다는것을 보기는 힘들지않은것이다。 이런 일꾼들은 그들에게 대중이 직접 취한 요구에 대해서 민감(敏感)치못하다。 쓰딸린 동지는 우리 국가의 활동가들과 당단체의 일군들을 대중과의 련락을 고정적으로 견고히하며 그들의 요구를 주의 깊이 관찰하며 대중의 경험으로 자기를 풍부히하라고 가르치었다。『올바르게 지도하기위하여 지도자의 경험을 당원대중의 경험、로동계급의 경험、근로자의 경험、소위「적은사람들」의 경험으로 보충하여야된다』라고 쓰딸린동지는 가르치었다。

자기의 경험을 대중의 경험으로 보충하기위하여 지도자는 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주의 깊이 들어야 되는것이다。

부분적 우리의 일군들은 당위원회의 기타 단체에 들어오는 각개 서한、청원서 및 고소의 위에는 산사람이 있다는것과 그들이 제때에 명백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혹시는 망각하고 있는것이다。 질문에대한 대답을 지체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확신성을 일으키며 그들의 적극성을 저하한다고 언급한 한 구역당위원회의 비서가 물론옳았던것이다。 우리에게있어서 이런 요구의 본질에대하여 언제든지 올바르게 관계하는것이 아니다。 례를 들면 한 구역 당위원회 비서의 행동에대한 고소를 주당위원회의 어떤 부가 바로 그 비서에게로 보내었다。

지금 주당위원회는 들어온 요구와 고소 해결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설정하였고 여기에서 당위원회 기관의 효과있는사업의 필수조건중 하나를 보고있는것이다。

× × ×

당기관이 얼마나 유효하게 일하는가 하는것은 비서가 그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는가 하는데도 관계되었다。 당기관은 당위원회 앞에 서고있는 과업을 실지 실천할 사명을 가졌다는것은 일반이 다아는바이다。 그러나 당기관의 사업을 당위원회의 전체 활동으로부터 분리된것처럼 관찰하는사실과 때때로 접촉하게 되는것이다。 대표회와 위원총회에서 시 구역당위원회의 각부의 사업에서 부족점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비서에 대해서는 간사한말을 쳐가는때도 혹시있다。 부의 사업이 약한것이 전적으로 시、구역 당위원회의 비서 자체의 활동이 약하였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아닌가? 당기관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높은수준에 당기관이 도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 비서는 당기관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며 당기관 일꾼들의 교양과 그들의 정치적성숙을 높이며 문명적 시야를 확대하기에 고려할것이다。 당지도자는 자체 사업 과

정에서 간부를 인내성있게 교양하며 훈육할것이다.

『당신은 당적 사람이다. 고로 모든일에대하여 관심하여야한다』라고 쓰딸린동지는 전련맹 쓰따하노브운동자 회의에서 『첸트랄나야 이르미노』탄항 당조직원 뻬뜨로브 동지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각개 당일군에게 많은것을 가르치어준다. 당기관의 직원들은 사건을 잘 알아야되며 모든 중요한 현상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줄 알며 정치 일군, 볼쉐위끼 조직자의 성질을 자기에게서 고정적으로 발전시킬것이다.

지도자는 기관의 일군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여야 한다. 무엇을 어느때에 하라는것을 지적할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된다는것을 인내성있게 해석하며 표시하여야한다.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그의 사업 결과로써 평가하는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결과를 달성하였으며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금후로 어떤 교훈을 찾아낼것을 타산할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기관 일군들 부분적으로 지도원들의 의견과 또는 그들이 준비한 문건에대한 일반적 평가에있어서 무시하는 사실과 접촉하게되는때가 종종있는것이다. 지도원의 보고서를 자세히 고찰하며 그의 자격과 부족점을 지적할 대신에 부장과 그의 부부장들은 『불합격하다』『알수없다』라는 평가로써 처분하여버린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일군들이 장성하고 완성되는것에 원조하지 못한다.

지도자가 일군교양에 상당히 노력하며 창발력을 조장하며 그들의 위신을 지지하며 일군에게대한 높은 요구성을 발표하는 그것에서 사람들은 급속히 장성하는것이다. 우리에게있어서 지도자들이 기관에 대한 요구성이 없다고 말할수는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형식적 태도가 극복되지않은것이다. 례를 들면 일군으로부터 그에게 위임한 일에 시간을 더내며 제때에 과제를 실행하며 제기한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등의 요구를 올바르게하고있다. 그러나 실행한 사업의 질, 그가 취급한 문제에있어서 심각히 연구하였는가, 현장에서 당단체를 무엇으로써 원조하였는가, 당위원회의 심의에 어떤 문제와 의견을 제출하는가 하는데는 언제든지 주목을 집중하는것이 아니다.

몰로또브주당위원회에는 지금 이런질서가 설정되었다. 즉 일군이 출장갔다 돌아오면 그와 부장이나 주당위원회 비서가 담화한다. 이 담화에서 기업소, 구역, 꼴호즈에서의 사업의 상태를 알아낸다. 그것은 보고서에는 죄다 기록할수 없는까닭이다. 이외에도 이런담화는 일군의 기능, 그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수있는 가능성을 지도자에게 주는것이다.

당위원회의 활동을 개선함에있어서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사상 리론 수준을 높이며 무엇을 독서하는가하는 문제로 비서들이 지도원과 부장들과 담화하며 당기관 내부 회의를 진행하는것이 큰역할을한다. 주당위원회에서 우리는 전체 당기관 회의로서만 국한하지 아니한다. 최근에는 비서들이 한부씩 일군들을 소집한다. 이런 회의는 주당위원회의 지도에많은것을 주는것이다. 이런회의는 각부와 그의 일군들의 활동에서 부족점을 말로하며 그 부족점을 급히 퇴치하는데 원조하는것이다. 주당위원회 비서의 참가하에서 각부의 일군들은 활발히 비판하면서 부장의 사업에있은 오착도 지적한다는것도 고려하지 않을수없다.

당기관의 사업을 올바르게 정확히 계획하며 그의 전체 부서들의 활동에서 목적성, 일치성을 보장하는것이 대단 중요하다. 얼마전까지도 주당기관에 정확한 계획이 없었다. 그 결과에 부들은 분산적으로 일하였으며 주당단체 사업의 기본적이요 원칙적인 문제를 온갖 노력으로 향상하였던일은 드물게있었다. 지금은 부장들의 회의에서 매월계획실행총결을하며 주당위원회앞에 서고있는 모든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다음 기간 사업의 기본방향을 준다. 주당위원회의 각개 지도원의 사업을 계획하는 절차도 실시한다. 이것은 물론 주당위원회 기관의 사업의 질과 그의창발성을 제고할것이다.

쏘련 공산당(볼쉐위끼) 몰로또브 주당위원회는 최근 자기 기관의 사업을개선할 제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당체앞에서고있는 주의모든경제 정치 생활을 지도함에의한 복잡한 과업들은 우리에게 당위원회 기관의 사업방법을 금후 완성할것을 요구한다.

(『볼쉐위끼』지 一九四八년 제二三호게재)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十一)

『자본주의 최고계단으로서의 제국주의』에 대하여

박 영 빈

레닌의 저서

레닌은 자기의 저서『자본주의 최고계단으로서의 제국주의』를 一九一六년 전반기 서서에 망명해 있을때에 썼다. 그러나 그 저서는 짜리주권이 전복되고 레닌이 로씨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출판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자기의 저명한 저서를 제一차 제국주의전쟁이 소연히 계속되고 로씨야에서 짜리주권과 제국주의가 파멸에 직면하였으며 또한 볼쉐위끼당이 로씨야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섯색을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길로 준비시킨 그러한때에 썼다.

기변주의적 제二국제당의 「리론가」들은 사실에 있어서 부르죠아사회의 새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하여 타구할것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력량을 믿을수없게 마비시키려 하면서 부르죠아에게 유리하도록 제국주의 본질을 은페하려하였으며, 로동운동을 추악하게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와의 타협의 길로 인도하려하였다.

자본주의의 독점적계단에 대하여 맑쓰주의적으로 탐구하는 력사적과업은 볼쉐위끼당의 천재적창건자이며 수령이며 창조적맑쓰주의자인 레닌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제국주의에대한 레닌의 저서는 맑쓰의 중요한 로작『자본론』의 직접계속이다. 그 저서에는 자본주의의 독점계단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며 그 독점계단은 자본주의의 기본적법칙에 의하여 발생되였다는 것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최고계단이며 특별한 계단인바 그 계단은 부르죠아사회발전의 이전계단과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졌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레닌은 그 저서에 제국주의로 과도한다는것은 부르죠아사회의 모든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 되어간다는것과 또한 더욱 첨예한 불상용적 제모순이 발생됨을 의미한다는것을 명백히 론증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같이 제국주의는 독점적 자본주의이며 기생적(寄生的)이며 또는 죽어가는 자본주의이며 썩어가는 자본주의라고하였다. 또 자본주의는 그 자신이 제국주의계단에있어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혁명을 초래하리만치 성숙하였다는것을 레닌은 론증하였다. 레닌의 제국주의리론은 자본의 착취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주의의 혁명적수립을 위한 투쟁에대한 명백한 예견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무장시켰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독점계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기본특징을 가졌다.

一、생산의 집중인바, 그 집중은 경제적생활에서 결정적역활을 하는 독점적 자본가련맹을 형성하는 그러한 고도의 발전에 까지 도달된것,

二、은행자본의 생산자본과의 결합과 이「금융자본」을 토대로한 금융과두 형성,

三、상품수출보다 자본수출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

四、자기들간에 세계를 분할하는 그러한 자본가들의 국제적독점 련맹이 형성되는것,

五、렬강들간에 있어서 령토적 분활이 종결된것.

그런데 여기에서 레닌은 독점의 지배가 제국주의의 기본적특성으로 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레닌은 독점의 발생과 발전이 상승적(上昇的)자본주의로 하여금 죽어가며 썩어져가는 자본주의로 전환케한 력사적발전의 련쇄(連鎖)의 일환으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생산의 집중이 그 자체발전의 높은 일정한 단계에서 어떻게 독점에로 넘어간다는 것을 레닌은 론증하였다.

레닌은 중요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 생산집중은 비교적 소수 대규모적기업소들의 급속한 장성을 초래하며 그리고 소규모적기업소들은 대규모적기업소들에 비하여 아주 적은 역활을 한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레닌은 지적하기를 독점적조직체는 우선 중공업에서 발생된다고하였다. 독점자들은 자기의 상품가격을 인공적으로 폭등시켜 그것을 판매함으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더 강화하며 근로대중의 빈궁화를 초래하면서 엄청난 초과리윤을 획득한다는 것을 레닌은 론증하였다. 독점은 근로대중의 궁핍을 강화하며 국내시장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나니 이것은 필연코 국외판매시장을 위한 투쟁을 첨예화하는것이다. 독점가격은 농촌경제로부터 추가적재

원(財源)을 뽑아내는 방법으로서 농촌경제의 발전을 침체시킨다。그러므로 높은 독점적가격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첨예화시키면서 제국주의특징으로 되는 부패성과 침체성을 일층 강화시킨다。

근 반세기에 걸친 자본주의의 력사적발전에 대한 경험을 총합한 결과에 레닌은 집중과 독점간에 있는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해설하였나니 곧

『……독점은 자유경쟁에서 자라나오면서 그 자유경쟁을 퇴치하는것이 아니라 그위에 또는 그와함께 존재하여 특히 첨예화한 또는 비상한 모순 마찰 충돌을 발생시키면서 그위에 또는 그와함께 존재하고있다』。

레닌은 자본가들간에 제련맹이 장성됨은 불피코 생산의 무정부성、혼란성 및 공황의 첨예화를 초래하는 것을 표시하는 동시에 공황이 역시 순차적으로 자본의 집중과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을 극도로 강화시킨다는 것을 자기의 저서에서 론증하였다。

× × ×

레닌은 산업에서의 생산의 집중과 독점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현대적 독점의 실제적 력량과 의의에대한 것은 은행의 역활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는 충분히 알수 없다는것을 지적하였다。은행업에 있어서는 산업에서와 같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다。집중의 결과로 은행수가 축소되는 반면에 그 은행들의 활동범위는 확대되며 그들의 업무의 범위가 증가된다。소수 은행들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들에게 리윤을 추구하는 거액의 재원이 집중된다。자본주의가 발달될수록 그 재원의 액은 극도로 증가된다。그리하여 은행업에 있어서 집중은 불피코 독점을 초래하여 점차로 작은 은행들을 자기들에게 복종시킨다。은행의 집중은 대은행간의 련락을 발생시키며 그 련락의 범위를 확장시킨다。은행은 주권(株券)의 교환과 호상대차 계약에 의하여 서로 련결되며 련합된다。그리하여 집중의 결과로 대은행간에는 독점적타협 즉 은행 트러쓰트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며 대은행콘체른이 발생된다。이제는 수백개의 분산된 작은 은행간에 경쟁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대금융자본 콘체른간에 경쟁이 진행된다。이러한 각개 금융콘체른은 수십 혹은 수백개의 작은 은행들을 관할하고있으며 각지방에 자기의 지점(支店)을 많이 조직하고있다。자본주의적 경제에 있어서 화폐류통은 압도적으로 다부분이 은행을 거쳐서 실시된다。은행업의 집중과 은행독점의 형성은 은행과 산업간의 호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다。각개 은행은 계속적으로 거래를 가지는 일정한 고객(顧客)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타면으로 각개 생산기업은 일정한 은행과 보다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된다。은행은 생산기업소에 거액의 장기대차를 주고 그 기업소의 운영과 소목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게된다。왜냐하면 그 기업소가 파산 당한다면 투자한 은행재산이 잃어질수 있는 까닭이다。그리하여 은행과 생산기업소들의 리익에 대한 련대성은 더욱 긴밀해진다。은행과 산업독점 지도자들간에 직접 개인적련락이 발생되며 발전된다。은행지배인들이 생산기업소의 중요지도기관의 위원으로되며、생산독점의 지도자들이 은행관리기관의 위원으로된다。독점적 은행자본과 독점적 산업자본이 결합된다。은행과 산업독점의 결합된 자본을 금융자본이라 한다。

금융자본의 지배가 자본주의 독점계단인 제국주의의 기본적 특징중의 하나로된다。독점과 금융자본의 장성은 전국가 경제생활의 공간(槓杆)을 소수의 은행가들집단과 독점자—산업가의 수중에 있도록한다 금융자본은 부르죠아국가 기구와 긴밀히 결합된다。부르죠아국가의 제 정부와 독점의 지도자들간에『개인사적련합』이 맺어진다。독점의 지도자、대은행가、사업가들이 흔히 국가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한다。

× × ×

가장 발달된 제 자본국가내에서의 금융자본의 지배세력은 불피코 소수의 고리대금업적 국가들의 세계적 지배를 초래한다。자본수출체제가 이 지배세력의 기초로된다。『자유경쟁의 완전한 지배권을 가진 낡은 자본주의에 대하여는 상품수출이 전형적이였다。독점의 지배권을 가진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하여는 자본수출이 전형적인것으로 되었다。』라고 레닌은 썼다。자본수출은 독점이 형성되기전 시기에도 실시되고 있었으나 그러나 다만 제국주의시기에 있어 자본수출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자본수출역활의 근본적변경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으로부터 류출된다。첫째로 경제분야에서 자본리용을 극히 곤난케하는 가장 유리하게 독점된 독점의 지배와 둘째로 부분적국가들의 발전의 불균형성으로 인하여 가장 부강한 부분적 국가들에 있어서 자본의 다량적여유가있는 그 조건으로부터 류출된다。

레닌은 이 여유의 상대적성질을 반드시 알아야할 것을 지적하였다。왜냐하면 이 유휴자본은 근로대중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킴에 사용할수있는 까닭이다。그러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 되어 있는한 자본의 여유는 그나라대중의 생활수준을 제고함에로 전환되지 않는다。왜냐하면 그렇게 하는것은 자본가들의 리윤을 저하시키기때문이다。자본의 여유는 리윤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외국 또는 락후된 나라들로 수출된다고 레닌은 말하였다。자본수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

져오는가를 레닌은 론증하였다 자본이 수입되는 그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든 모순(대중의 계급적분화, 궁핍, 자연부원의 야수적소비등 등)을 가진 그러한 관계가 그들 국가에서 촉진된다. 부르죠아 대변자들은 변한하고 락후된 나라들에 대한 자본수출을 선행과 같이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자본수출은 거대한 국가들이 약소국가들을 예속하는 수단으로되며 제국주의적압박의 기본적체제로 되는것이다.

× × ×

독점은 자국내 시장에 있어서 불가분적 지배권을 장악하려한다. 각국내에서, 제 독점간에는 원료원천, 상품판매구역이 분활되고있따. 그러나 독점은 국내시장에서만 지배권을 가지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독점적 대기업의 생산범위는 자국내시장의 범위를 롱가하게된다. 그리하여 독점가들의 련맹간에 세계경제분활이 발생된다. 즉 다시 말하면 국제적독점이 발생된다. 독점이 일부 국가들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나가는것이 자본 및 생산집중의 새롭고 일층 더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것이다. 레닌은 이 단계를 초월(超越)독점이라고 하였다.

두 세계 전쟁기간에 국제적독점은 일층 더 확장되었다. 그 독점들이 세계 제국주의가 一차에 걸친 세계전쟁을 준비함에 있어 거대한 역활을하였다. 미국, 영국, 불란서 독점과 독일대자본가와의 긴밀한 결탁은 독일강점배들에 대하여 전쟁전에 조정(調停)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 ×

자본가련맹들간의 세계분활에 대한 장(章)을 레닌은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최근의 자본주의시대는 세계의 경제적분활의 기초위에서 자본가동맹간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고 이와 병행하여, 또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동맹국가들간에 세계의 령토적분활, 식민지에 대한 쟁탈전「경제적령역획득을 위한 투쟁」을 토대로하고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레닌은 지적하였다.

一九세기말에 렬강들간의 세계분활은 종결되고 주인없는/토지는 남지않았다. 그리하여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서 략탈하는 방법으로써만이 식민지 혹은 어떤 령지를 점유하는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세계를 재분활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활된 세계를 재분활하기 위한 투쟁이 자본주의독점계단의 기본적특성중의 하나로된다고 레닌은 말하였다. 현세기의 모든 사변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있어서 얻은 과학적결론을 옹변으로 증명해준다.

식민지략탈은 부르죠아에게 귀족로동자를 매수할 가능성을 주며 로동운동의 분렬공작을 할수있는 가

능을 적지않게 준다. 다른 방면으로는 식민지를 탈탈하는것이 세계를 두진영으로 분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수의 제국주의국가 집단들이 전인류의 절대다수에 대립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식민지적압박은 불피코 제국주의의 와해를 초래한다. 식민지국가들은 여러 세기에 걸친 잠을 깨고 있다. 식민지와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장성은 제국주의의 지주(支柱)를 흔들어놓으며 그의 멸망을 준비한다. 제二차세계전쟁은 식민지민족 해방투쟁에 거대한 충동을 주었다. 많은 식민지국가들은 반팟쇼 전쟁에 참가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민족들을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갖은 간교한 술책을 다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강경한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三十여년전 레닌에 의하여 규정된 제국주의의 기본적특징에대한 평가는 력사발전의 행정에서 확증되었으며 현대 제국주의국가들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로써 더 확고히 확증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력사적계단이다. 그 특성은 세가지이다. 즉「제국주의는 첫째 독점적자본주의이며, 둘째로 기생적 또는 썩어져가는 자본주의이며, 셋째로 죽어가는 자본주의이다.」라고 레닌은 썼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정의는 제국주의의 력사적위치를 철두철미하게 확정하였다.

제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임을 말한다. 제국주의의 력사적위치는 자본주의하에서보다 제국주의하에서는, 부르죠아제도의 모든 모순이 일층 더 장성하며 첨예화하는 것으로써 특징지어지는바 그 모순들은 제국주의전쟁과 치렬한 계급투쟁을 초래한다. 제국주의는 독점적자본주의로써 부르죠아사회의 기본적모순인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소유의 사적자본주의적 형태간에 있는 모순의 미증유의 첨예화를 의미하는것이다.

독점은 거대한 기업소들을 호상 련관시키며 수천만인간의 로동을 련결시키며 판매시장과 원료원천을 통제하여 쥐고 있으며 훈련된 간부들과 기술, 과학력량과 신발명들을 자기손에 장악한다. 그러므로 독점의 지배는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극도로 생산의 사회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의 사회화의 거대한 추진은 극소수 자본가들의 리해에 복무하는 것이다.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은 인민에게 하등의 리익을 주지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궁핍과 그들에 대한 착취를 극도로 강화케한다.

생산의 사회화가 높은 정도에 달한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사회로 개혁되리만치 성숙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를 사회주의사회로 개혁함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전제조건은 바로 목

전에 존재해있다。 그럴수록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사적자본주의적 소유간에 있는 모순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썩여져가며 기생적인 자본주의라고 하였다。 침체와 부패에 이르려는 경향은 독점의 지배세력에 의하여 불피코 발생된다。 갈텐、 트러쓰트는 기술적발전을 조애하며 앞으로의 생산력발전을 침체시킨다。

一九一三년에 영국 화학가 람쎄이가 위대한 로써야학자 멘델레예브 리론을 연구하면서 석탄의 지하(地下)까스화에 대한 방법을 발명하였다。 이 발명은 근본적으로 기술혁명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발명이 석탄사업가들에게는 유리하지못하였다。 때문에 그 발명을 은밀히 매장해 버렸다。 자본주의의 생산력발전은 현대과학과 기술이 가진 그러한 거대한 가능성에서 점점 뒤떨어지고 있다。 거대한 기술발전은 독점에 의하여 발생되는 그 장벽에 다시금 부닥치게된다。『인류는 자기가 급속히 해결할수있는 그러한 과업들을 어디서나 걸음마다 직면하게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제二차세계전쟁당시에 과학은 원자핵을 분석하는 과업을 실천적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원자에네르기를 전쟁목적에 리용함에만 리해관계를 가졌으며 세계지배를 위한 외교적공갈과 투쟁의 무기로 리용함에만 리해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평화조건에서의 원자에네르기리용에 대한 전도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세력의 확장을 미증유하게 개시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 ×

레닌은 제국주의를 썩어져가는 혹은 기생적자본주의라고 칭하면서 자본주의의 부패성을 자본주의의 기생성의 장성과 호상 련관된 것으로 관찰하였다。 전(全) 자본주의세계에는 자본가와 그의 기식자(寄食者)들을 위하여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된다。 상업、 운행업、 말하자면 류통권(流通圈)이 비상히 확장된다。 각종 레클람(광고)에 거액을 허비한다。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의하여 호화롭게 생활하는 인간 즉 금리생활자(金利生活者)의 수가 극히 장성되었다。 자본가들의 압도적 대다수는 생산행정과 하등의 접촉도 하지않고 기업소들의 관리를 고용기술직원들에게 위탁한다。

레닌은 지적하기를 자본수출이 역시 자본주의기생성의 견고한 기초로 되는바、 그 자본수출은 금리생활자-국가들로 하여금 식민지、 반식민지 및 예속국가로부터 불로소득을 얻게한다고 하였다。

레닌은 자본수출을 기생성의 자승(自乘)이라고 하였다。 연립소득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장성되는 군국주의가 흡입한다。 현대 중요자본국가인 미국에서는 군국화에 거액을 허비한다。

자본주의독점계단에 내재한 자본주의의기생성의 제형태중 한형태로써 부르죠아가 로동계급의 상층일부를 매수하는 그러한 추악한 방법이었다。 락후된 국가로부터 얻는 초과리윤과 식민지와 근로대중에 대한 극도의 착취로부터 얻은 거액의 소득의 일부로써 제국주의부르죠아지는 로동자들의 소수상층에게 우대적조건을 지어준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깊이 분석하고 로동계급의 일부 소그룹이 기변주의적으로 변생하는 사회적 근원을 해부규정함과 동시에 로동운동에 있어서 부르죠아대변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에 대한 필요성을 확정하였다。『제국주의와의 투쟁은 만일 그것이 기변주의와의 투쟁과 부단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면 무용한·허섭이다』라고 레닌은 강조하였다。

× × ×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파탄과 멸망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이 없이 자본주의가 자멸한다는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레닌은 일상적으로 교시하기를 로동계급혁명과 혁명적『비약』이 없이는 자본주의를 전복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자기의 저서에、 제국주의를 죽어가는 자본주의로서 규정함과 동시에 제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혁명의 전야란것을 론증하였다。 제국주의는 부르죠아사회의 모든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한다。 그리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혁명이 시작된다。 그 모순들중에서 중요한 모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로동과 자본 사이의 모순이다。 제국주의란 공업국들에서의 독점적트러쓰트 및 신지카트、 은행과 금융과두의 만능이다。 이 만능과 투쟁하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의 통상적방법들-로동조합、 협동조합、 의회안에서의 투쟁은 전연 불충분한것으로 되어졌다。 자본이 하는대로 맡기고 이전대로 살아가면서 령락하여 가두지 그렇지 않으면 새 무기를 잡던지하라-이렇게 제국주의는 수백만 로동계급대중의 앞에 문제를 제운다。 제국주의는 로동계급을 혁명에로 몰어 나아간다。

둘째로 서로 다른 재벌들과 서로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이 원료의 산지와 남의 나라의 령토를 빼앗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어서 그들 사이에 있는 모순이다。 제국주의 도배들간에 진행되는 맹렬한 투쟁은 불피코 전쟁을 초래한다。 벌써 분활된 세계의 재 분활과 극소수의 대자본가를 위한 새 부요원천을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 야수배들은 대중의 핏바다를 이루게하며 주검의 태산을 이루게한다。 제국주의자들간의 투쟁은 불피코 그들의 상호약화를 초래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호대를 약화시킨다。 그럼으로써 멸망으로부터 사회를 구원함에 필연적으로 되는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을 촉진

시킨다.

셋째로 극소수의 지배하는 『문명』한 민족들과 세계의 수억만의 식민지 및 예속된 인민들과의 사이에 있는 모순이다.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서 수억만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억압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초과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식민지 및 반식민지에 공장 철도 제조소를 건설하여 총과 창으로써 자본주의적관계를 개척한다. 압박과 착취의 장성은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서의 해방―혁명운동을 일층강화시킨다.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서의 혁명운동은 전세계자본주의의 토대를 약화하며 그의 지반을 동요시킨다. 그것은 그 나라들로하여금 제국주의의 후비군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후비군으로 전환 되게한다.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의 앞에 엄숙한 위혁으로되며 혁명적프로레타리아트에게 있어서 거대한 원조로 되는것이다.

제국주의적반동은 력사발전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하여 온갖 기만적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들은 모든 수단―신문、잡지、라디오、영화、문학등등을 리용하여 인민의 의식을 마비시키며 야수적 배타주의사상을 고취시킨다. 지금에 있어 이와같은 제국주의적반동의 대표적국가는 미국이다.

× × ×

레닌은 제국주의의 제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하고 제국주의시기에 제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발전의 불균형법칙을 발견하고 창시(創始)하였다. 쓰딸린에 의하여 더 발전된 이 법칙은 제국주의의 력사적위치를 규정함에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쓰딸린은 제국주의의 불균형적발전법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공식화하였다.

「제국주의 시기의 불균형적 발전법칙은 일부국가들의 타부국가들에 비한 비약적발전、세계시장으로부터의 일부국가들의 타부국가들에 의한 급속한 제외 군사적충돌과 군사적파국(破局)으로써의 이미 분활된 세계의 주기적재분활 제국주의의 진영에서의 충돌의 심각화와 첨예화、세계자본주의의 전선의 약화、일부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들에 의한 이 전선의 돌파의 가능 및 일부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국의 자본주의적발전의 불균형성과 루진적퇴락성은 자본주의의 「평화」적 발전을 불가능케한다. 이 세계분활과 재분활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것이다. 이는 류혈적 제국주의전쟁을 배태하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세계는 이미 제국주의렬강들간에 분활되어 세계에 점령되지 않은 「여유」령토는 그 이상 없는고로 새 시장、원료원천을 점령키위해서는 남의 령토를 무력으로써 탈취해야 하는때문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또는 자본주의국가들의

발전속추이 서로 균형되려는 경향이、일부국가들로하여금 타부국가들을 비약적으로 앞서 가게하며 급속히 발전되나 아직 그렇게 위력 없는 그러한 국가들로 하여금 위력 있는 국가들을 배제할 가능을 준다.

제국주의 강탈배들간에、있는 모순의 장성과 전쟁의 불피성은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호상약화를 초래하며 세계제국주의 전선으로 하여금 가장 약하고 프로레타리아트 승리의 조건이 가장 유리한 그러한 고리에서 파탄되게한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정치적 및 경제적발전의 불균형법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서의 동시적 사회주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취(取)한 자본주의의 일국내에서 사회주의 승리가 가능함에 대해서 력사적발견을 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깊이 과학적으로 탐구한 결과 사회주의혁명은 다만 모든 국가 혹은 다수의 문명국가에서 동시적 타격으로써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낡은 사상을 배제하고 한 나라안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천재적결론을 짓게되었다.

레닌의 이 천재적발견은 부르죠아주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사회건설의 목적을 달성함에 대한 리론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를 무장시킨다.

위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의 새로운 리론이 창설되었다. 그 리론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창의를 발휘케했으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용감하고 결정적인 혁명적활동에로 매진케하였다. 이 사회주의혁명의 리론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 부대에서、가장 혁명적인 로씨야 로동계급의 절대한·반향를 얻게되었다. 로씨야 로동계급은 지주와 자본가의 주권을 타도하고 세계의 六분지一지역을 제국주의의 철망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일국내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리론의 정당성은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의 실천과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승리로써 확증되었다.

× × ×

레닌은 자기의 저서에 기변주의자 까우쯔끼의 궤변(詭辯)을 여실히 폭로하였다. 레닌은 「까우쯔끼파」의 위험성을 명철하게 예견하였으며 그 현상의 사회적근원을 폭로하였다. 레닌은 까우쯔끼의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를 무자비하게 비판하였다.

까우쯔끼는 인정하기를 제국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산업자본의 산물이며 제국주의는 커다란 농업지역을 산업적으로 발전된 제국가에 병합시키려는 지향에 있다고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까우쯔끼의 정의는 전연 옳지못할뿐만아니라 맑쓰주의적리론과 맑쓰주

의적실천과 완전히 리탈되는 그러한 견해에 기초된 것이라는 것을 론증하였다.

레닌은 까우쯔끼가 조작한 소위 초제국주의리론에 치명적비판을 나렸다. 까우쯔끼는 언명하기를 자본주의발전에 있어 새 단계 즉 초제국주의 단계가 닥쳐 올수 있다고 하였다. 까우쯔끼의 말에 의하면 그 초제국주의는 전세계 제국주의자들사이에 있는 투쟁으로써가 아니라 련합으로써 또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전쟁의 소멸로써 특징된다고하였다.

레닌은 이 생기없는 도식(圖式)은 특히 반동적목적 즉 현대자본주의에 현존하여있는 모든 모순으로부터 근로대중의 관심을 물리치려는 그러한 시도란것을 론증하였다.

까우쯔끼의 리론은 제一차 세계전쟁시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배신적정책의 기초로 되었던것이다. 제二차세계전쟁이 종국된후 오늘날까지 과학에 대한 까우쯔끼적위조는 로동계급을 기만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야비한 위탁을 실시하는 우익 사회민주당원들의 반역적정책의 기초로 되는것이다.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성에, 대한 장(章)에는 사회—제국주의자들의 견해를 레닌은 계속 폭로하였다. 부분적으로 레닌은 이 장(章)에서 구라파 합중국에 대한 슬로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슬로간은 현시에있어 민주와 사회주의력량을 반대하는 반동력량의 투쟁의 기치로 되는것이다. 이 슬로간밑에서 전쟁방화자 취칠은 영국, 불란서, 백이의, 기타 우익—사회주의자들과함께 결속하고 있다. 그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구라파에서의 미제국주의 팽창정책의 응원자로써 출현하고있다.

쏘련은 세계적침략의 기본적소굴을 파괴함에 있어 결정적역활을 하였다. 제二차세계전쟁의 결과에 자본주의는 일층 더 약화되며, 그의 모순은 일층 더 심각화되며, 그의 일반적공황은 더 첨예화된다.

레닌이 자기의 천재적저서「자본주의의 최고계단으로서의 제국주의」를 창시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에는 세계사적 거대한 사변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는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이 발생되였으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세계사적승리가, 달성되였으며, 쏘련이 력사적승리를 쟁취한 제二차세계전쟁이 있은 그 시기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리론은 전폭적으로 승리하였으며 현실은 다시금 그 리론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있다. 모든 길은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세기에 있어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리론은 제국주의와의 승리적투쟁 또는 제국주의 반동으로부터의 인민해방을 위한 투쟁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력량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써 전세계 근로대중과 전인류의 진보적력량을 무장시킨다.

당사업 경험에서 (四)

평북도당단체의 당재직간부 교양사업

평북도당위원장 박 일 영

현하의 조건하에서 우리당의 정치로선을 위하여 투쟁할 당간부 양성문제는 당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왜그러나하면 당정치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모든 것은 간부에 의하여 설시되며 해결되기때문이며 또는 간부자 당사업의 주요문제를 직접 전행하며 지도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은 새로운 당간부를 양성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실지사업에서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투쟁하는 재직간부를 재교양시킴에 또한 많은 주의를 돌려야할것이며 또한 돌리고있다.

현재 중앙당학교를 비롯하여 각급당학교에서 당간부양성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간부는 지금 당공작에 복무하고 있는관계상 재직간부를, 일제이, 일정한 학교에서 재교양을 실시하기는 도저히 곤난할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상적으로 실지사업과정을 통하여 배야되고 있으며 또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배야되고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당은 각급당 간부들의 성분구성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며 많은 새로운 일꾼들이 각급당단체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들은 전부가 다 필요한 경험과 조직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못하다 이런 일꾼들에게는 일상적인 원조와 훈련이 필요하다 이들이 훌륭한 지도방법을 급속히 체득하도록 원조하여 주는것이 당기관들의 긴요한 당면과업의 하나이다 이때까지 평북도내 많은 당단체들은 당재직간부들에 대한 훈련을 사소한일로 인정하면서 당적주의를 돌리지않고 있었다 도당단체는 이와같은 결점을 시정하면서 재직간부들의 리론적수준을

높이며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실무에대한 깊은 료해를 주기위한 사업들을 초보적으로나마 조직집행하고있는 것이다。

당재직간부 교양사업은 주로 각시군당부 위원장 및 각부장 책임지도원 각면당부위원장과 세포(초급당부)위원장 각시군당부 교양조직원 선동원 강사등을 상대하고 진행하며 이들에대한 교양사업의 방조로서는 단기강습회에 의거하는 방법과 당보에 의거하는등 기타 방법들을 택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면 각시군당단체의 간부동지들을 대상으로하는 단기강습회는 여하히 조직되는가?

一、평북도당부에서는 당재직간부 교양사업에 있어서 각시군당부 위원장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특별히 당적주의를 돌리고 있다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각시군당 위원장은 시군당범위내에서 당사업을 조직하며 지도하는 최고의 책임적 간부이며 그들은 시군당범위내에서 허다한 간부들을 지도하며 많은 당단체들을 지도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들에대한 교양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된다면 그들의 정치적 리론수준과 사상성이 제고될것이며 자기사업에대한 실무적 능력이 제고될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각시군당범위에서 당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정확하게 집행할수있게된다 각시군당부 위원장동무들을 위한 단기강습회는 도당에서 매월 二일간씩 다음과같은 제강에의하여 조직된다。

1、리론문제로서 ㄱ、당건설에대한리론 ㄴ、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레닌주의의 제문제등 2、정치시사문제 3、당실지사업조직에 대한 문제

당건설에대한 리론문제와 당사 레닌주의제문제등을학습시킴으로써 사회발전과 정치투쟁의 제법칙에관한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우리사업의 장래발전에대한 과학적예견과 승리에대한 확고부동의 자신성을 갖게하는것이다 정치시사문제를 학습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경각성과 정치적 정세에대한 옳은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당선전선동사업의 선두에 나설수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그들에게 부여하는것이다。

당사업의 실제적문제를 학습시킴으로써 당사업의 범위와 방법에대한 정확한 지식을 체득케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은 제강에의하여 조직되는 이 강습회에는 도당간부들이 출연한다 리론문제와 정치시사문제에대한 강의에는 각각 가장 준비된 당간부들을 출연시키며 당사업의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강의는 각부 부장이 주로 책임을 진다 특히 당사업의 실제적문제에대한 강의에있어서는 매월 도당에서 두개이상의 시 군당사업을 전반적으로 검열함으로써 나타난 사업상의 우결점들을 당사업의 원칙적로선에 근거하여 정확히 분석하며 사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것이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당사업에대한 그들의 정치적견해를 키우며 모범적정형의 보편화를 보장함과동시에 전도적 범위에서 사업상결점들을 신속히 퇴치하게되며 또한 과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수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실무강의는 시군당단체들의 사업정형에대한 도당부간부들의 료해를 깊게하는 동시에 실천적활동을 높은 정치적 리론적수준에서 총결할수있는 능력을 키워주는것이다。

二、각시군당부 부장들과 책임지도원들을 위한 단기강습회는 매월 二일간씩 도당에서 조직한다 이 강습회는 대상에따라 도당선전선동부나 혹은 도당조직부에서 조직지도한다 강습의 제강은 시군당부 위원장들을 위한 강습제강과동일하다 그러나 특히 이 강습에 있어서는 자기사업의 능수가 될수있도록 당사업의 조직지도에대한 전문적으로되는 방법적 문제들을 세밀히 가르치며 또한 시군당부사업의 전반적 문제에 걸쳐 강의를 조직하는것이 아니라 부문별로되는 사업상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세밀히 강의를 진행하는것이다 또한 이 강습에 있어서도 시군당단체사업을 검열하는 행정에서 나타난 사업상의 우결점들을 분석하며 비판함으로써 정확한 사업방식을 체득할수있도록 하는데 로력하고 있다。

각시군당부의 부장들은 한부서의 전체사업을 직접조직하며 지도하는 중요한 간부이며 책임지도원들은 수개의면당단체나 혹은 세포(초급당부)들의 사업을 지도하는 간부인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단기강습회는 참으로 중하게 취급되고 있는것이다。

三、면당부위원장과 초급당부위원장들을 위한 단기강습회는 二개월에 一차씩하되 처음번은 도당에서 조직하고 그다음에는 군당에서 조직한다 군당에서 조직할때에는 도당에서 강사를 파견한다。

제강은 시군당위원장 강습제강과 동일하다 리론문제는 없이 역시 이 강습회에 있어서도 면당사업을 검열하는 행정에서 발견한 사업상의 우결점을 분석하며 정확한 해명을 주는것이며 따라 당적경각성을 제고시킴에 주력한다

四、당선전선동사업에있는 온갖 형식주의적경향들을 일소하고 우리당이 요구하는 높은 정치적 수준에까지 당선전선동사업을 발전시킬목적으로 시군당선전선동부에서 일하는 교양조직원과 선동원 및 강사들을 위한 단기강습회를 매월 도당에서 조직한다 이 강습회에서는 유일제강에 의한 리론문제 정치시사문제 당선전선동사업상의 실제적문제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역시 이 강습회에서도、시군당단체의 선전선동사업을 검열하는 행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상 우결점의 발생한 원인들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해명하는 사업방법을 가르켜준다 실무강의는 대상에따라 도당선전선동부내의 해당과에서 책임지는것이다。

五、전당강화의 길은 우리당의 기본조직인 세포를 강화하는데있다 그렇기때문에 세포의 강화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세포위원장은 당세포사업을 지도하는 세포의 지도간부이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력량과 사업작풍 사상적경향의 여하에따라 세포사업이 좌우되는것이다 때문에 세포위원장을 교양하여 그의 산상수준과 리론수준을 높이며 사업하는 방법에 대한 리해를 두텁게 해주는것은 세포강화의 기본적 방도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평북도당에서는 세포위원장 강습회를 각시군당에서 매월 二일간씩 반드시 조직하도록 지도하고있다 이 강습회에서는 로동당에대한 기본리론을 유일제강에 근거하여 교수하며 정치시사문제도 가르친다 역시 세포사업을 검열하는 행정에서 나타난 생생한 자료에 의거하여 실무교양을 준다 이 강습회에는 시군당위원장을 비롯한 시군당책임간부들이 출연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 × ×

재직간부 교양사업의 방법의 하나로서 당보를 통한 교양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는 것이다。

당보를 통하여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키며 사업상의 경험을 교환하는것으로서 재직간부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방조하는것은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인것이다 때문에 평북、도당단체의 당간부들이 당사업에대한 지도로문을 당보에 게재하며 사업상의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기위한 시군당 위원장들과 면당위원장 혹은 초급당부 위원장들의 론문을 계획적으로 발표하고있다。

특히 시군당사업을 검열한 도당간부들로 하여금 검열한 시군당 사업에대한 론문을 발표케 함으로써 사업상의 지도와 방조를 주고있는것이다。

대략 이와같은 방법으로써 시군당단체의 재직간부 교양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시군당 위원장동지들은 이 강습회를 통하여 「자기당단체사업의 수준을 자기로써 능히 평가하며 사업상의 결점과 그가 발생하게되는 근원을 알게되며 일하는 방법을 알게되었다」고 말하고있는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간부들은 이 강습회를 통하여 리론적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리해하지못하고있던 사업상의 제문제들에대한 정확한 해명을 얻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 재직간부 교양사업은 당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평북도당단체는 이 사업에 더욱 심중한 당적주의를 돌리고있다。

당생활보도

안악군당단체의 춘기파종 준비사업 협조정형

우리군당단체는 금년도의 춘기파종기를 앞두고 각급인민위원회사업을 받들어 그 준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협조하고있다。

1、파종면적확보를 위하여—(ㄱ)파종면적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킴에 농민들의 자각적열성에 의하여 신규개간과 휴한지 복구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사업을 조직함에 협조하고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도구 축력등을 준비하고 해빙기를 기대하였다。

(ㄴ)토지리용률을 최고도로 높이기 위하여 우선二모작에있어서 봄보리를 작년도에 비하여 三三○%로 확장하여 三월十五일—二十五일까지 파종을 완료할 준비를 협조 보장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추파맥류의 동해방지를 위하여 밟아주는 사업을 가장 적기인 三월二十일까지완료할것과 추비를 시비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영농계획의 수립을 위하여—二개녀계획을 초과완수하며 농업증산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춘기파종전에 정확한 영농계획수립이 필요하다。그리하여 각면에 있어서는 다수확열성농민을 광범히 참가시켜 종곡별로 되는 경험교환좌담회를 가졌으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하였다。 개안벼영농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우리당원이 솔선하여 증산목표 로력조직 작업일정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농민들에게 남아있는 두계획성을 퇴치함에 노력하고 있다。

파종사업계획에 있어서 특히 우리당 중앙위원인 송제준동무는 자기의 로력상태 기후관계 토질등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작년도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一五○%의 증산을 목표하고있다。

3、우량종곡의 선택과 확보에대하여—농업생산에있어서 우량종자를 선택확보한으로써 一○%를 더증산할수 있는것이다。우리군당단체는 이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경주하였으므로 우량종자를 확보하지못하였던 三○%의 농가도 종자품평회에서 합격할수 있는 종자들 확보하게되었으며 종자경신사업에 있어서도 계획의 一三八%를 교환확보할수 있게되었다。

4、적기파종을 위한 축력조직에 있어서—파종사업에 있어서 적기파종은 제한된 축력을 옳게 리용함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그렇기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물질적조건을 참작하고 어데까지나 그들의、자원적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三—五호로 소겨리반을 조직하여 파종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갖고있다。

5、농기구수리 및 준비사업—농민들이 우수한 농구들 준비하는것은 역시 영농사업에 필요한 조건으로 되므로 十二월二十五일부터 一월五일까지 농기구들을 재검토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二

와 같은 당사업지도방법은 세포(초급당부)에까지 미치게되었다。그러하여 하급당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형식을 갖추거나 상급당의 독촉에 마지못해 수립하는 경향까지 일부 발생하게되었다。또 심한 경우에는 세포위원장이 혼자서 총회의 토론도 없이작성함으로 세포원들은 자기사업의 중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형편까지 나타내게 되었다。이와같은 사업작풍들은 자기당단체에 부과된 사업의 방향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게하며 사업계획의 준엄성과 그 집행을 경솔히 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구역당단체는 반드시 당열성자와 해당부문 당원들의 참가하에 심각한 토론을 걸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한다。

또한 월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랑독식으로 통과시킬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달사업의 집행여하를 검토하고 참석한당원들의 사업집행상에서 나타난 결점 애로들을 참작하여 이를 사정하는 방향에서 계획서를 토의하고 작한다。

세포 사업계획수립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세포총회에서 전달사업을 총화하며 상급당에서 제시된 문제의 중심과업을 충분히 해석한 기초위에 계획을 수립하는동시에 분공맡은 당원동무들의 책임성을 제고 시키기위하여 반드시 그의 력량을 참작한후 과업을 주며 그 집행여부를 검열독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도코자한다。

(평양시동구역당위원장 리윤섭)

강서군함종면 미석리세포의 세포학습회

우리세포에서는 과거형식주의적 학습작풍을 일소하고 당정치교양사업을 질적으로 제고시키기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지난해 우리세포의 학습은 다수경우에 있어서 효과 있게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당원들이 세포학습회에 참가할데 대한 열성이 부족하였다。그 근본적원인은 학습회지도자들의 강의에 있어 산만무계획적이며 그 내용에 있어 고상한 사상성을 부여하지못하고 다만 랑독식에 그친데 있었다。그러므로 세포당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암송만하는 형편이었다。그후 상급당의 옳은지도로써 세포위원회는 지금까지의 학습회가 회수나 출석률만보고 학습회를 평가한것이 옳지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되었다。그러므로 우리세포는 이상결점을 시급히 퇴치함에 노력하는 한편 군당에서 조직하는 一개월강습회에 가장 세포에서 우수한 동무를 파견하였다。

그결과로 학습지도자의 강의방법은 전보다 아주 질적으로 향상되었다。학습회지도자는 강의를 옳게 체계를 세워 분석적인 강의를 진행하고있다。강의에 있어서 당원들이 강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게 하기위하여 중요한 점들은 필기시키면서 다시 해석하여준다。또한 당학습을 고상한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하며 세포원들에게 계급적각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성을 교양하기에 학습회지도자는 특별한 고려하에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세포에서는 학습회지도자의 자체교양과 충분한 강의제강을 작성함에 당출판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세포원들에게 당출판물을 많이 리용하도록 방조를 주고있다。

(미성리세포위원장 윤정택)

월중에는 군소재지에서 군인민위원회 주최로 농기구개량연구타합회를 개최하고 실지 영농에 맞도록 농기구를제조할것이며 또한 매농가에서농기구를 과종전에 준비하도록 협조하고있다。

6、비료확보 및 자급 료순비사업─비료를 제때에 확보하기 위하여서 우선 당면한 고공품생산을 기일전에 완료하도록 당세포들은 주동이 되어 협조지도하고 비료 수송에 필요한 소운반작업순비를 조직하고 비료가 도착되면 一주일전으로 농민들손에 확보되도록 당단체는 주의를 돌리고있다。또한 비료확보에 있어서 화학비료에만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자급비료를 증산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경주하며 구비는 물론 매농가에서 잔디와 흙을 구워 비료로 사용할순비를 하여온바 우리당단체와 당원들이 주동이되어 실시한결과 군적으로 매농호 평균 二、四八〇관씩 확보하고있다。

7、과학적다수확영농기술 습득을 위하여─군당상무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이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동기간을 리용하여 다수확영농기술강습회를 군에서 二차 개최하여 四六〇명을 양성하였으며 이에는 우수한 당원들이 많이 참가하였다。또한 각리에서 열성농민 三十명이상씩을 선발하여 五일간 강습을 조직하고있다。기타 전달강의방법、서적등을 통하여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기술강습좌담회등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8、면화및 맥후작 대두면적 확보사업─소맥전은 제외한 전경지면적의 四三%는 섬유공업의 원료인 면화증산을 협조하는 과업이 우리군당단체앞에 제기되고 있다。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보아 면화생산의 중요성을 전체농민들에게 해석하여 그들로하여금 자각적으로 면화를 재배케하는한편 적지선정과 집단지선정을 위하여 작년十一월부터 실시하여 왔다。또한 면화재배에 대한 농민들로부터의 사정을 받게하고 면화재배에 경험 있는 우수한 농민들이 동원되어 一월九일부터 적지를 일일이 답사하고 있다。면화종자확보에 있어서는『륙지면』으로 호상교환하도록 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우리군당단체는 하급당 단체와 당원을 동원하여 인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춘기파종준비사업을 협조하고있다。

(안악군당위원장 박원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우리당단체들은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있어서 우선 주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이다。정확한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구역당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옳지않은 사업방식을 취하여 왔던것이다。즉 일부 지도간부들이 실지당단체의 정형과 실천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책상위에서 기계적으로 수립하였던것이다。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직부장에게 일임하고 다만 형식적으로 상무위원회에서 랑독하고 하등의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고 하부에 지시하였던것이다。이

113

一九四九년二월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二월二十八일 발행

「근로자」 제四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집인 김 성 용

인쇄인 허 만 엽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제 ᄀ.—10107